

科技考古研究

第 6 號

아주대학교 박물관

目 次

細石器 傳統의 進化試論	成春澤 / 7
三韓 土器의 定面手法 研究-磨研手法을 中心으로-	安順天 / 31
耳飾으로 본 普門里夫婦塚의 性格	朴普鉉 / 65
中國 西漢代의 銅鏡・銅錢研究	辛勇旻 / 87

細石器 傳統의 進化 試論

成 春 澤*

目 次

- | | |
|-----------|--------------------|
| I. 개념 정의 | Ⅲ. 세석기 전통 이전의 석기공작 |
| Ⅱ. 이주설 검토 | Ⅳ. 세석기 전통의 진화 가설 |

요 약

이 글에서 글쓴이는 세석기라는 새로운 기술전통의 성립과 확산에 관한 기존의 생각을 비판하고, 진화이론적인 시각에서 새로운 설명 가설을 제시하였다. 플라이스토세 최말기에는 대규모의 이주보다는 집단 자체의 활발한 이동성을 상정하여 기술전통의 확산을 바라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설사 외부로부터 새로운 전통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상이한 환경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술전통을 바탕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이론적인 시각에서 세석기라는 새로운 요소는 변이로서 이미 기존의 석기공작 전통에 존재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이 플라이스토세 최말기에 들어와 광범위하게 채용된 이유는 환경 변화라는 강한 선택압 때문이었을 것이다. 세석기 전통은 마지막 빙하 극성기에 시작되지만 널리 퍼진 것은 빙하가 물러서기 시작한 약 16,000-15,000년 전 무렵에 들어서이다. 때문에 단순히 추운 환경이 주된 선택압이었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기후의 계절적 변화가 가장 중요한 압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계절성이 커지면서 생계자원은 더욱 불균형적으로 분포하게 되고, 기후 변동이 심해지는(unpredictable) 환경에서 생계자원 획득에 신뢰할 수 있는 도구의 선택적 이점이 커졌을 것이다. 세석인 제작 및 이것을 장착한 도구의 사용은 이러한 조건에서 다양한 생계활동에 효과적이었을 뿐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reliable) 적응전략이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 미국 워싱턴대학교 인류학과 박사과정 수료.

세석기 문화 또는 전통은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구석기의 가장 마지막 단계를 대표하는 고고학적 현상이다. 한국의 세석기 전통은 지역적으로 더 넓은 동북아시아의 만기(또는 후기)구석기(Late/Upper Paleolithic)의 틀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시베리아나 북중국에서 기원하여 인구 집단의 광범위한 이주와 함께 파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설명에 고고자료가 설득력 있게 결합된 예는 별로 없는 듯하다.

이 글의 첫 번째 목적은 집단 이주와 함께 기존의 구석기 문화를 대체하면서 세석기 전통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는 기존의 생각을 검토해보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선사 시대에 새로운 문화의 등장과 발전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나름의 시각을 정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장기간의 진화라는 관점을 토대로 지금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세석기 이전 단계의 석기공작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세석기 전통의 등장과 확산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이라기보다는 시론적인 성격으로서, 통시적이고 이론적인 시각에서 새로운 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몇몇 자료를 해석하는 데 치중할 것이다.

I. 개념 정의

1. 세석기 전통

주지하듯이 동북아시아의 세석기 연구는 20세기 초반부터 시작되었다. 이렇듯 짧지 않은 연구사에도 불구하고, 세석기에 관련된 용어들이 진지한 논의를 통해 정의된 적은 거의 없다. 초기의 학자들은 주로 석기의 크기가 작다는 뜻에서 기술(記述)적으로 세석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이 같은 경향은 20세기 중반까지도 계속되었다. 연구 초기 세석기라는 용어는 세석인이나 세석핵만이 아니라 밀개나 살촉 등 작은 크기의 석기를 포함하는 유물군(조합)에도 적용되었다. 그러던 것이 1978년 安至敏 등이 세석인과 관련된 석기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하기를 주장하였고, 현재는 이러한 제안이 대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세석기의 의미에 대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만큼 큰 용어 혼란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연구자들이 똑같은 의미에서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며, 특히 몇몇 이른 시기의 세석기 자료

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세석기를 말할 때는 좁은 의미에서 세석인(microblade)과 세석핵(microcore 또는 microblade core)만을 지칭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세석인과 세석핵을 포함하는 전체 석기공작이나 문화를 의미하기도 한다¹⁾. 이렇듯 적절한 정의가 없다는 사실은 세석기들이 대부분 찌개 등 큰 석기들과도 공반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혼란의 여지가 많다. 이 경우 세석기가 전체 유물조합, 또는 석기공작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세석기들을 뜻하는지 불확실해지는 것이다.

이 글에서 세석기(microlith)란 세석핵, 세석인, 그리고 세석인을 이용한 석기를 의미할 것이다. 특정한 유물군에서 세석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거나 주된 기술적 요소일 경우 세석기 유물군(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따라서 세석기 유물군에는 세석기가 아닌 다른 형식의 석기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나아가 세석기 문화(microlithic culture) 또는 세석기 전통(microlithic tradition)이란 개념은 세석기가 압도하는 유물조합이 대세를 이루는 어떤 지역의 한 시기 고고학적 현상 전체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다만 ‘문화’라는 용어는 다분히 양식적 공통성(곤, homologous similarity)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기술(technology)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서 전통(tradition), 또는 기술전통이란 용어를 선호할 것이다. 여기에서 기술이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환경 변화(또는 적응) 체계를 의미할 것이다.

2. 세석인과 세석핵

세석인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기술(記述)적인 정의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령 蓋培(Gai 1985:227)는 ‘세모 또는 사다리꼴 단면을 한 두께 2mm 정도의 얇은 돌 조각’이라 하였다. 다른 연구자들 역시 세석인의 ‘길이는 주로 2.5 내지 4.5 cm 사이, 너비 0.3 내지 0.9 cm 사이, 두께 0.1 내지 0.4 cm 사이’ (Lu 1998:105)라고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 같은 경향을 수용하면서 기술(技術)적인 정의를 하고자 한다. 돌날(blade)은 준비된 몸돌(석핵)에서 반복적으로 떼어져 양변이 평행하고 긴 (보통 길이가 너비의 두 배 이상) 석기를 말한다. 세석인이란 보통의 돌날보다 크기가 작은 것으

1) 우리 나라에서는 세석인, 세석핵(세석인석핵) 등의 용어 말고도 쯤돌날, 쯤돌날몸돌, 그리고 세형돌날, 세형몸돌이라는 이름도 사용되고 있어 상당한 용어 혼란이 있다.

로서 두께 약 2mm, 너비 약 4-7mm, 길이 약 15-50mm의 나란한 변을 가진 석기를 지칭할 것이다 (加藤晉平 1988; 加藤晉平·鶴丸 1980; Gai 1985:227). 세석인은 부러진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너비가 될 것이며, 적어도 1 cm가 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길이가 너비의 두 배 이상이라는 단순한 산술적인 기준보다는 세석인 제작기술을 통해 제작되었으리라 보여지는 평행한 양면과 세모 및 사다리꼴의 얇은 단면을 가진 석기는 모두 세석인으로 분류됨이 적절하다.

용어상 혼란은 배모양석핵, 설형석핵(또는 켜기형몸돌) 등 형태에 기준을 둔 용어들이 적절한 정의 없이 사용되거나, 충분한 논의 없이 유베즈기법 등 제작기술적인 용어들과 혼용되면서 더욱 가중되고 있다 (Seong 1998). 세석핵은 생김새를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기술(技術)적으로 세석인을 생산하는 데 쓰였음을 보여주는 몸돌류 석기라고 정의하면 될 것이다.

II. 이주설 검토

1. 이주설의 구조와 고고학적 반영

세석기 기술전통의 확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다. 중국과 러시아 등을 제외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북아메리카 서북부의 경우 전통적으로 연구자들은 이른바 켜기형석핵을 표지로 하는 세석기 전통의 파급이 플라이스토세 말기 인류의 확산과 맥을 같이 하였으리라 생각하고 있다³⁾ (이용조 외 1996; 장호수 1995; 加藤晉平 1988:8-9; 加藤眞二 1992). 또한 현재 한국인 및 일본인의 기원을 찾는 목적으로 세석기 문화를 논의하기까지 한다 (최복규 1994; 加藤晉平 1986, 1988). 연구자들은 몇 갈래의 이주 경로를 설정하는데, 북방에서 한반도를 거쳐 일본 서부로, 그리고 홋카이도를 거쳐 일본 동북부로, 다른 한편으로는 시베리아를 가로질러 북아메리카 서북부로 흘러 들어갔다고 한다. 또한 석장리와 수양개의 상대적으로 높은 연대를 바탕으로 한

2) 고고학적으로 이주란 어떤 한 지역의 집단이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에 다른 지역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현상이라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이주(migration)는 집단 자체의 이동성(mobility)－정착(sedentariness)과는 대립되는 개념－과는 상이한 개념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3) 물론 명시적으로 이주를 거론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구체적인 세석기 전통의 전파 경로를 설정하는 데는 이주를 전제로 하였을 것이다.

반도의 중부를 세석기 전통의 중심으로 상정하고 북쪽과 남쪽으로 전파되어 각각 일본의 북부와 서남부로 퍼져 나갔다는 주장도 있으며 (이용조 외 1996), 이 같은 시각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배기동 1996:31-32).

이주설은 동북아시아라는 넓은 지역에서 발견되는 세석기 유물들이 문화적으로 공통의 기원을 가졌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세석핵과 세석인으로 대표되는 동북아시아의 세석기 유물들은 플라이스토세 말기의 기술 및 문화적인 독특함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상이한 지역간의 문화적인 관계를 살피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고 생각하며, 여기에 많은 구대륙과 신대륙 연구자들이 공감하고 있으며 (Chen 1984:80; Flenniken 1987:123), 이같은 문화적인 관계의 주원인은 인구 집단의 이주라고 생각되고 있다 (Smith 1974).

그러나 광범위하고 급속한 주민의 이주와 함께 세석기 전통이 확산되었다고 하는 관습적인 가정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소규모의 '이주'는 있었을지라도 이는 수렵채집인의 높은 이동성을 반영하는 것일 뿐, 이주의 역할은 그리 크지 않았을 것이다. 문화적인 전파가 있었음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꼭 대규모 이주를 상정할 필요는 없으며, 중요한 것은 왜 새로운 기술 요소가 받아들여지고 뿌리를 내렸는지를 설명하는 일이다.

이주라는 현상을 고고학적으로 확인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며, 지금까지 많은 논의들도 대부분 적극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강제적인 인구의 재배치를 제외하고 자연적인 이주는 인구밀도에 종속되는 변수이다. 다시 말해 이주란 생계자원이 단위 지역 당 인구 밀도를 부양하기 힘들 때 일어난다. 따라서 이주는 주로 식량생산이 자리 잡은 원사 및 역사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수렵채집을 주로 하는 선사시대에는 거의 보기 힘들었을 것이다 (Clark 1994). 대신 수렵채집 집단 자체의 이동성(mobility)은 상대적으로 컸을 것이다. 세석기의 경우 고고학적인 논의는 주로 특정한 형태의 세석핵의 존부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성에 비하여 문화적이거나 기술적인 지역성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Lu 1998; Seong 1998; Suzuki 1992).

이주를 논의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어떠한 지역적인 시각(scale)에서 바라보느냐 하는 점이다. 만약 소규모의 지역적인 맥락에서 논의한다면 이른바 주민 교체나 대체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었을 것이다. 더구나 척박한 환경에서 수렵채집의 생계활동으로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동하는 집단을 상정할 경우 미시적인 의미에서

지역 집단의 교체는 얼마든지 가정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시각을 넓게 하여 한반도 또는 동북아시아와 같은 큰 지역 단위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한 집단이 새로운 지역으로 확산해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집단과 연계가 필수적이다. 한 집단이 생물학적으로 생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집단과 혼인을 통한 인적 교류(mating) 등과 같은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기존에 어떤 인류도 살지 않았던 지역으로 이주해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Gamble 1999; Whallon 1989). 그만큼 고고학적 기술전통이 어떤 한 지역에서 기원하여 다른 지역으로 인간 집단의 이주와 함께 급속하게 파급되었다는 식의 설명은 한계가 있게 된다.

주지하듯이 세석기를 출토하는 동북아시아라는 곳은 여러 생태조건을 가진 거대한 땅이다. 세석기는 다양한 환경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북중국의 경우 주로 동북지방의 스텝, 내몽고지역의 사막, 그리고 호수 환경을 가진 지역에서 많이 발견된다 (Gai 1985:230). 일본의 경우에도 플라이스토세 말기 동북지방의 아한대 스텝 및 침엽수림 지방에서 서남부의 온대 활엽수림지방에 이르기까지 세석기가 분포하고 있다. 덧붙여 세석기 전통 자체의 지역성도 점차 인지되고 있다 (Lu 1998; Seong 1998; Suzuki 1992)⁴⁾.

이주에 의한 새로운 기술의 급속한 확산이라는 관념은 이처럼 그리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호수 및 강안 생계자원을 이용하는 환경에 적응한 기술 전통을 가진 주민이 초원 지대로 이주하여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식의 적응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동안의 지역 환경에 대한 지식과 적응의 역사가 필수적이며, 생존을 위해서 집단은 고립되어 존재할 수 없다.

2. 새로운 시각

이주가 가시적인 고고학 현상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단위 지역내에서 세석기 유물 조합과 이전의 석기 공작 사이에 불연속적이고 급격한 변동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엄격한 비교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특정한 형식의 세석핵의

4) 세석기라는 공통의 요소가 넓은 동북아시아에 존재하였음과 함께 다양한 생태계만큼이나 세석기의 양상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존부에만 매달리다보니 유물조합 전체에서 세석기 유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같은 중요한 양상에는 그리 신경을 쓰지 못하였다.

기존의 통념과는 달리, Bettinger et al. (1994)은 내몽고와 북중국의 세석기 유적을 계량적으로 고찰하여 세석기의 양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이렇듯 북중국뿐 아니라 한반도에서 세석기 전통이 급격하게 등장하였다고 하는 것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가정에 불과하다 할 수 있다⁵⁾. 기존에 급격한 변화라고 생각되었던 고고학적 현상도 이주와 같은 하나의 커다란 '사건'이 아니라 넓은 지역의 시각에서 진화적인 변화로 설명이 가능한 것들인 경우가 많다.

중요한 것은 세석기 유물이라는 새로운 자료가 등장했다고 해서 바로 선택되어 확산되지는 않았으리라는 점이다. 고고학적으로 연대가 오랜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한 지역의 세석기 전통의 확립이 즉시적으로 연대 소급되는 것은 아니다. 논의의 초점은 세석기 유물 몇 점이 고립되어 등장하는 시점이 아니라 (이헌중 1997), 왜 세석기 전통이 넓은 지역에 확산될 수 있었는지에 있다. 다시 말하면 세석기 전통의 성립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세석기 자료 중 어떤 것이 가장 오랜 것인지 하는 식의 접근보다는 세석기 요소가 석기 유물군을 압도하게 되는 시점을 설정하고, 그렇게 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글쓴이는 새로운 변이는 (기술, 석재 등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언제든지 생산될 수도, 기존부터 존재하고 있었을 수도 있으며, 그것이 선택되는 것은 변이의 생성과는 다른 과정에 의한 것이라는 다윈 진화이론의 관점을 채택한다 (Dunnell 1989; O'Brien and Holland 1995; Rindos 1991). 고고학적인 '전통'의 진화는 변이의 생성과 선택이라는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세석기 요소는 변이(variation)로서 이전부터 발달해온 기술전통 속에 배태되어 있었으며, 단속적으로 구현되기도 하였지만, 광범위하게 선택되는(selected) 것은 환경의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생계 경제의 변화라는 압력(selective pressure)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미 논의하였듯이 새로운 기술이 외부에서 파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넓은 지역적인

5) 하지만 일본열도의 경우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지리적으로 플라이스토세 말기 한반도는 반도라기보다는 대륙의 일부였지만, 일본열도는 빙하 극성기에도 한반도와 육지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松藤 1998:55). 물론 홋카이도와 지금의 연해주지방의 조건은 달랐지만, 그만큼 일본열도는 대륙과는 어느 정도 지리적인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이다. 아마도 여기에 이른바 등손질칼(칼형석기) 전통에서 세석기 전통으로 전이하는 과정이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진 원인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교적 급속한 변화조차도 이주를 통한 광범위한 지역주민의 대체라는 식의 설명은 별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佐藤 1992:311-12).

시각에서 그 기술전통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발달된 석기 제작기술을 토대로 하여야 한다. 만약 '이주'라는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이한 생태환경에 대한 장기간 축적된 지식이 없이 성공적으로 새로운 지역에 정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글쓴이는 세석기 전통이 분명 이전의 기술전통과는 다른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그 확산에는 기존의 석기제작 기술전통이라는 배경이 있었을 것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아래에서는 과연 세석기 요소가 이전의 석기 전통 속에 (말하자면 외부 환경이 변화할 경우 언제라도 채용할 수 있는 대안 또는 변이로서) 자리잡고 있었는지를 기존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고, 세석기 전통의 성립에 대한 설명 가설을 제시한다.

III. 세석기 전통 이전의 석기공작

1. 편년적인 고찰

이 시기 한국의 문화상이 편년적으로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웃 나라의 상황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자. 광범위하게 확산된 세석기 전통에 지역적인 차이를 주의하면서 편년 비판을 통해 세석기 전통의 성립에 기술적인 배경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본다.

러시아의 시베리아에서는 르발루아기법을 주로 하는 무스테리안의 존재가 기정사실처럼 되어 있으며 (이선복 1996), 많은 연구자들은 시베리아에서 후기구석기문화의 성립에 대해서는 과거 서쪽에서 일방적인 전파라는 시각을 버리고 지역의 무스테리안으로부터 진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현중 1997; Davis 1998; Larichev et al. 1988, 1992; Vasilev 1992)⁶⁾. 시베리아에서 돌날기법의 등장은 최근 약 35,000년 전까지 소급되고 있지만, 돌날기법이 거의 모든 유물군에서 압도적이게 되는 것은 마지막 빙하기, 곧 약 24,000-18,000 BP 정도의 시기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Vasilev 1992). 그 동

6) 르발루아기법과 유사한 석기제작방법은 水洞溝유적의 예(稻田 1994), 이른바 사축첨두기(무스테리안 첨두기)의 존재(佐藤 1992, 1999; Kajiwara 1999) 등에서 시사되듯이 광범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와 같은 유물들을 르발루아라는 유럽적인 개념으로 엄격하게 정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한 시기를 대표하는 석기제작기법이었는지도 불투명하다.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 일본의 사축첨두기와 유사한 유물들이 보고되었다 (이선복 외 2000). 다만 우리 나라의 경우 아직도 이 같은 박편들이 석핵자료와 결부되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안 몇몇 이른 시기 유적들에서 세석핵이 출토되기도 하였지만 (이현중 1999), 세석기가 석기공작을 주도하게 되는 시기는 마지막 빙하 극성기가 끝난 뒤의 일이다 (Goebel et al, 2000).

북중국의 후기 또는 만기구석기(Late Paleolithic)는 약 40,000-30,000 BP에 시작되는 것으로 편년되고 있으나, 역시 돌날이 많이 보이는 시기는 후반부 곧 25,000년 전 경이다. 세석기 이전 단계의 水洞溝, 峙峪 등의 유적, 그리고 세석기가 다량 포함된 下川 유적 등에서 등손질칼(backed knife)⁷⁾이 많이 보인다 (Tang and Gai 1986:345). 이 시기부터 세석기 유물이 등장하기 시작하며, 15,000년 전 쯤이 되면 유물조합을 압도하게 된다⁸⁾ (Gai 1985; Tang and Gai 1986).

최근 일본의 후기구석기 시작 시기를 상향 조정하는 경향이 있다. (e.g., 佐藤 1999). 그러나 다른 지역과 같이 등손질칼이나 사다리꼴[台形樣]석기 등이 많아지는 시기는 약 30,000년 전 이후, 그리고 유물조합의 주체가 되는 시기는 AT 화산재 강하 이후에 들어서이다. 주지하듯이 서일본의 경우 등손질칼유물조합은 마지막 빙하 극성기에 첨두기유물조합으로 서서히 변하다가 약 15,000년 전이 되면 세석기 유물조합으로 전이된다고 한다 (稻田 1988:33; 松藤 1998).

이를 정리하면 돌날기법이 등장한 것은 이전 시기부터 이어진 석기제작기법을 토대로 발달하여, 마지막 빙하기가 시작되는 약 25,000년 전이 되면 유물조합을 주도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세석기 전통의 요소는 마지막 빙하 극성기부터 돌날기법과 함께 공존하기는 하였으나, 유물조합을 압도하게 되는 시기는 약 15,000-16,000년 전에서 플라이스토세가 끝나는 시기까지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후기구석기⁹⁾ 편년은 아직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대략 위와 같

7) 손잡이 잔손질이 베풀어진 돌날모양의 석기들을 지칭한다. 일본에서는 나이프형석기라고 부르고 있어 우리말로 칼형석기라고도 하며, 등손질칼 또는 등뎀칼이라는 용어가 쓰이기도 하였다. 주지하듯이 등손질칼은 일본 후기구석기의 표지유물 가운데 하나이며, 실제로 많은 형식의 유물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e.g., 須藤 1991). 하지만 중국의 많은 유적에서 확인할 수 있고 아래에서 논의할 것처럼 최근 한국의 유적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 小林達雄 (1988)의 말과 같이 일본열도 후기구석기의 독창적인 것이라 보기는 힘들다.

8) 중국의 峙峪나 薩拉烏蘇 같은 유적에서 세석핵이라 보고된 석기들도 기존에 발표된 글들을 참조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세석인을 떼어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下川유적의 연대 역시 논란이 많다. 방사성탄소연대가 상당수 발표되었지만 20,000년 전 이상인 것은 소수이고 대부분 16,000년 전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같이 초기의 세석기 유적이라 거명되는 것들의 유물이나 연대 자체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분명 세석기 단계로 지향하고는 있으나 엄격히 말해 진정한 세석기 전통이 자리잡은 것은 이보다 시간이 더 흐른 뒤의 일이다.

9) 후기(Upper)구석기 또는 만기(Late)구석기라는 용어는 모두 유럽 등 다른 지역의 편년

은 일반적인 흐름을 같이 했으리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나라에서 세석기 바로 이전 시기의 돌날 전통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인가?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선부르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만 돌날 단계를 설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후의 세석기 단계와 진화적인 변화를 통해 연속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다. 석장리와 수양개 등에서 나온 절대 연대 역시 마지막 빙하극성기(LGM)까지 올라가고 있어 현재로서는 돌날 전통(Blade tradition) 속에 세석기 전통이 배태되어 플라이스토세 최말기로 가면서 세석기 전통이 압도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밀양의 고례리에서는 이른바 스페찌르개가 상당수 출토되었으며, 일본 큐슈에서 자주 보이는 박편첨두기와 관련성이 검토되기도 한다 (박영철·서영남 1998; 서영남 외 1999; 松藤 1995; Matsufuji 1997). 수양개에서도 세석기와 스페찌르개가 같이 나오고 있지만 둘 사이에는 유물분포상 시기차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松藤 1998:53), 앞으로 자료가 쌓임에 따라 좀더 확실한 양상이 드러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최근 철원 장흥리, 그리고 발굴 중인 다른 유적들에서도 큼직한 돌날을 주로 하는 유물층이 알려지기도 하였다 (최복규 1999).

스페찌르개와 세석기의 세부편년이 어찌되든 간에 이 시기 한국 구석기 진화의 특징은 기술변천과 함께 돌감[石材]의 변화일 것이다. 돌날 및 세석기 전통의 등장은 단순히 새로운 석기제작기술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돌감을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돌날 석기와 세석기를 만드는 데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흑요석이나 규질혈암(또는 규질응회암)은 이전 단계의 규암 또는 석영암과는 달리 우리 나라의 많은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돌감이 아니다¹⁰⁾. 따라서 돌날 및 세석기 전통의 성립은 먼 거리에서 돌감의 획득이라는 수렵채집인들의 취락구조의 변화를 동반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세석기와 이전의 석기 제작 전통을 비교하면 주민 이주라는 기존의 설명이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가설의 이면에 있는 이전 단계의 석기문화의 비정형성과 제작기술의 고졸함에 대한 가정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¹¹⁾. 세석기

체계에서 기원한 개념이지만, 우리 나라와 동북아시아에서는 확실하게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어떤 경우에는 시간적인 의미, 곧 약 40,000년 전 이후의 구석기를 지칭할 때 쓰이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후기구석기나 중기구석기나 하는 용어를 될 수 있으면 쓰지 않으려 하여, 논의의 편의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할 것이다.

10) 물론 지역에 따라서 비교적 가까운 지역에 돌감이 존재할 수도 있다. 수양개의 세석기들은 주로 규질세일로 만들어졌으며, 유적에서 약 1.5 km의 위치에서 돌감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 (이용조 1985).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유적에서 이와 같은 돌감은 돌날기법이 자리잡기 이전에는 거의 무시되거나 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11) 글쓴이는 한국 구석기의 형식체계가 발전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석영암으로 만들어진

이전 단계의 석영암제 석기유물조합에서도 일반적인 가정과는 달리 상당한 정형성을 찾을 수 있다. 많은 유적에서 작은 크기의 석기들이 다수 나오고 있으며, 특히 전곡리나 평창리 등 석영암을 주로 하는 유적에서 사다리꼴석기나 등손질칼이 출토되기도 하였다 (Seong in preparation). 이와 같은 형식의 석기들은 거친 돌감으로만 알려져 왔던 석영암(또는 규암)으로 만들어졌으며, 이웃 일본의 경우 늦은 시기 구석기의 표지 유물들이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아직 본격적으로 한 유적의 전체 유물조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양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 같은 유물의 존재는 고무적이다.

따라서 세석기 이전 단계의 석영암 석기문화가 관습적인 생각처럼 단순하게 비정형적이거나 고졸하다는 말로 치부하기는 힘들다. 다시 말하면 이전 단계의 석기제작기술은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거친 석영암을 사용하였을 망정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석기제작기술은 아래에서 석영암으로 만들어진 소형의 세석핵과도 유사한 석핵들을 살펴보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

2. 석영암제 석기공작의 발달

전곡리와 금파리 등 임진·한탄강유역의 구석기유적은 우리 나라의 이른 시기 구석기를 대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종합적이고 본격적인 분석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만, 출토유물 중에는 많은 수의 소형 석기들이있다고 알려져 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소형의 석핵들이 상당히 규정된 형태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¹²⁾. 그림에서 보듯이 전곡리 출토품 중에는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소형의 석핵들이 몇 점 포함되어 있다. 이 석기들은 측면이 다듬어진 것도 있지만, 대부분 각주(角柱) 또는 기다란 원통형이다. TP34-60(그림 1의 a)은 회색빛이 나는 좋은 재질의 석영암을 소재로 기다란 격지(박편)를 생산한 예이다. 위와 아래에 타격면이 존재하는데, 아래의 것은 대석 같은 받침대에 놓여지는 부분으로 부차적인 것이다. 모두 자연면들을 그대로 타격면으로 사용하였다. 석핵의 표면에 남은 박리흔을 토대로 돌날에 가까운 격지들이 생산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완전히 남아 있는 박리흔은 길이 36.5 mm, 너비 19.2 mm이다. 하지만 82-214와 표토채집 석기(그림 1의 b, c, d)는 부

석기들을 비정형적이라 규정하고 들어가는 관습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다.

12) 전곡리와 금파리 유물은 각각 서울대학교 박물관과 문화재연구소의 협조로 실견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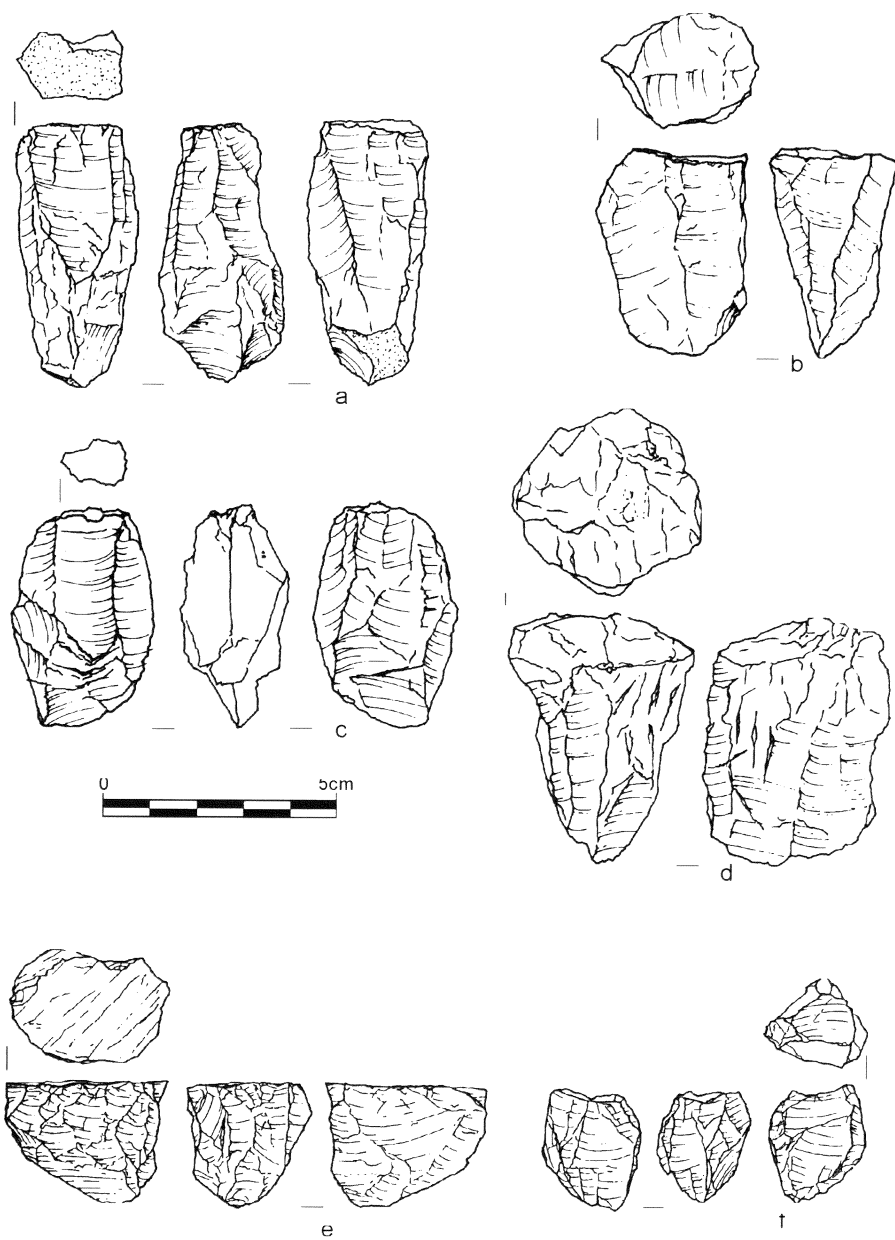


그림 1. 석영암제 소형석핵들(a : 전곡리 TP34-60, b: 전곡리 표토, d : 전곡리 82-214, e : 금파리 92-298, f : 금파리 91-518)

차적인 타격면이 없으며, 타격면 반대쪽은 비교적 날카롭게 각이 서있다. 아마도 격지를 생산할 때 나무와 같은 곳에 고정하기 편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림 1의 e는 흰빛의 석영암체로서 거칠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예외적으로 치밀한 구조의 것도 아니며 돌에 결이 있는 등 평범한 돌감을 소재로 한 석기이다. 전체적으로 타격면은 편평하게 준비되었으며, 따로 조정한 흔적을 찾기 힘들다. 격지들은 주변을 돌아가며 생산되었으며, 아마도 상당히 얇고 가늘었을 것이다. 이 석기는 타격면의 형성, 소재의 가공 등에서 세석핵과 유사한 점이 있어, 측면이 길고, 집중적인 박리면이 있고, 그 반대쪽은 보통의 세석핵처럼 안쪽으로 굴곡이 지도록 다듬어져 있다. 그러나 정작 세석인을 떼어낸 박리흔은 찾을 수 없다.

그림 1의 f는 위에 기술한 것보다는 크기가 작으며, 약간 누르스름한 빛이 나는 석영암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역시 전형적인 세석인을 생산한 것은 아니지만, 주변을 돌아가며 돌날과 비슷하게 보이는 얇고 가는 격지를 떼어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타격면에는 뚜렷한 잔손질이 베풀어져 있지는 않으나 아마도 이 정도 크기의 석핵에서 격지를 떼어내기 위해서는 대고때리기와 같은 ‘발전된’ 기법이 아니면 힘들 것이다.

눌러떼기 기법으로 만들어졌음이 확실시되는 석영암체의 진정한 세석핵이 하화계리에서 발견된 바 있다 (그림 2). 하화계리에서는 흑요석을 소재로 하는 세석핵이 많이 발견되며 이 세석핵에서 유추되는 기술은 흑요석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다. 이 세석핵 역시 특별히 정밀한 구조를 가진 것이 아니며, 다른 석영암체 석기들과 비슷한 재질이다. 따라서 거친 재질로만 여겨졌던 석영암도 어찌되었거나 세석핵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석영암체 소형 석기들과 석핵들은 한국 구석기의 진화에 큰 의미를 갖는다. 첫째, 석영암체 석기들은 단순한 과정을 통해 비정형적으로 생산되었다는 기존의 통념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세석기 이전 단계의 한국 구석기는 기존의 가정과는 달리 상당한 정도의 기술적 수준에 도달하였음이 명백하다 (Seong in preparation). 앞으로 기존 자료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연구의 진척에 따라 더욱 많은 자료가 쌓일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이 같은 자료는 석기제작기술상 후기구석기와 이전의 구석기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관점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오히려 석기 기술만으로 판단할 때 어느 정도의 연속성이 관찰되는 것이다. 물론 그 같은 연속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는 돌감의 차이 등 아직까지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이전의 석영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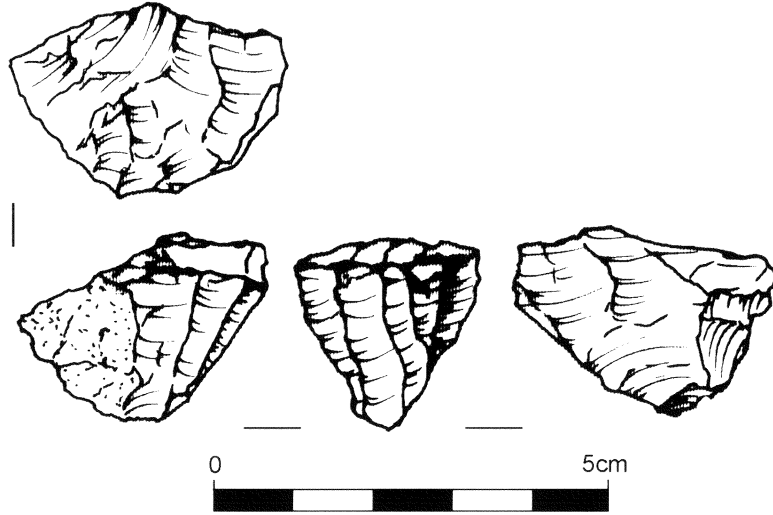


그림 2. 화계리에서 출토된 석영암제 세석핵

제 석기를 주로 하는 단계에서도 기술적으로 돌날을 제작하는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IV. 세석기 전통의 진화 가설

1. 기술 진화의 조건

요약하면 일반적인 가정과는 달리 세석기 이전 단계의 석영암제 석기들은 상당한 기술수준에서 만들어졌다. 또한 거칠고 조잡한 석재로만 알려진 석영암 역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강하며 부분적으로 치밀한 조직을 가졌다는 점에서 석기 제작에 있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석영암제 석기공작과 세석기 사이에 이분법적인 기술 차이를 상정하기보다는 당대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석기제작체계로서 이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새롭고 우월한 석기제작 기술을 갖춘 이주민들이 기존 주민들을 대체하였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시각이다. 플라이스토세 말기 구석기의 진화에 대해서는 좀더 이론적이면서도 근본적인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왜 세석기라는 새로운 요소가 동북아시아라는 넓고도 다양한 생태계를 가진 지역에 퍼지

게 되었는지 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글쓴이는 어떤 고고학적 요소 또는 변이의 등장과 확산을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본다. 첫째, 변이의 생성은 근본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과정으로서, 석기제작의 경우 기술 및 석재 등 외부적인 조건이 충족되면 새로운 변이는 언제든지 생성될 수 있다. 둘째, 생성된 모든 변이는 반드시 선택(selection)이라는 과정을 거쳐 고고학적으로 의미 있는 현상으로 구현된다. 장기간의 진화적인 시각에서 문화 담당자들은 변이를 다양성으로서 보지함으로써 기후변동과 같은 외부조건의 변화에 적응한다(물론 그 같은 변이를 지니지 못한 집단은 결국 도태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하나의 고고학적 요소의 생성과 선택을 진화적으로 본다면 마치 순서배열법이 시사하듯이 전함형 곡선을 그리며 생성, 성장, 소멸의 과정을 보이게 될 것이다.

돌날때기 및 세석기라는 요소는 하나의 변이로서 석영암제 석기공작에 배태되어 있었을 것이며, 환경 조건의 변화와 외부적인 자극(또는 문화적인 전파)¹³⁾을 맞아 본격적으로 구현되어 플라이스토세 최말기 유물군을 압도하게 되었을 것이다. 위에 예로 든 세석핵과 유사한 석영암제 석기들은 돌날, 또는 세석기 기술의 오랜 진화 가능성을 시사해준다고 생각한다. 다만 세석기가 본격적으로 석기유물군을 압도하게 되는 것은 시간이 많이 흐른 뒤의 일이며, 이는 기술 변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돌감의 이용, 이동성 및 생계 경제 활동의 변화 등이 얹힌 문제이다.

2. 환경변화와 세석기 전통의 확립

Bettinger et al. (1994)은 북중국의 여러 세석기 유적의 세석인과 세석핵의 비율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플라이스토세 최말기에 들어와서야 세석인이 석기유물조합을 압도하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시베리아, 한국, 일본 등 다른 지역의 세석기 전통 역시 비슷한 시기에 확립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세석기가 플라이스토세 말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는 것은 분명 어떤 뚜렷한 선택압(selective force)이 있었음을 암시한다는 점이다.

글쓴이는 플라이스토세 말기 급심한 환경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마지막 빙하기의

13) 글쓴이는 문화적인 전파의 역할을 경시하지 않는다. 다만 주빈 이주에 따른 기존 기술 전통의 급격한 대체라는 시각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 글에서 강조하는 것은 외부적인 자극이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술 수준의 진화가 필요하며, 그것이 앞서 살펴본 석영암제 석기 공작의 발달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다.

도래야말로 플라이스토세 말기의 주민들에게 커다란 도전이었을 것이며, 이 때부터 동북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돌날제작이라는 적응 수단이 석기공작을 압도하게 된다. 세석기의 확산은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세석기라는 기술전통은 약 18,000년 전 빙하극성기에 채용되기 시작하지만, 그 뒤 15,000-16,000년 전이 되어야 유물군을 주도하게 된다. 글썽이는 이와 같은 세석기의 확산에도 환경변화와 관련된 원인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세석기 전통의 등장은 빙하가 극도로 성장하면서 식물 생계자원이 희박해지고 사냥의 역할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Goebel et al. 2000 참조). 문제는 세석기의 역할이 빙하 극성기가 끝난 뒤에 더욱 커지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시작과는 달리 세석기 전통의 광범위한 확산은 사냥이라는 생계활동과 단순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약 15,000년 전부터 9,000년 전까지 기후의 계절성(seasonality)이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사실이다. COHMAP (198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플라이스토세 최말기에 이르러 지구의 자전축의 경사가 높아지면서 북반구를 기준으로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가 심해지게 되었다. 따라서 대륙에 남아 있던 빙하는 북으로 밀려나게 되었으며, 플라이스토세가 끝날 즈음 태양 복사열은 북반구를 기준으로 현재와 비교하여 한여름에는 약 8%가 많았으며, 겨울에는 반대로 8%가 적었다고 한다.

Between 15 and 9 ka, the earth-sun distance decreased in northern summer and the axial tilt increased; therefore, the seasonality of climate increased in the Northern Hemisphere ... At about 9 ka average solar radiation over the Northern Hemisphere was 8% higher in July and 8% lower in January than it is today. After 9 ka these seasonal radiation extremes decreased toward modern values. (COHMAP 1988:1044).

한국은 예로부터 이용 가능한 생계자원이 연중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배기동 1997:225-27). 곧, 겨울과 이른봄에 수렵채집인이 얻을 수 있는 식물 자원은 다른 계절에 비하여 극도로 적었다. 현대의 사정이 이러하였을진대 플라이스토세 최말기 춥고 건조하였으며, 그것도 계절성이 증가한 상황이라면 아마도 이용할 수 있는 생계자원은 계절에 따라 극명하게 달랐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렵채집인들은 계절적인 이동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을 것이다. 또한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이용 가능한 다양한 자원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 시기는 바로 이동성의 증가와 기존에 이용하지 않았던 생계자원의 획득으로 요약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계절성이 높은 환경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바로 생계위협(risk)을 줄이고 관리하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석기 도구는 될 수 있는 대로 다양한 생계활동을 할 수 있고 운반이 편리한 (곧 무게가 적게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Andrefsky 1998; Kelley 1992; Kelley and Todd 1988). 세석기유적에서 나오는 극히 작은 크기의 석기들은 모두 당시 수렵채집인의 높은 이동성(mobility)에 대한 가정과 잘 어울린다. 또한 수양개유적에서 세석핵 가운데 모양을 만들고 타격면까지 다듬었지만 실제로 세석인을 때어내지 않은 유물이 다수 발견되었다는 것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준비의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실제로 세석핵 및 세석인 제작은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할 뿐 아니라 제작 단계마다 많은 부담이 따르는 일이다 (Bleed 1996; Hayden et al. 1996). 한 번이라도 적절한 타격을 가하지 못했을 경우 석기는 쓸모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적절한 양의 세석핵과 세석인을 만들어 놓는 일이 중요해질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 간과해서 안될 것은 예측하기 힘든 환경에서는 언제라도 쉽게 수리하여 쓸 수 있는 도구가 선택적인 이점이 있다는 사실이다. 나무나 뼈, 뿔에 장착된 세석인에 사용 도중, 또는 여하한 경우에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준비된 다른 세석인을 갈아 끼움으로써 그리 어렵지 않게 수리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 세석인을 한 데 장착함으로써 개별 세석인이 가질 수 있는 문제(예들 들면 닳거나 부러지거나 하는 문제들)를 효과적으로 상쇄시키게 되며 도구의 기능적 실패를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된다 (Bamforth and Bleed 1997:132). 이런 측면에서 세석기를 장착한 복합도구는 융통성이 있어 maintainable하면서도 기능적으로 극심한 기후변동의 조건에서 reliable한 기술의 표본이었을 것이다 (Bettinger et al. 1994:96; Bleed 1986; Myres 1989; Nelson 1991).

세석인을 장착한 복합도구의 사용에 대해서는 시베리아와 북중국의 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충분한 자료가 발견되고 있지 못하다 (小畑 1992/93). 지금까지의 예에서 추론하면 그 같은 도구는 단순히 사냥용으로만 쓰였던 것이 아니라 물고기잡이, 곧 어로에도 유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세석기의 출현은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생계경제, 곧 어로활동의 확산을 말해준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¹⁴⁾.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

14) 가토(加藤晉平 1988)는 이주설을 주장하면서 바이칼호를 중심으로 하는 호수환경에 적응한 주민들이 연어 등의 어로자원을 이용하며 극동쪽으로 이주하였다고 본다. 우수키유적에는 상당히 많은 연어 뼈들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물론 어로활동이 생계에서 갈수록 중요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넓은 동북아시아에는 호수, 강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세석기와 어로를 단순한 등식으로 설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았지만, 시베리아에서 출토된 작살 같은 유물을 통해서 추론할 때 어로는 적어도 세석기가 한창 번성할 때 생계경제에 중요한 요소로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된다 (小畑 1989; Chen and Olsen 1990). 세석인을 장착한 도구는 아마도 사냥과 어로를 비롯한 여러 생계활동에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었을 것이며, 바로 이 같은 선택적인 이점이 세석기의 광범위한 확산의 밑바탕이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이와 같은 생계활동이 자리 잡음으로써 특정한 계절에 한 지역에 머무르는 기간이 늘어나 지역 환경에 대한 지식이 쌓임으로써 더 폭넓은 생계자원을 이용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것이다 (e.g., 佐藤 1992:316-17; Bettinger et al. 1994)

참고문헌

- 배기동, 1996, 「동북아 선사문화와 중원 선사문화 시원」, 『중원문화 국제학술회의 결과 보고서』, pp. 25-41. 충청북도·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 , 1997, 「구석기시대의 생활」, 『한국사 1』 pp.223-239. 국사편찬위원회.
- 서영남·김혜진·장용준 「경남 밀양시 고례리유적 후기구석기문화」, 『영남지방의 구석기문화』 pp.65-82.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요지.
- 손보기, 1993, 『석장리선사유적』 동아출판사.
- 이선복, 1996, 「동북아시아의 구석기 고고학과 민족 기원론」, 『韓國民族의 起源과 形成 (上)』 翰林科學院叢書 41, 小花, pp.15-72.
- 이선복·유용옥·성춘택, 2000, 『용인 평창리 구석기유적 발굴조사보고서』 경기도박물관·서울대학교.
- 李隆助, 1984, 「丹陽 수양개 舊石器遺蹟發掘調査報告」, 『忠州댐水沒地區文化遺蹟發掘綜合報告書—考古·古墳分野』 忠北大學校博物館, pp.101-186.
- , 1985, 「丹陽 수양개 舊石器遺蹟 發掘調査報告」, 『忠州댐水沒地區文化遺蹟延長發掘調査報告書』 忠北大學校博物館 pp.101-251.
- 이용조·우종윤·윤용현, 1996, 「수양개유적의 후기구석기시대 문화-좁돌날몸돌을 중심으로-」 『수양개와 그 이웃들』 (제1회 국제학술회의 발표문), pp. 1-17. 충북대학교 박물관.
- 李憲宗, 1997, 「東北아시아 세형돌날문화의 起源問題에 대한 試考」, 『박물관연보』 5:9-31. (목포대학교 박물관)
- , 1999, 「우리나라 세형돌날문화의 편년, 그 상한과 하한」, 『영남지방의 구석기문화』 pp.97-120.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요지.

- 장호수, 1995, 「동아시아의 쥘놀날 몸돌 석기제작 기술」, 『박물관지』 10:39-52.
- 최복규, 1994, 「한국의 중석기문화」, 『東아시아의 舊石器文化』 (문화재연구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 제1집), pp. 147-172. 문화재연구소
- , 1999, 「한탄강변 철원 장흥리 구석기유적」, 『고고학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과학기술의 응용문제』 pp. 117-124. 한국 선사고고학회 학술발표요지.
- 安至敏, 1978, 「海拉爾の中石器遺存」, 『考古學報』 78-3:289-316.
- 加藤眞二, 1992, 「中國細石刃文化の展開とその背景」, 『筑波大學 先史學・考古學研究』 3:1-29.
- 加藤晋平, 1986, 「日本人と文化のルーツをアジアに求めて--日本列島に初めてあらわれた石器文化」, 『日本人誕生』植原和郎 대표원집, 集英社 (東京).
- 加藤晋平, 1988, 『日本人はどこから来たか:東アジアの舊石器文化』. 岩波書館.
- 加藤晋平・鶴丸俊明, 1980, 『圖録石器の基礎知識 I. (先土器, 上)』. 柏書房.
- 朴英哲・徐始男(小畑弘己 역), 1998, 「韓國 密陽 古禮里舊石器遺跡의發掘調査概要」, 『舊石器考古學』 57:83-90.
- 稻田孝司 (編), 1988, 『舊石器人の生活と集團』 (古代史復元1). 講談社, 東京.
- , 1994, 「水洞溝技法とルヴァロワ技法--東アジア石刃技法形成の一過程」, 『考古學研究』 41(1):25-46.
- 小林達雄, 1988, 「日本文化の基層」, 『日本文化の原流』小林達雄 外 編, pp.7-70. 學生社 東京
- 小畑弘己, 1992/1993, 「シベリアの植刃器 (1)/(2)」, 『舊石器考古學』 45:11-22/46:31-45.
- 松藤和人, 1995, 「東アジアの中の岩宿時代--大陸の舊石器文化の接點を求めて」, 『岩宿時代を知る』. 1993年度岩宿大學講義録集, pp.36-57. 笠懸町教育委員會, 君馬懸
- , 1998, 『西日本後期舊石器文化の研究』. 學生社 (東京)
- 須藤隆司, 1991, 「ナイフ形石器の型式論(1)」, 『舊石器考古學』 42:55-66.
- 佐藤宏之, 1992, 『日本舊石器文化の構造と進化』. 柏書房, 東京
- , 1999, 「西南日本における中期舊石器時代から後期舊石器時代への移行」, 『芹澤長介先生傘壽記念國際シンポジウム--世界から見た日本列島の前期・中期舊石器研究』, pp.73-83 (東北福祉大學)
- 戸澤充則, 1986, 「日本における細石器刃の研究」, 『日本考古學論集 4: 容器・道具と 器』齊藤忠編, pp. 152-175. 吉川弘文館.
- Andrefsky, William, Jr., 1987 Diffusion and innov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wedge shaped cores in Alaska and Japan, in *The Organization of Core Technology*, ed., J. K. Johnson and C. A. Morrow, pp. 13-43. Westview Press, Boulder, Colorado.
- , 1998 *Lithics: Macroscopic approaches to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mbridge, UK.
- Bamforth, Douglas B., and Peter Bleed, 1997 Technology, flaked stone technology, and risk. In *Rediscovering Darwin: Evolutionary theory and archaeological explanation*, edited by C. M. Barton and G. A. Clark, pp. 109-139. Archaeological Papers of the 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Arlington, Virginia
- Bettinger, R. R., D. B. Madsen, and R. G. Elston, 1994 Prehistoric settlement categories and settlement systems in the Alashan Desert of Inner Mongolia, PRC. *Journal of Anthropological Archaeology* 13:74-101.
- Bleed, Peter, 1986 The optimal design of hunting weapons. *American Antiquity* 51(4):737-747.
- , 1996 Risk and cost in Japanese microcore technology. *Lithic Technology* 21(2):95-107.
- Chen, Chun, 1984 The Microlithic in China. *Journal of Anthropological Archaeology* 3:79-115.
- Chen, Chun, & John W. Olsen, 1990 China at the Last Glacial Maximum. In *The World at 18000 BP: High Latitudes*, edited by Olga Soffer and Clive Gamble, pp. 276-295. Unwin Hyman, London.
- Clark, G. A. 1994 Migration as an explanatory concept in Paleolithic archaeology. *Journal of Archaeological Method and Theory* 1(4):305-343.
- COHMAP members, 1988 Climatic changes of the last 18,000 years: observations and model simulations. *Science* 241:1043-1052.
- Dunnell, Robert C. 1989 Aspects of the application of evolutionary theory in archaeology. in *Archaeological Thought in America*, edited by C.C. Lamberg-Karlovsky, pp.35-49.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Flenniken, J. Jeffrey, 1987 The Paleolithic Dyuktai Pressure Blade Technique of Siberia. *Arctic Anthropology* 24(2):117-132.
- Gai, Pei, 1985 Microlithic industries in China, in *Paleoanthropology and Paleolithic Archaeology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d., Wu Rukang and John Olsen, pp. 225-241. Academic Press, Orlando, Florida.
- Gamble, Clive, 1999 *The Palaeolithic Societies of Europ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K.
- Goebel, Ted, M.R. Waters, I. Buvit, M.V. Konstantinov, and A.V. Konstantinov, 2000

- Studenoe-2 and the origins of microblade technologies in the Transbaikal, Siberia, *Antiquity* 74:567-75.
- Jia, Lanpo, and Huang Weiwen, 1985 The late Paleolithic of China, in *Paleoanthropology and Paleolithic Archaeology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dited by Wu Rukang and John Olsen, pp. 211-223, Academic Press, Orlando.
- Kajiwarra, Hiroshi, 1999 Opening remarks for A Symposium to Commemorate the 80th Birthday Celebrations of Professor Chosuke Serizawa : *World Views on the Early and Middle Paleolithic in Japan*, pp. 1-51, Tohoku Fukushi University, Japan.
- Kelly, Robert L, 1992 Mobility/sedentism: concepts, archaeological measures, and effects,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21:43-66.
- Kelly, Robert L., and L. C. Todd, 1988 Coming into the Country: Early Paleoindian Hunting and Mobility. *American Antiquity* 53:231-244.
- Larichev, Vitaliy, Uriy Kolushkin, and Inna Laricheva, 1990 The Upper Paleolithic of Northern Asia: achievements, problems, and perspectives II, central and eastern Siberia, *Journal of World Prehistory* 4(3):347-385.
- , 1992 The Upper Paleolithic of Northern Asia: achievements, problems, and perspectives III, northeastern Siberia and the Russian Far East, *Journal of World Prehistory* 6(4):441-476.
- Lu, Lie Dan, 1998 The microblade tradition in China: regional chronologies and significance in the transition to Neolithic, *Asian Perspectives* 37(1):84-112
- Madsen, David B., Robert G. Elston, Robert L. Bettinger, Xu Cheng, & Zhong Kan, 1996 Settlement Patterns Reflected in Assemblages from the Pleistocene/Holocene Transition of North Central China, *Journal of Archaeological Science* 23:217-231.
- Matsufuji, Kazuto 1997 A cultural exchange between Kyushu island and the Korean Peninsula in the Upper Paleolithic Age. Paper presented at 2nd International Symposium: *Suyanggae and Her Neighbours*, pp.109-126, Chunbuk National University Museum.
- Morlan, Richard E., 1976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of some wedge-shaped cores in Northwestern North America and Northeast Asia, *Asian Perspectives* 19:96-109.
- , 1986 The Pleistocene archaeology of Beringia. In *Evolution of Human Hunting*, ed., Matthew H. Nitecki and Davis V. Nitecki, pp. 267-307, Plenum Press, New York.

- Myres, Andrew 1989 Reliable and maintainable technological strategies in the Mesolithic of mainland Britain. In *Time, Energy and Stone Tools*, ed., Robin Torrence, pp. 78-91,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Nelson, Margaret C. 1991 The study of technological organization. In *Archaeological Method and Theory* 3, edited by M. B. Schiffer, pp.57-100. University of Arizona Press, Tucson, Arizona.
- O'Brien, Michael J. and Thomas D. Holland, 1995 Behavioral archaeology and extended phenotype. In *Expanding Archaeology*, edited by James M. Skibo, William H. Walker, and Axel E. Nielsen, pp. 143-161. University of Utah Press, Salt Lake City, Utah.
- Parry, William J., and Robert L. Kelly 1987 Expedient core technology and sedentism, in *The Organization of Core Technology*, edited by Jay K. Johnson and C.A. Morrow, pp. 285-304. Westview Press, Boulder, Colorado.
- Seong, Chuntaek, 1998 Microblade technology in Korea and adjacent Northeast Asia, *Asian Perspectives* 73(2):245-278.
- , (in preparation) *Raw Materials and Evolution of Lithic Technology in Upper Pleistocene Korea*.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Anthropology,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 Suzuki, Chuji, 1992 Distributional approach to the microlithic culture of Japanese Archipelago: Geography, Fauna, Flora, and Population. Paper Presented a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Origin and Dispersal of Microblade Industry in Northern Eurasia*, Sapporo University.
- Tang, Chung, and Pei Gai, 1986 Upper Paleolithic cultural traditions in North China. In *Advances in World Archaeology*, vol. 5, ed., Fred Wendorf & Angela E. Close, pp. 339-364. Academic Press, New York.
- Vasilev, Sergey A. 1992 The Late Paleolithic of the Yenisei: a new outline. *Journal of World Prehistory* 6(3):337-383.
- Whallon, Robert, 1990 Elements of cultural change in the later Paleolithic, in *The Human Revolution: Behavioral and biological perspectives on the origins of modern humans*, edited by Paul Mellars and Chris Stringer, pp. 433-451.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ew Jersey.

【Abstract】

The microlithic evolution: a preliminary consideration

Seong, Chun - taek*

The final Pleistocene witnessed a fluorescence of microblade technology throughout the Korean Peninsula and adjacent Northeast Asia. The dispersal of the microlithic tradition has been considered in terms of large scale human migration during the late Pleistocene. Aside from the lack of operational definitions, migrationist hypothesis often assumes that the microlithic represents a single cultural phenomenon failing to appreciate full range of variability in microlithic assemblages across the distribution. Few attempts have been made on drawing evolutionary process of the spread. A closer look at Upper Paleolithic chronologies shows that blade technology was firmly established by 25,000 BP and the microlithic became dominant by 15,000 BP. The transition to the microlithic from the blade tradition may not as abrupt as often assumed. It is worth noting that the main duration of the microlithic tradition, between 15,000 to 10,000 BP was marked by high seasonality, which must have been the main selective environment for the tradition and human groups. It is argued that tools mounted with microblades were advantageous given the maintainability with a relative ease to repair and reliability under the unpredictable environmental fluctuations during the final Pleistocene.

* Ph.D. candidate in archaeology, Department of Anthropology,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三韓土器의 整面手法研究

- 磨研手法을 中心으로 -

安 順 天*

目 次

I. 서론

II. 磨研手法의 方法과 機能

III. 순수마연수법

IV. 暗文의 형태와 전개

V. 맺음말

요 약

삼한시대 토기의 정면수법 중 하나인 마연수법은, 와질토기제작에 있어 ‘순수정면수법’과 ‘暗文’이라는 종마연문의 시문방법으로도 이용되었다.

순수마연수법은 무문토기시대부터 토기제작에 이용되기 시작하여, 와질토기시대에는 일반적인 정면수법으로 이용되었으며, 도질토기가 생산되면서부터 퇴화되어 갔다. 그러나, 고식도질토기가 생산되었던 4세기말까지는 와질토기와 도질토기에 함께 이용되었으며, 와질토기 소멸과 함께 ‘마연’이라는 정면수법도 사라지게 된다.

暗文은 삼한시대 와질토기에 시문된 최초의 문양으로써 종마연수법이 이용되었고, 3가지 종류가 있다. 2세기경 전기와질토기시대에 출현하여, 후기와질토기시대에는 이 시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침선계 문양과 함께 전 기종에 걸쳐 시문되었다. 고식도질토기 생산과 함께 점점 퇴화되었으나, 와질토기가 소멸되는 4세기말까지는 도질토기에도 채용되었다.

* 영남문화재연구원

I. 서론

영남지방을 시작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삼한시대의 유적이 많이 발굴되고 그 성과가 학계에 알려짐에 따라, 최근 이 시기의 유구와 유물에 대한 연구가 급속도로 다양해지고 문화복원에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¹⁾. 그러나 형식학적 분류와 편년연구가 대부분으로, 와질토기 제작기법에 관한 연구는 아주 미약한 상태이다²⁾.

삼한시대 와질토기의 제작에는 삼국시대에 출현하는 도질토기와는 다른 정면기법의 전통이 계속적으로 고수되고 있었으며, 또 와질토기의 제작기법은 고식도질토기가 출현하여 와질토기와 공존하는 시기에 고식도질토기에도 이용되고 있다. 즉, 도질토기가 출현함과 동시에 와질토기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와질토기의 제작기법을 토대로 그 위에 도질토기 제작기법이 유입, 도질토기가 생산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준다.

와질토기의 정면수법으로 이용된 것은, 마연, 각기, 회전물손질 및 물손질, 목리(목판)조정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 회전물손질을 토기제작에 회전판이 이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토기에 일반적으로 이용된 정면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면, 마연과 각기는 와질토기제작의 가장 기본적인 정면수법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들은 와질토기 전기종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와질토기에 있어 마연수법은 가장 이용빈도가 높았던 정면수법으로, 토기 기종과 이용된 부위에 따라 거의 동일한 도구폭과 정면방향이 유지되고 있다. 이것은 와질토기 발생기부터 소멸기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졌으며, 순수한 정면수법 또는 ‘暗文’과 같은 문양효과 등으로 구분된다.

본고에서는 삼한시대 와질토기의 대표적 정면수법인 ‘마연’의 관찰을 통해, 와질토

-
- 1) 신경철, 1982, 「부산·경남 출토 와질계토기」, 『한국고고학보』 12
안재호, 1986, 「삼한시대후기 와질토기의 편년」, 『영남고고학』 14
전옥년, 1988, 「영남지역에 있어서 후기와질토기의 연구」, 경북대학교석사학위논문
신경철, 1992, 「김해예안리 160호분에 대하여」, 『가야고고학논총』 1
임효택, 1993, 「낙동강하류역 토광목관묘의 등장과 발전」, 제17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김영민, 1996, 「영남지역 삼한후기문화의 특징과 지역성」, 부산대학교석사학위논문
김용성, 1996, 「토기에 의한 대구·경산지역 고대분묘의 편년」, 『한국고고학보』 35
이성주, 1996, 「신라식목관묘의 전개와 의의」, 제20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발표요지
최종규, 1999, 「삼한고고학연구」, 서경문화사
김수남, 1999, 「임당유적 원삼국시대 목관묘」, 제21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요지
이성주, 1999, 「진·변한지역 분묘 출토 1~4세기 토기의 편년」, 『영남고고학』 24
2) 이성주, 2000, 「타날문토기의 전개와 도질토기 발생」, 『한국고고학보』 42

기 제작기법에 접근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마연수법의 방법과 기능을 정의하고, 둘째, 순수마연기법과 종마연이 이용된 문양인 ‘暗文’으로 구분하였다. 최후로 暗文의 형식을 분류하고 암문이 시문된 각종의 와질토기를 제시하여, 와질토기에 있어 최초의 문양은 침선계 문양이 아닌 ‘마연계 문양’인 ‘暗文’이며, 도질토기 발생 즉시 소멸된 것이 아니라, 磨研手法와 暗文의 전통은 고식도질토기제작에도 채용되고 있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II. 磨研手法의 方法과 機能

마연은 와질토기 제작에 가장 기본적인 정면수법이다. 마연이 관찰되는 유물의 형태는 조합우각형과수부호, 주머니호, 대부장경호(대부광구호), 노형토기, 고배, 개, 단경호, 대부직구호, 소형토기류, 기대류 등 모든 기형에 걸쳐 나타난다.

마연수법은 회전력을 이용하는 정면수법이 아니라, 정지상태에서 유물을 손에 쥐고 토기면을 천천히 돌려가며 폭이 좁은 도구를 가지고 치밀하게 면을 고르는 방법이다. 이 때 성형해 놓은 토기표면에서 마연에 의해 떼어져 나오는 점토의 양은 깎기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소량이다. 깎기가 전체적인 기형을 크게 훑을 때에나, 마연은 2차적으로, 또는 최후조정방법으로 토기의 面을 보다 곡선적으로 매끄럽게 만드는 역할을 하거나, slip을 바르는 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연에 이용되었던 도구는 일반적으로 ‘대나무칼’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으나, 확실한 것은 아니다. 토기면에 나타나는 마연흔적으로 보아 2~5mm 정도의 폭에 손에 쥐고 토기를 정면할 수 있을 정도의 길이가 짧은 도구를 사용하였다고 추정된다.

마연수법의 역사는 이미 와질토기 생산이 시작되기 이전 청동기시대의 단도마연토기 또는 흑도마연토기 제작에서부터 이용되어 왔으며, 이 시기의 마연수법은 slip을 입히는데 주로 이용되었다. 무문토기 종말기부터는 대부분의 기종에 정면기법으로 도입되었고, 와질토기가 제작되면서부터 와질토기 전 시기에 걸쳐, 회전물손질 또는 깎기가 끝난 후의 최후정면기법으로 이용되었다(그림1).

瓦質土器에 이용된 磨研의 흔적에는 2가지가 있다. 순수하게 면을 고르는 기능 즉 整面技法으로서의 순수마연수법과, 土器成形 最後段階에 縱方向의 연속적인 磨研으로 문양효과를 낸 ‘暗文’ 등으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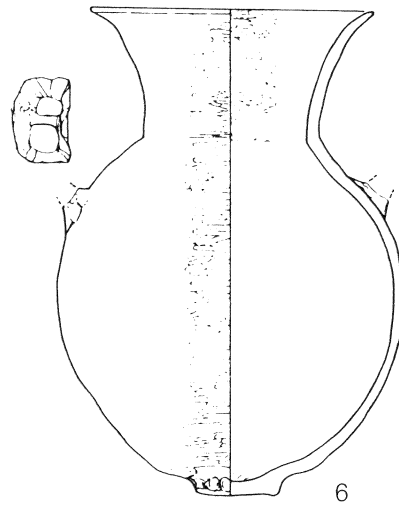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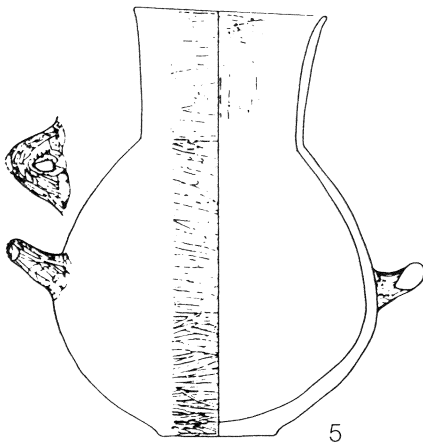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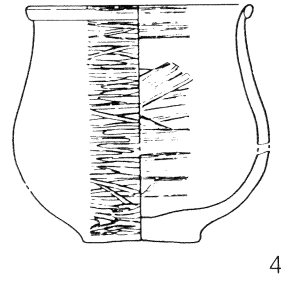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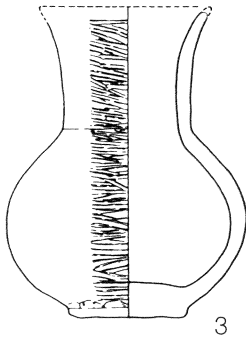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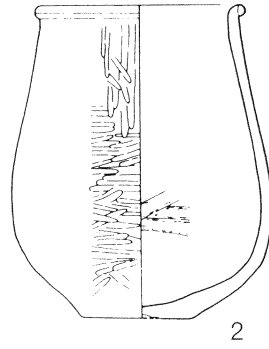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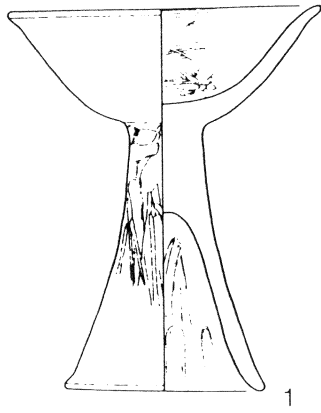


그림 1. 종말기 무문토기의 마연형태
(1~5 : 팔달동 목관묘, 6 : 도항리 목관묘(경고연))

III. 순수마연수법

와질토기의 모든 기형에 이용된 최후정면기법으로, 회전물손질 또는 깎기 후 행해졌다. 와질토기를 관찰하여 보면 형태적으로는 곡률이 부드럽고 변화가 심하며, 폭이 좁고 짧으며 치밀한 마연흔이 좁은 면에 수없이 반복적으로 겹쳐져 있다.

와질토기의 胎土는 도질토기와는 달리 입자가 매우 치밀한 반면 정선된 점토가 아니고, 다양한 세사립이 혼입되어 成形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成形을 하고 회전물손질 또는 깎기로 1차 整面을 한 후, 最初의 성형시보다 토기가 약간 건조된 最後段階에 토기가 곡선적이 되도록 그 부위를 장시간 반복적으로 마연하는 것이다. 약간 건조된 상태는 수분이 많은 최초의 성형상태보다 마연이 용이하였을 것이다. 마연은 흙을 제거하여 그 面의 곡률을 부드럽게 하는 기능 이외에, 반복적으로 행함에 따라 그 부분을 윤이 나게 하는 2가지 의도가 복합되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마연의 형태와 방향은 토기의 形態와 部位에 따라 다르다. 마연수법은 停止狀態에서 행해지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整面手法의 하나로, 결국 토기의 점당 단위 생산력면에서는 매우 낮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은 녹로이용과 고속회전력을 이용하는 정면수법으로 생산력을 높인 도질토기와 비교되며, 전기, 후기와질토기의 전 기간과, 고식도질토기가 생산되었던 4세기에 걸쳐 와질토기가 소멸되기까지 오랜기간 이용되었다.

와질토기에 있어 마연흔의 방향은 횡방향과 종방향의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마연 방향은 각 기종별로 부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마연의 폭은 0.15~0.3cm로 좁고, 길이는 3~5cm 정도이다.

이들의 상관관계를 기종별로 정리해 보았다.

① 주머니호

전기와질토기시대에만 나타나는 주머니호는, 와질토기 중 유일하게 暗文이 시문되지 않고, 순수마연수법만이 나타나는 기종이다. 최초의 무문토기소성에서부터 마연수법으로 최후 정면하였는데, 동체 외면 全面을 짧고 치밀하게 횡마연하였다. 동체 상위는 종마연한 경우도 있다.(그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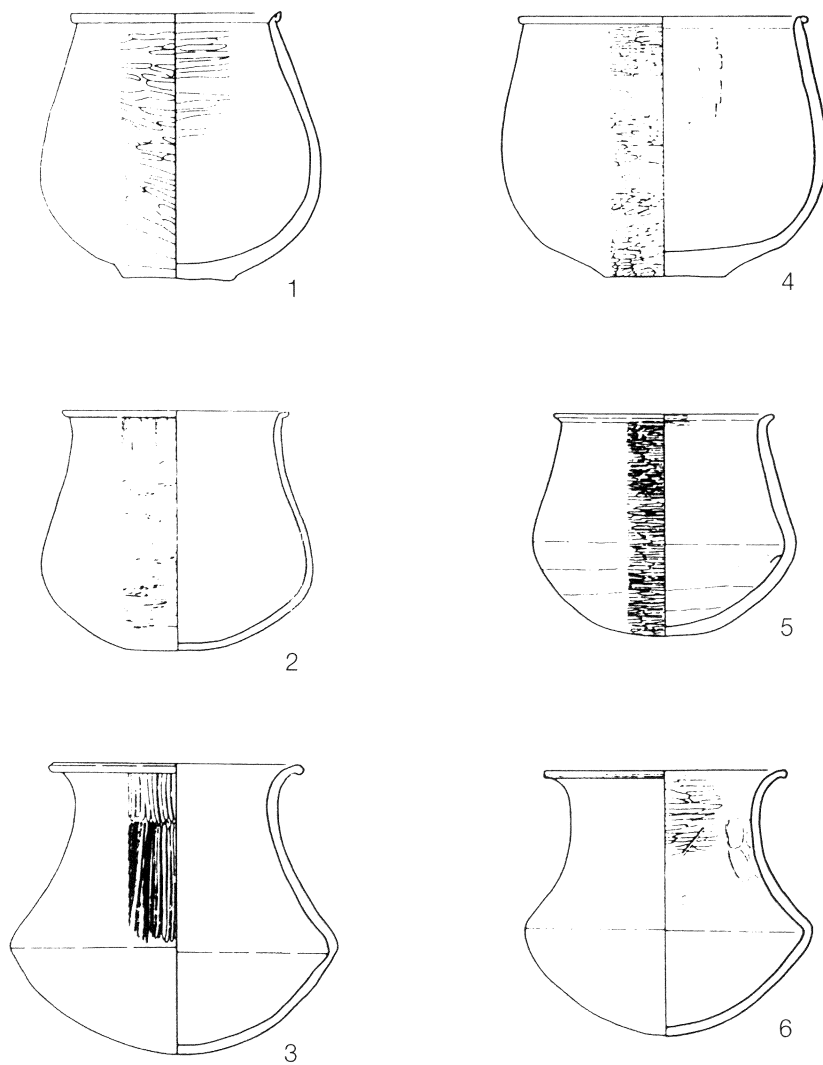


그림 2. 주머니호의 마연형태
(1 : 다호리, 2 : 대성동 소성유적, 3 : 옥성리 가 67호, 4-6 : 도항리(경고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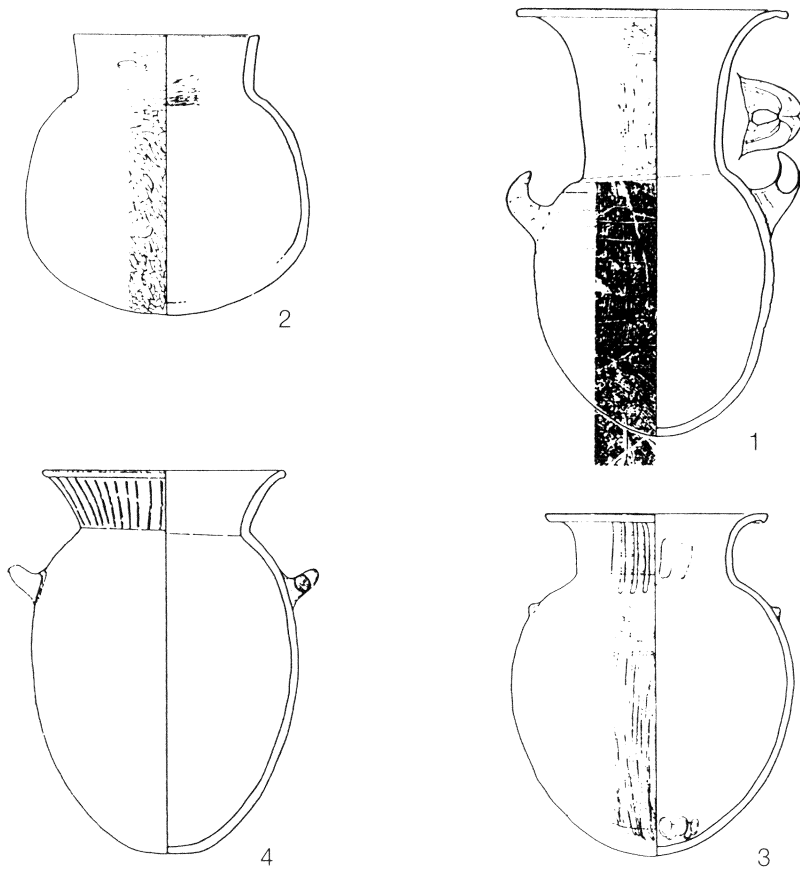


그림 3. 목관묘 출토 호류의 마연형태(1·2)와 暗文 1류(3·4)
(1·2·3: 도항리 21·47·23호(경고연), 4: 밀성고 소장)

② 조합식우각형과수부호와 長胴壺

조합식우각형과수부호가 출현하기 이전의 흑도마연장경호의 경우는 외면 全面을 매우 짧고 치밀하게 황마연하여 slip을 바르고, 구경부 내면은 황마연하였다.(그림1-5,6)

이후 와질제의 조합식우각형과수부호가 제작되면서, 동체부에 무문양인 경우는 계속적으로 외면 全面과 구경부 내면에 황마연되었으나, 동체부에 승석문이 타날된 경우는 구경부 내외면만 황마연되었다.(그림3-1, 그림4)

長胴壺는 구경부 내외면에 황마연하고, 동체부는 황마연 또는 종마연하였다.(그림 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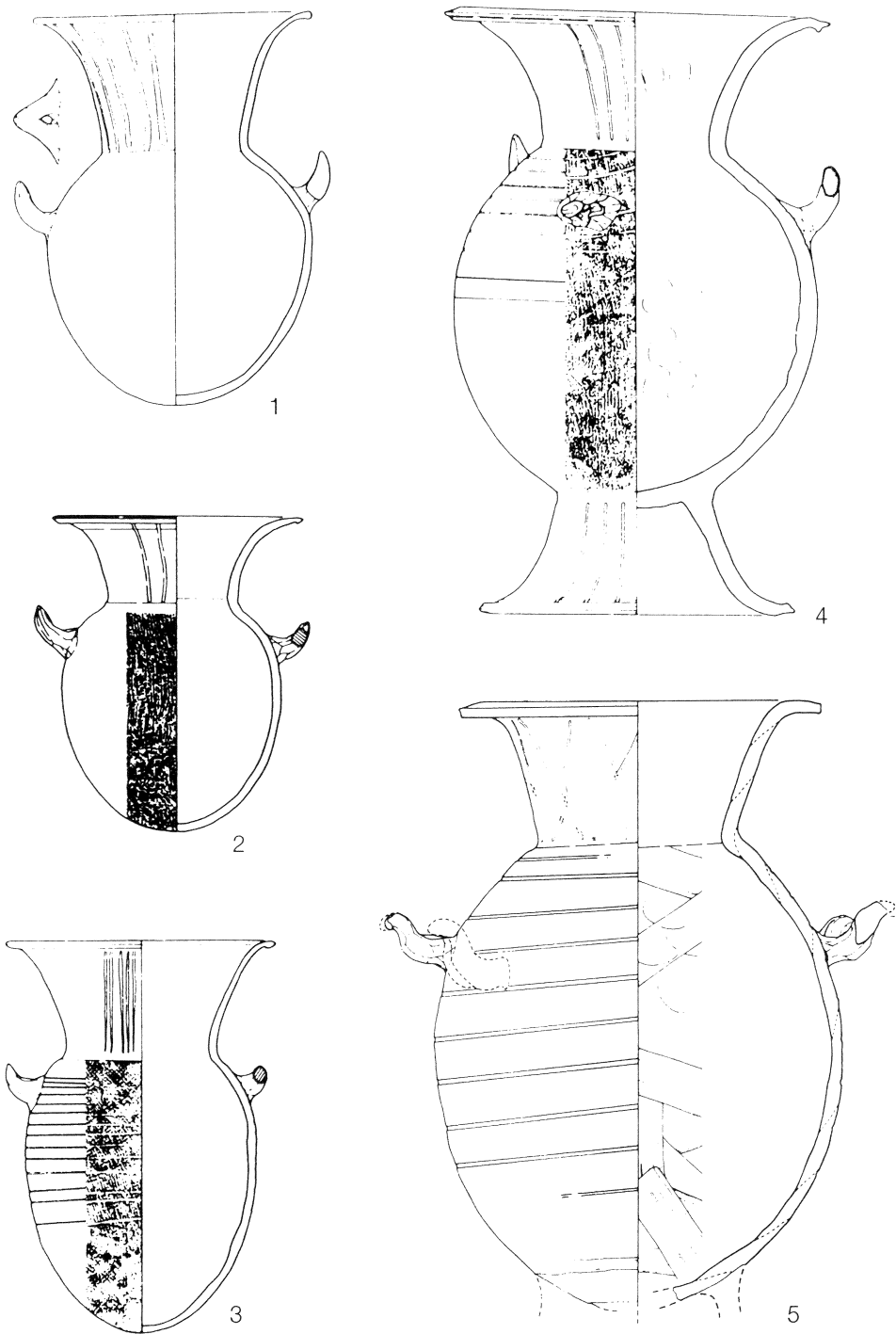


그림 4.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의 暗文 각종
(1 : 팔달동 106호, 2·3 : 대성동 27·53호, 4 : 대성동 주변 1 지구13호, 5 : 옥성리 가 56호)

③ 대부장경호, 대부직구호와 대부호

대부장경호는 동체부에 무문양인 경우, 구경부와 대각부는 종마연, 동체부 외면은 횡마연하였다. 사각집선문, 삼각집선문, 중집선문 등 침선계 문양이 동체부에 있는 경우는, 문양 사이에 횡마연하였다. 옥성리 78호(그림6-6)에는 중집선문 사이에 종마연한 형태도 있다. 구경부 내면은 모두 횡마연하였다. 매우 치밀하다(그림5, 6).

대부직구호 역시 동체부에 무문양인 경우, 구경부와 대각부는 종마연, 동체부 외면은 횡마연하였다. 침선계의 횡집선문이 동체부에 있는 경우는 횡집선문 사이 사이를 치밀하게 횡마연하였다(그림7).

대부호는 동체부에 문양이 없으며 구경부와 대각부는 종마연하고, 동체부는 횡마연하였다. 동체부와 대각의 접합후 동체 하위를 회전물손질한 후, 다시 폭 0.5cm, 길이 2~3cm 정도의 도구로 종마연한 경우도 있다(그림8).

④ 노형토기와 노형기대

노형토기는 대부장경호와 같이 동체부에 문양이 없는 것과 침선계 문양이 시문된 2가지 형태가 있다. 무문양인 경우 동체부 전면을 횡마연하고, 동체 상위에 사각집선문, 삼각집선문, 사격자문 등 침선계 문양이 시문된 경우는 동체 하위만 횡마연하였다. 두 종류 모두 구경부와 대각부는 종마연하고, 구경부 내면은 횡마연하였다.(그림9~12)

노형기대는 와질제 또는 도질제로, 구경부와 대각부는 종마연, 동체부는 횡마연되었다(그림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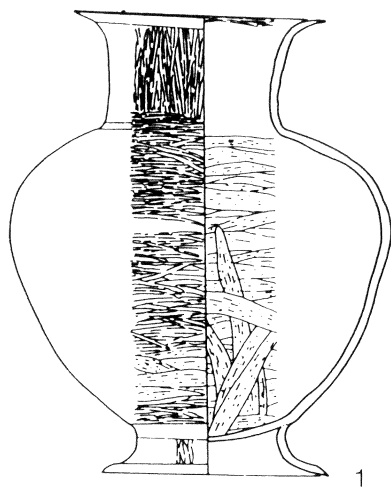
⑤ 小形土器

편구호, 완, 발 등 형태는 다양하나, 문양이 없다. 호는 구연부 또는 동체 전면에 걸쳐 횡마연과 함께 이용된 경우가 많고, 발은 외면 전면을 길게 또는 짧게 종마연하였다.(그림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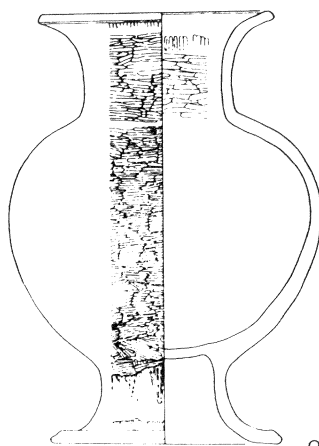
⑥ 筒形器臺

와질토기시대의 기대와 고식도질토기시대의 통형기대 형태는 서로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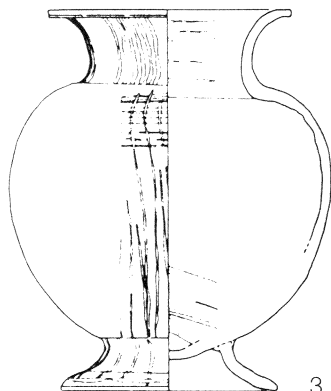
고배형에 가까운 와질토기시대의 기대는 首部 내외면은 횡마연, 脚部 외면에 종마연을 각각 하였으며, 매우 치밀하다. 반면 고식도질토기시대의 와질제 또는 도질제 통형기대는 全面 종마연하였다(그림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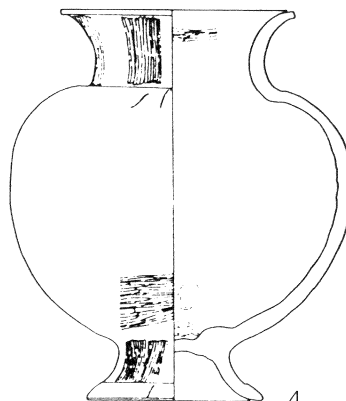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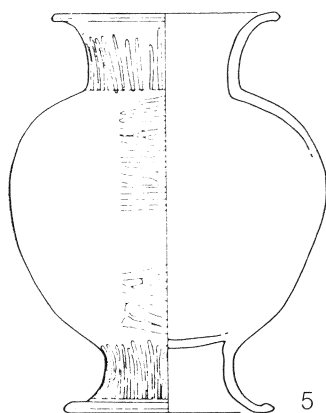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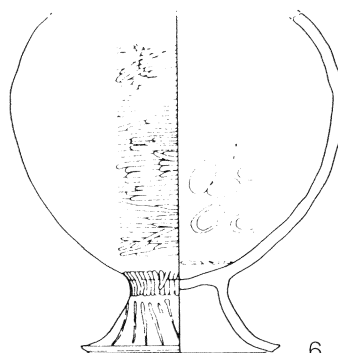
3



4



5



6

그림 5. 대부장경호의 마연형태(1·2)와 暗文 각종(3~6)
(1 : 하대 44호, 2·4·5·6 : 옥성리 나 46·60·115·65호, 3 : 옥성리 가 12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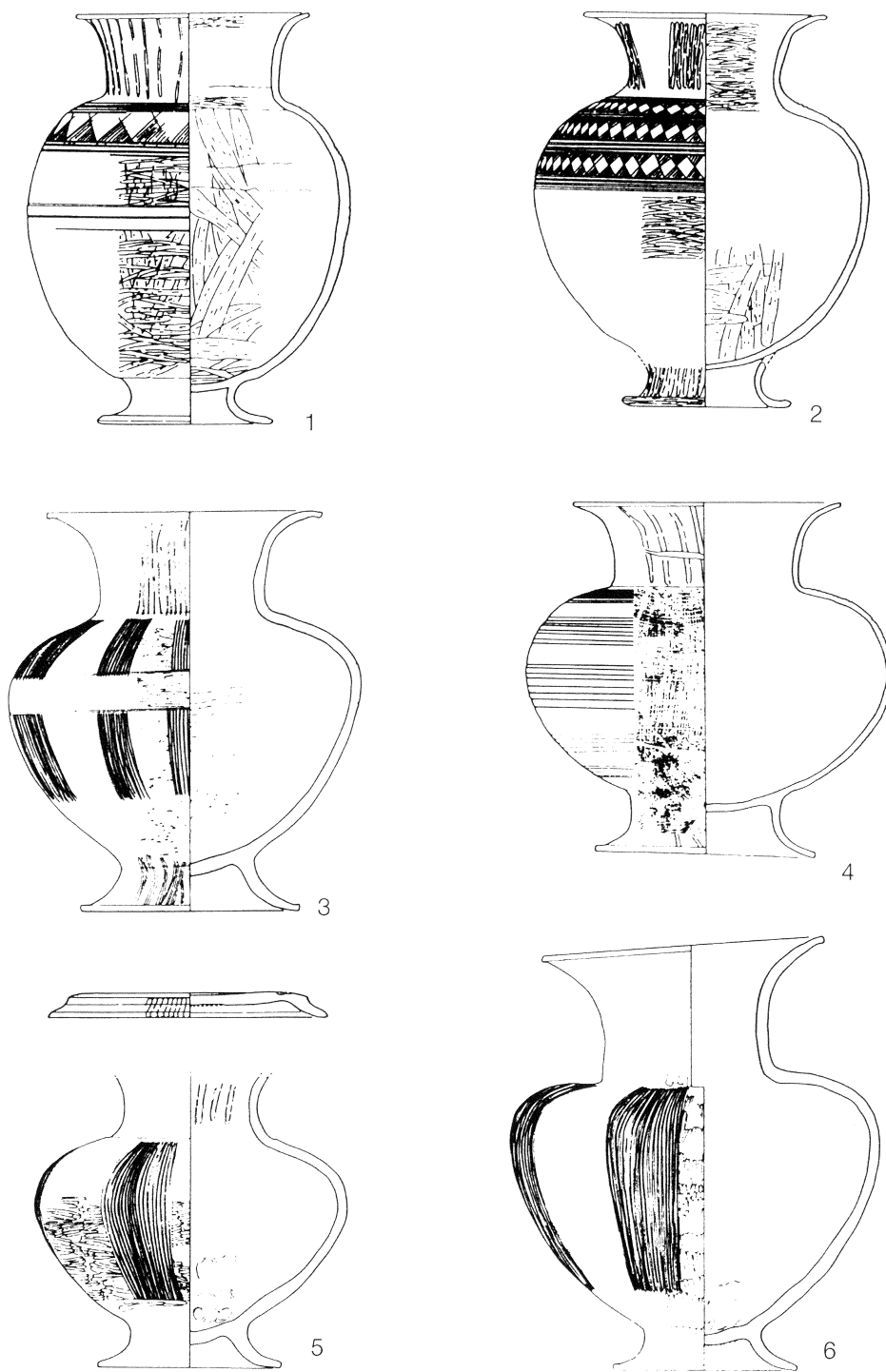


그림 6. 침선계 문양이 시문된 대부장경호의 마연형태(5·6)와 暗文 각종(1~4)
(1·2 : 하대 43·44호, 3·5·6 : 옥성리 나 58·36·78호, 4 : 양동 171호(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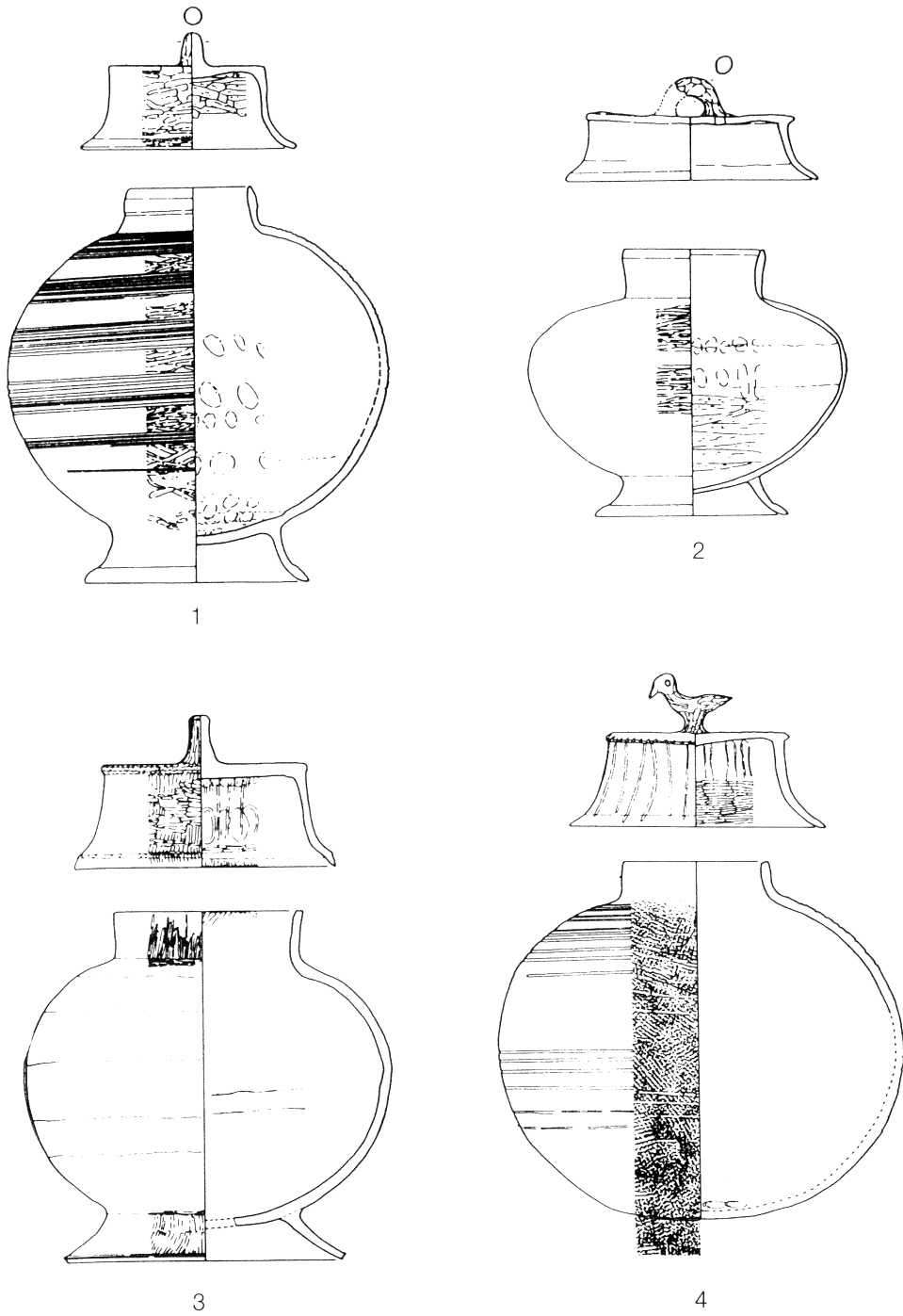


그림 7. 유개대부직구호의 마연형태(1~3)와 暗文 I 류(4)
 (1 : 예안리 160호, 2 : 하대 6호, 3 · 4 : 옥성리 나 39 · 5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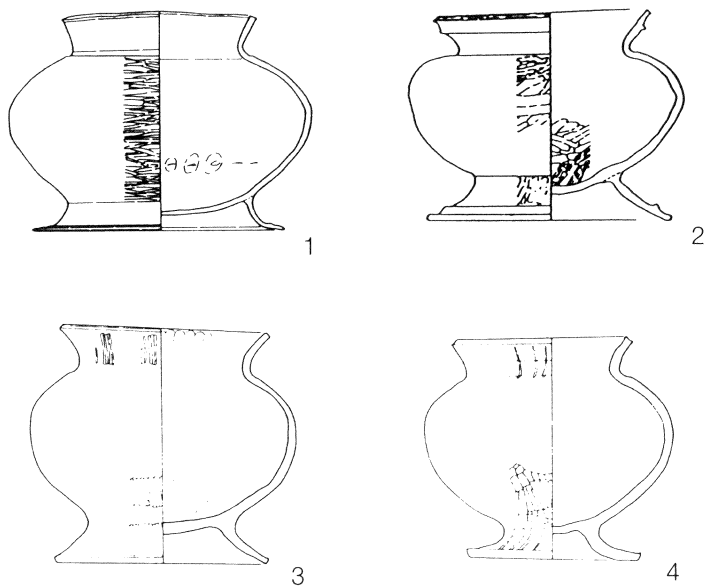


그림 8. 대부호의 마연형태(1·2)와 暗文 각종(3·4)
(1 : 하대 45호, 2 : 중산리 1 A 74·75호, 3·4 : 옥성리 나 50·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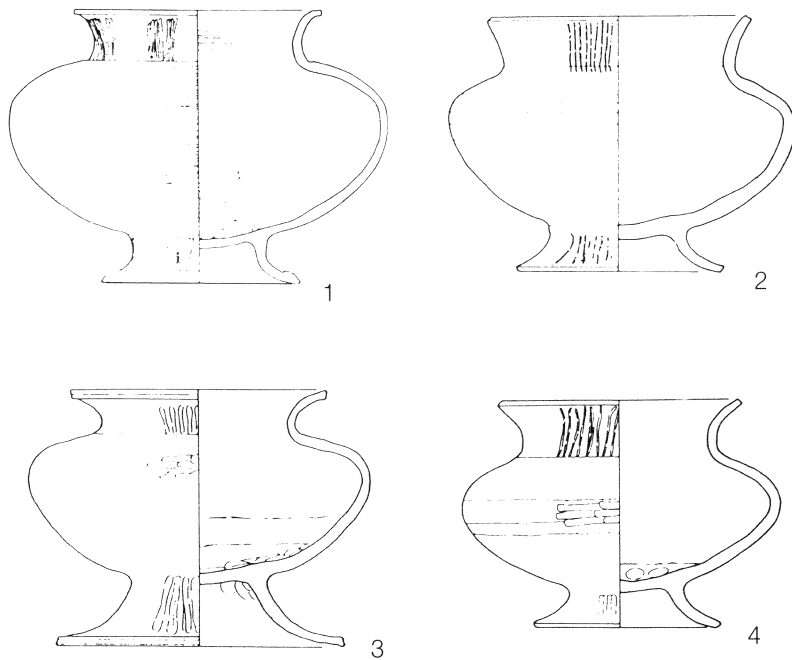


그림 9. 노형토기의 暗文 각종
(1·2·3 : 옥성리 나 112·78·58호, 4 : 도항리 10호(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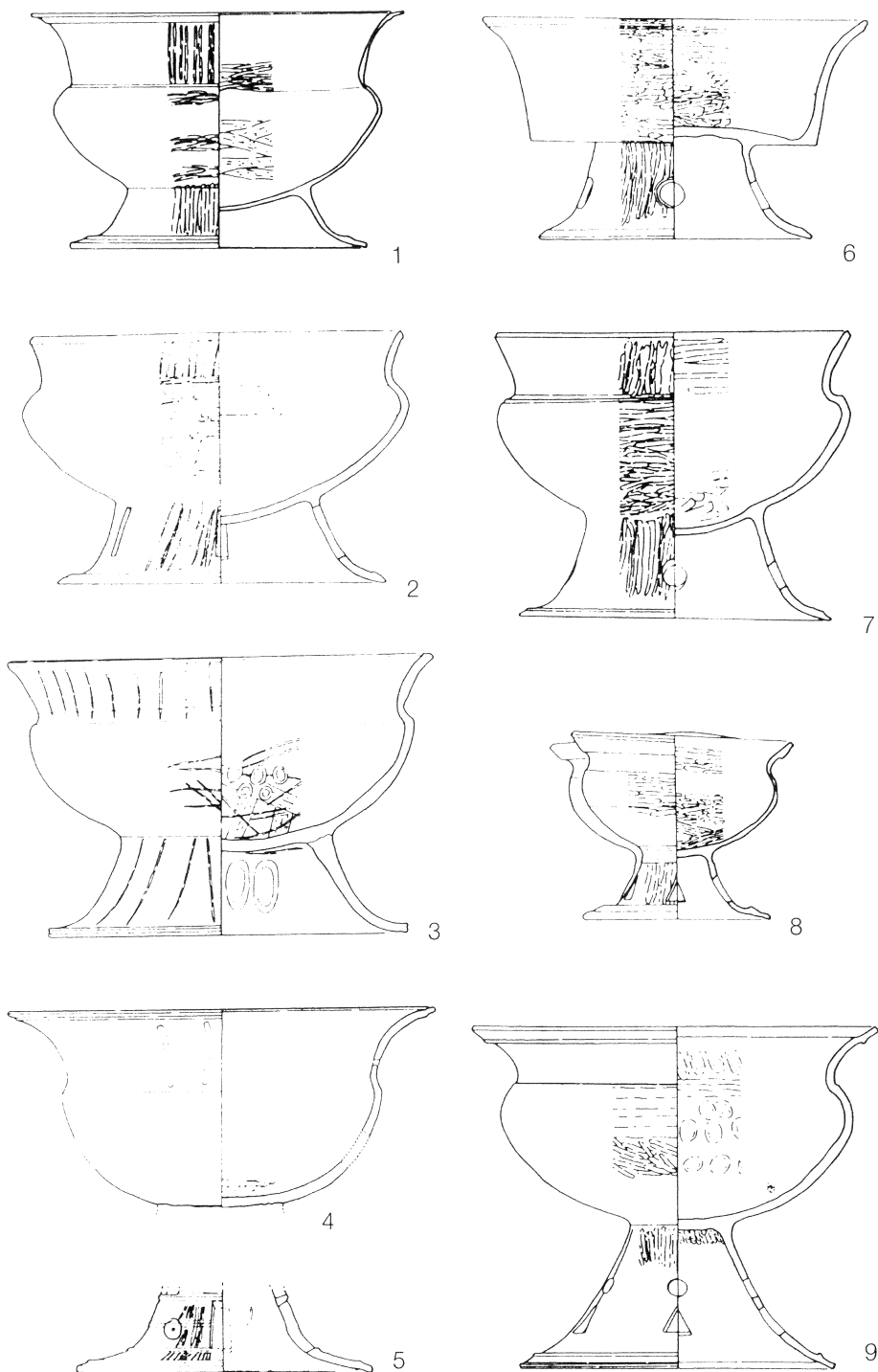


그림 10. 노형토기와 노형기대의 暗文 각종(1~5)과 마연형태(6~9)
 (1 : 하대 46호, 2 : 노포동 31호, 3·4 : 옥성리 나지구 45·7호, 5 : 임당 FII6호 토광유구,
 6·7 : 예안리 0호 옹관, 74호, 8·9 : 죽동리 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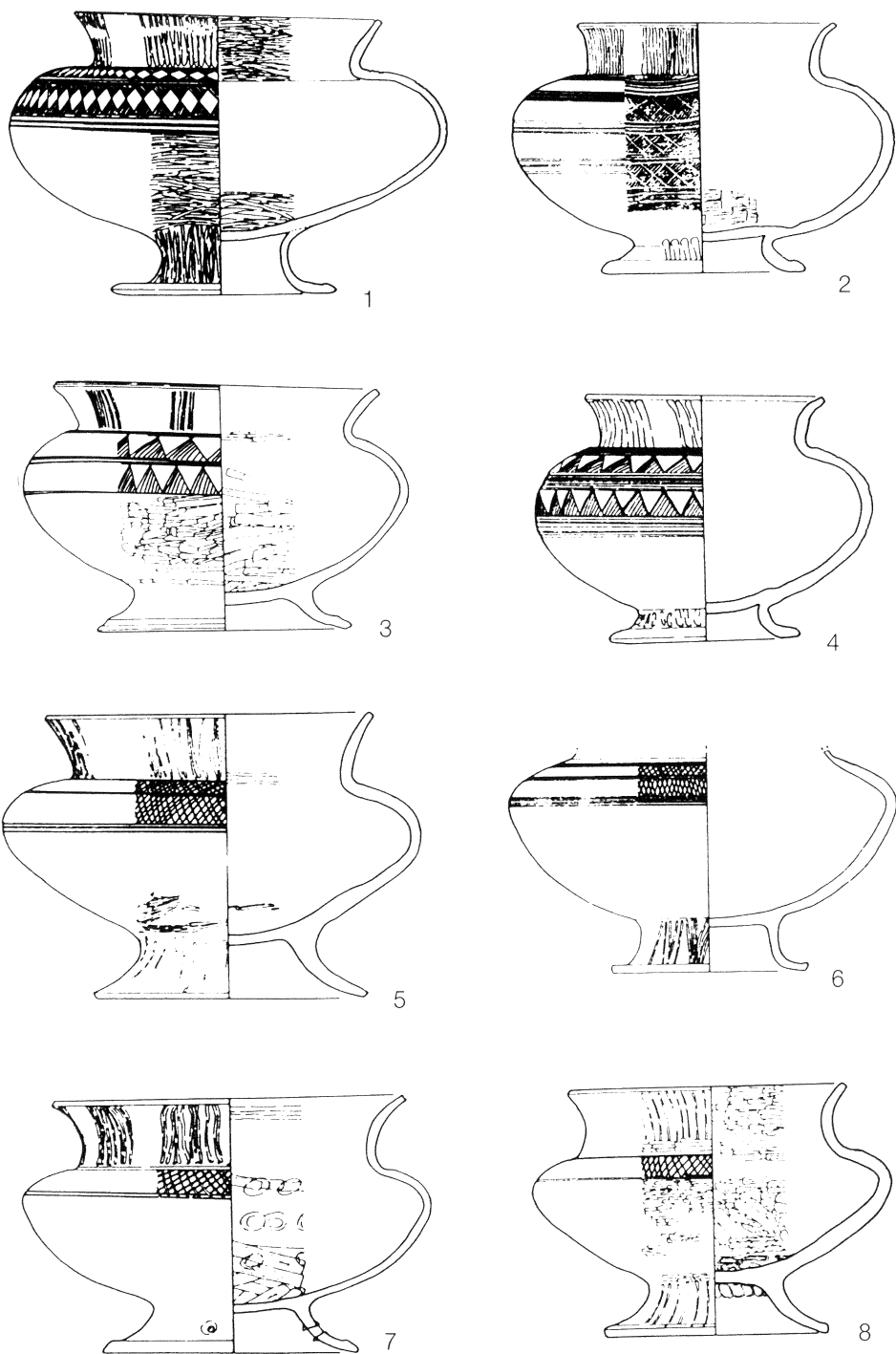


그림 11. 침선계 문양이 시문된 노형토기의 暗文 형태〈1~7 : II류, 8 : III류〉
 (1 : 하대 44호, 2 : 양동 171호(東), 3·5·7·8 : 옥성리 나 78·78·44·73호, 4 : 구지로 27호,
 6 : 임당FII 15호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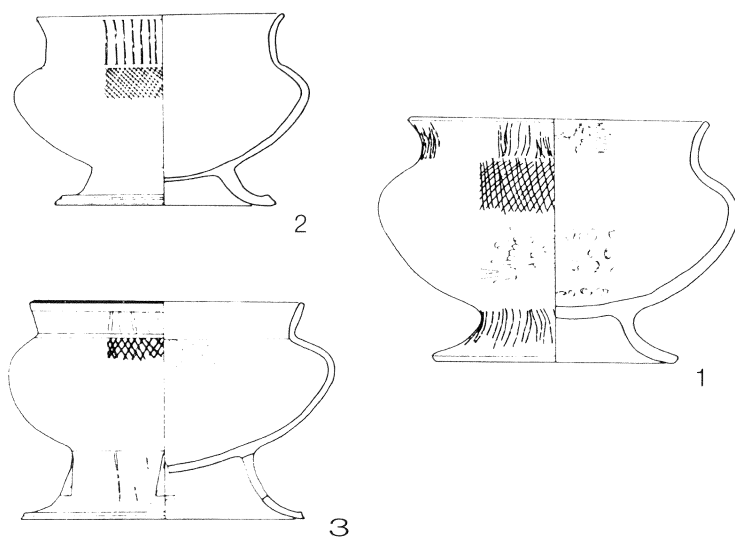


그림 12. 침선계 문양이 시문된 노형토기의 暗文 형태
(1 : 옥성리 나 62호, 2 : 대성동 29호, 3 : 예안리 9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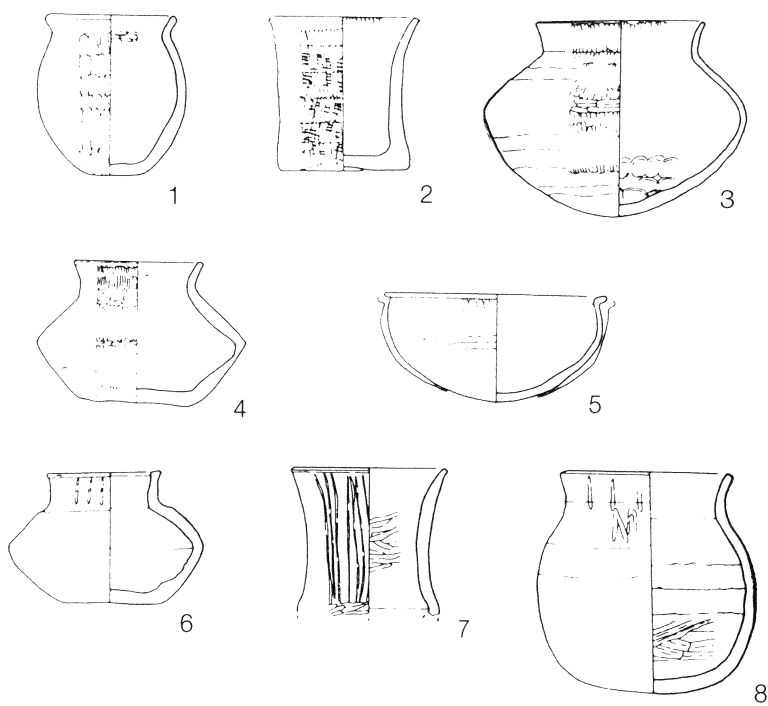


그림 13. 옥성리 나지구 출토 소형토기의 마연형태(1~5)와 暗文 각종(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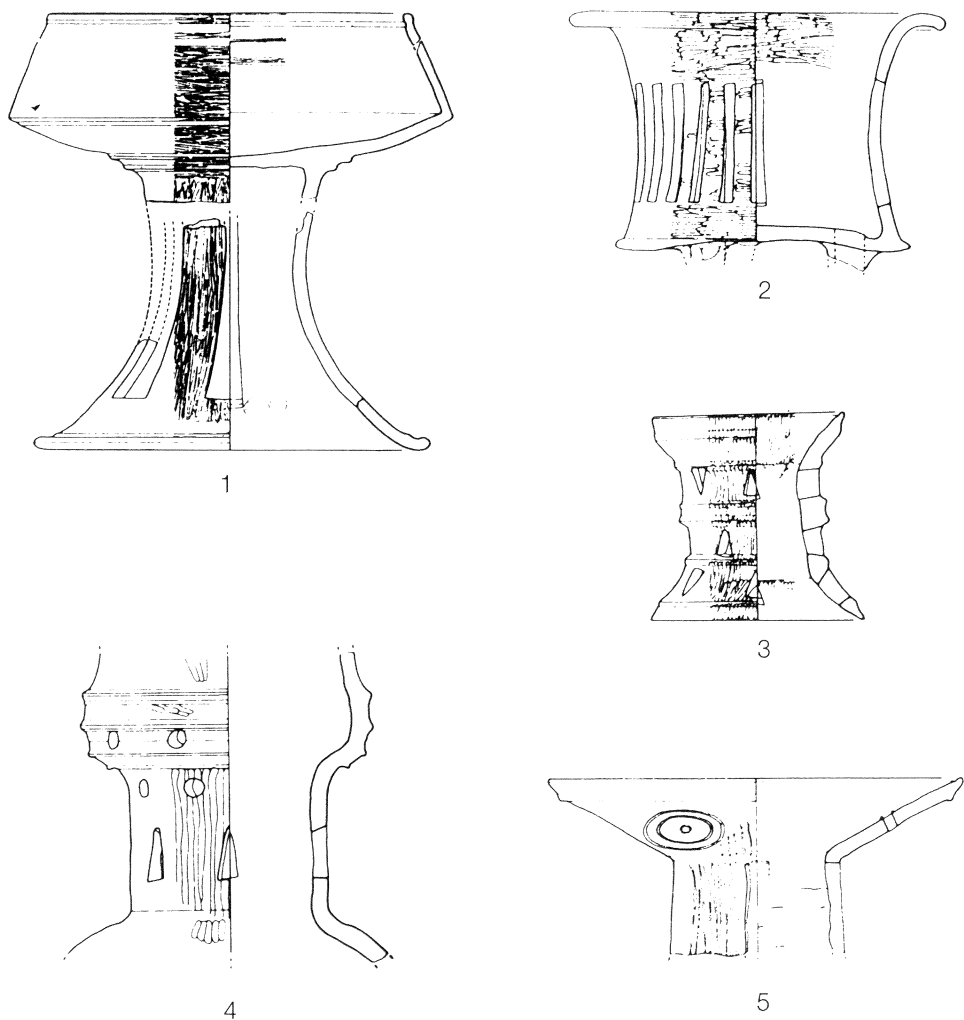


그림 14. 통형 기대류의 마연형태(1~4)와 暗文 III류
(1 : 팔달동 50호 목관묘, 2·3·4 : 옥성리 나 43·17호·채집, 5 : 임당FⅠ 채집)

⑦ 高杯

배신 내외면과 구연단·대각단은 황마연, 대각부 외면에는 종마연하였다. 대각부는 회전물손질 후, 2차로 대각 상위부터 대각단 바로 위부분까지 폭 2mm정도, 길이 5cm

이상의 종마연하였다(그림15). 무문토기시대의 豆形土器(그림1-1)에서도 대각부는 종마연하였다.

⑧ 蓋

와질제의 뚜껑은 접시형과 꼭지형이 있으며, 접시형은 대부장경호와 꼭지형은 대부직구호와 셋트를 이룬다.

접시형(그림6-5)은 짧은 드림부 드림부 내외면에 폭 0.3cm정도 넓게 종마연하였으며, 꼭지형(그림7)은 긴 드림부 내외면에 종마연 또는 횡마연하였다.

⑨ 단경호

단경호는 동체부 전면에 격자문이 타날된 와질토기에는 마연흔이 없다. 무문양의 소형단경호는 동체 전면을, 동체 하위에 타날문을 남긴 단경호에는 동체 상위에서 중위에 걸쳐 횡마연하였다. 와질제와 도질제 모두 구경부에 종마연하였다(그림16).

그 외 삼한시대의 생활유적에서 출토되는 주된 기종인 碗은 아직 발표된 자료가 적어 이번에는 다루지 않았으며³⁾, 특수토기인 오리형토기 역시 마연과 깎기가 혼용되어 제작되나, 일반적인 기종이 아니므로 본고에서는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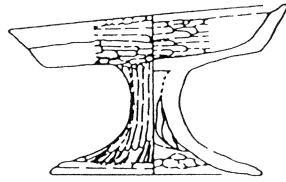
다음은 와질토기의 순수마연수법을 각 기종별로 마연형태를 종합하여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1〉 와질토기의 각 기종별 마연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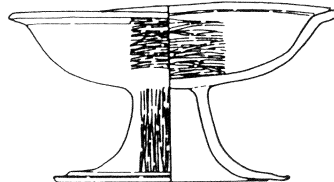
기형 부위	주머니호	조합식우각형 파수부호 장동호	대부장경호 대부직구호 대부호	노형 토기	소형 토기	고배	개	단경호	노형 기대	통형 기대
구경부 (구연부)	횡	종·횡	종	종	종	횡	(꼭지) 종	종	종	(수부) 종·횡
동체부	횡	횡	횡>종	횡	종·횡	(구연부) 횡	드림부 종·횡	횡	횡	종
대각부		(종)	종	종		종			종	종

3) 3세기 후반대로 생각되어지는 경산임당동FⅡ지구 주거지 33호, 39호에서 출토된 碗에도 종마연과 횡마연흔이 관찰되었으나, 자료가 2점에 불과하여 제외하였다. I지구의 주거지가 보고되면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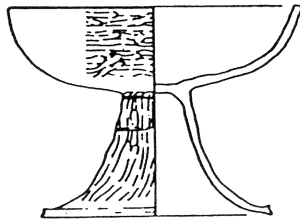
영남문화재연구원, 1999, 『경산임당동유적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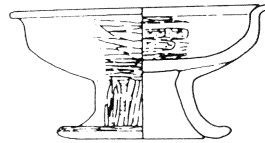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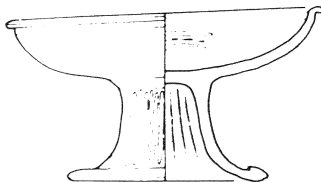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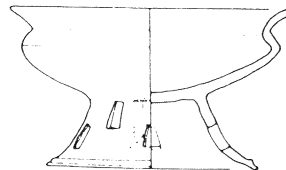
2



4



5



6

그림 15. 와질제 고배의 마연형태<4>
(1·2 : 중산리, 3·4 : 하대, 5 : 옥성리, 6 : 김해양동(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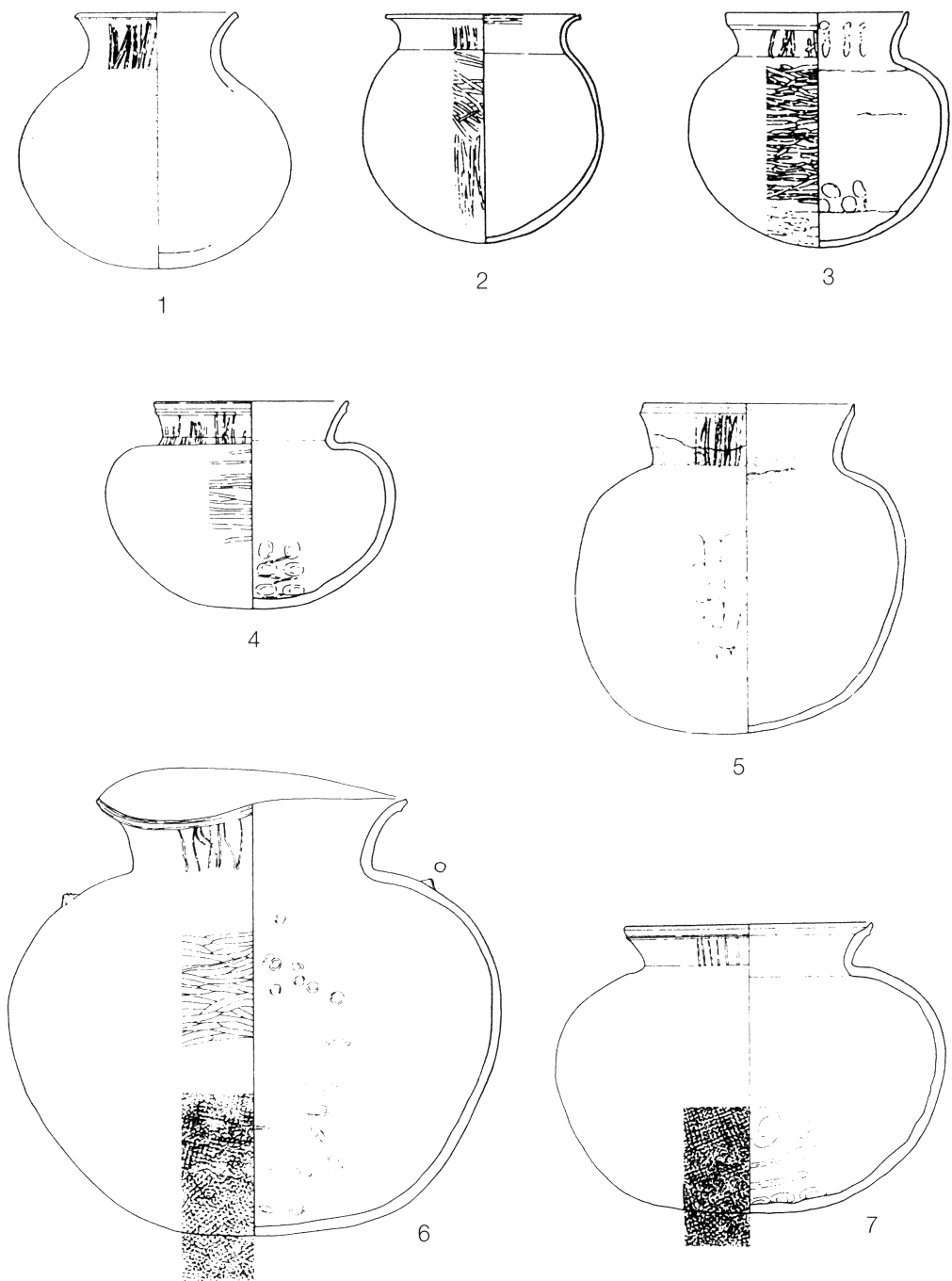


그림 16. 단경호의 마연수법과 暗文 형태(1~3 : 와질, 4~7 : 도질)
 (1 : 임당 FⅡ10호 주거지, 2·3 : 예안리 105·160호, 4·5·6·7 : 옥성리 나 97·17·59·29호)

IV. 暗文의 형태와 전개

1. 暗文의 定義

지금까지 三韓時代 유적보고서 또는 논문에서, 와질토기의 暗文에 대해 ‘暗文風의 종마연하였다’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거의 20년간 사용하여 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고고학에서 침선계 또는 압인계 시문방법에 의한 문양만을 ‘토기의 문양’으로 생각하는 고정관념 속에서, 또 다른 문양시문방법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았던 사고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삼한시대의 유적이 많이 발굴, 보고되어 와질토기의 정체가 조금씩 밝혀져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와질토기의 문양시문방법의 하나인 침선계 문양에 대응하여 마연계 문양을 ‘暗文’이라는 용어로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즉 暗文이란, 삼한시대 와질토기의 마연계 시문방법에 의한 문양으로 縱磨研手法이 이용되었으며, 구경부(드림부)와 대각부에 주로 시문되었다. 반면 동체부에는 사각집선문, 삼각집선문, 사격자문, 종집선문, 횡집선문 등의 沈線文이 새겨졌다.

2. 暗文의 種類

暗文을 시문하는데 이용된 도구는, 순수한 마연수법으로 整面時에 사용한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된다. 폭은 0.1~0.2cm정도이며, 길이는 토기의 크기, 시문된 부위의 길이에 따라 달라지나, 도구로 이용하여 위에서 아래로 한번만에 그은 것은 모두 동일하다. 토기의 성형과 정면이 완전히 끝난 토기제작 최후단계에 행하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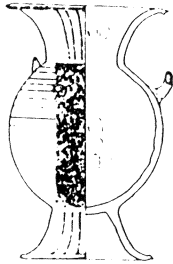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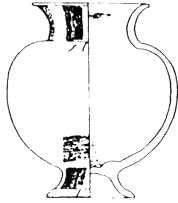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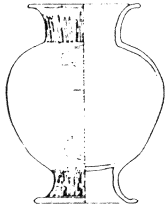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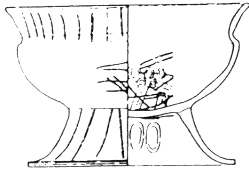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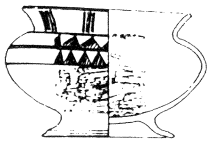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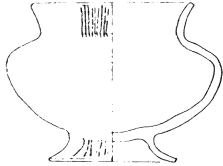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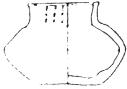
暗文의 형태는 한 단위(1組)를 이루는 縱磨研線의 數와 간격에 따라 다음의 3종류로 분류된다⁴⁾.

① I 류(그림17, 사진1)

1개의 종마연선을 1~2cm정도의 등간격으로 연속적으로 구경부, 드림부 또는 대각

4) 옥성리 가지구 56호 목곽묘의 보강토내에서 출토된 대부조합우각형과수부호의 구경부에는 ‘X’자형 암문이 연속적으로 시문되어 있다. 이 문양은 지금까지 발굴된 와질토기에 시문된 일반적인 종마연문과는 다른 특수한 형태이다. 본고에서는 간략하게 소개하며 분류에서는 제외하였다. 국립경주박물관, 2000, 『옥성리고분군』

〈표 2〉 暗文의 종류

종류 기형	I 류	II 류	III 류
대부장경호			
노형토기			
소형토기			

부에 배치하였다. I 류의 암문이 시문된 기종으로는, 조합식우각형과수부호, 장동호, 대부장경호, 노형토기, 소형편구호, 대부호, 개(원통형꼭지), 노형기대 등이 있다.

② II류(그림18, 사진2)

뾰족하게 그은 종마연선 10~15개가 1조의 집선문을 이루며, 이 집선문 여러 조를 등간격으로 구경부 또는 대각부에 배치하였다. II 류의 암문이 시문된 기종으로는, 대부장경호, 노형토기, 대부호 등이 있다.

③ III류(그림19, 사진3)

1개의 종마연선을 연속적으로 0.2cm 정도의 간격으로 촘촘하게 구경부 또는 대각부 전면에 배치하였다. III 류의 암문이 시문된 기종으로는, 조합식우각형과수부호, 대부장경호, 노형토기, 단경호, 소형발, 통형기대 등이 있다.

暗文의 종류



사진 1. 暗文 I 류(포항옥성리 나지구 14호 출토 소형편구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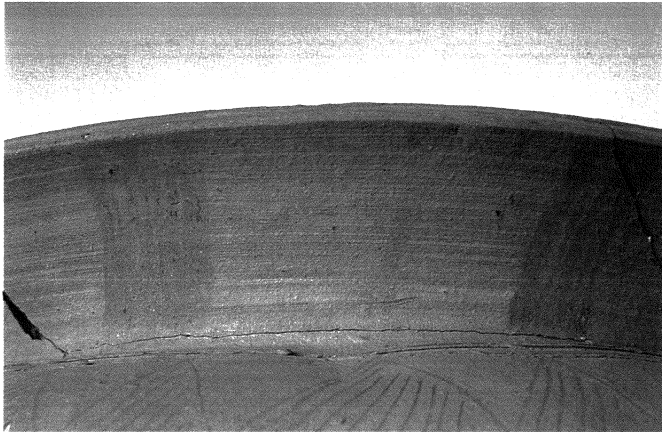


사진 2. 暗文 II 류(포항옥성리 나지구 78호 출토 노형토기)



사진 3. 暗文 III 류(포항옥성리 나지구 58호 출토 노형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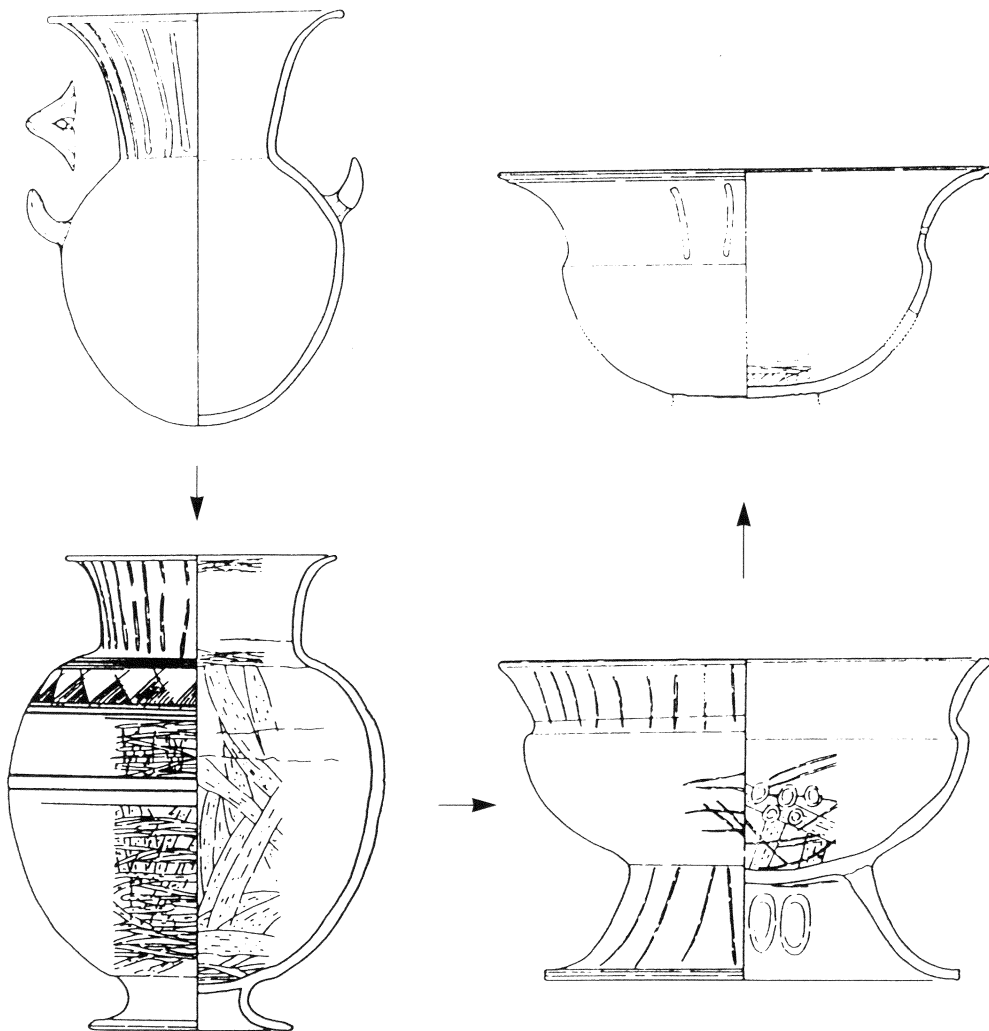


그림 17. 暗文 I 류의 변화(대부장경호와 노형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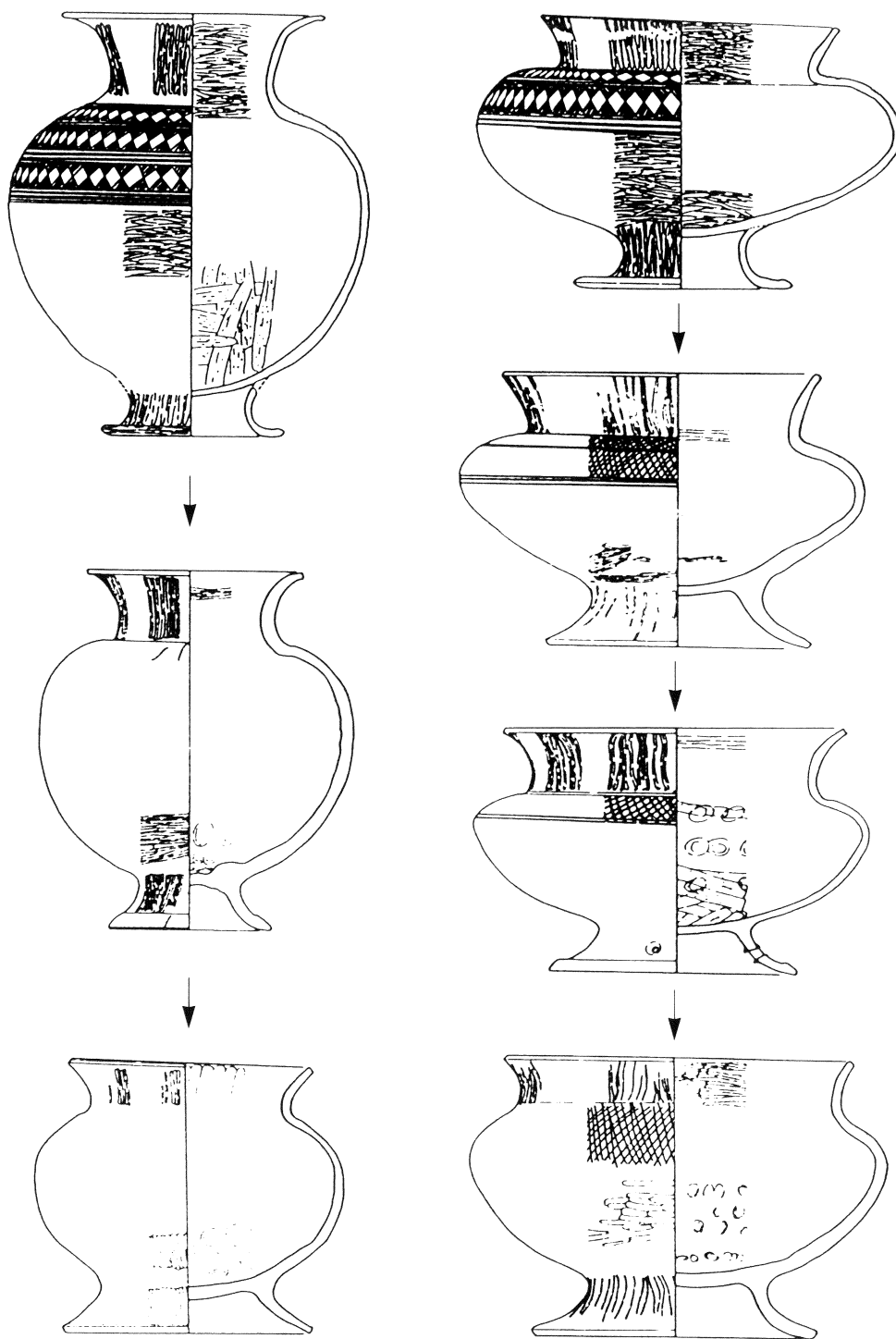


그림 18. 暗文 II류의 변화(대부장경호와 노형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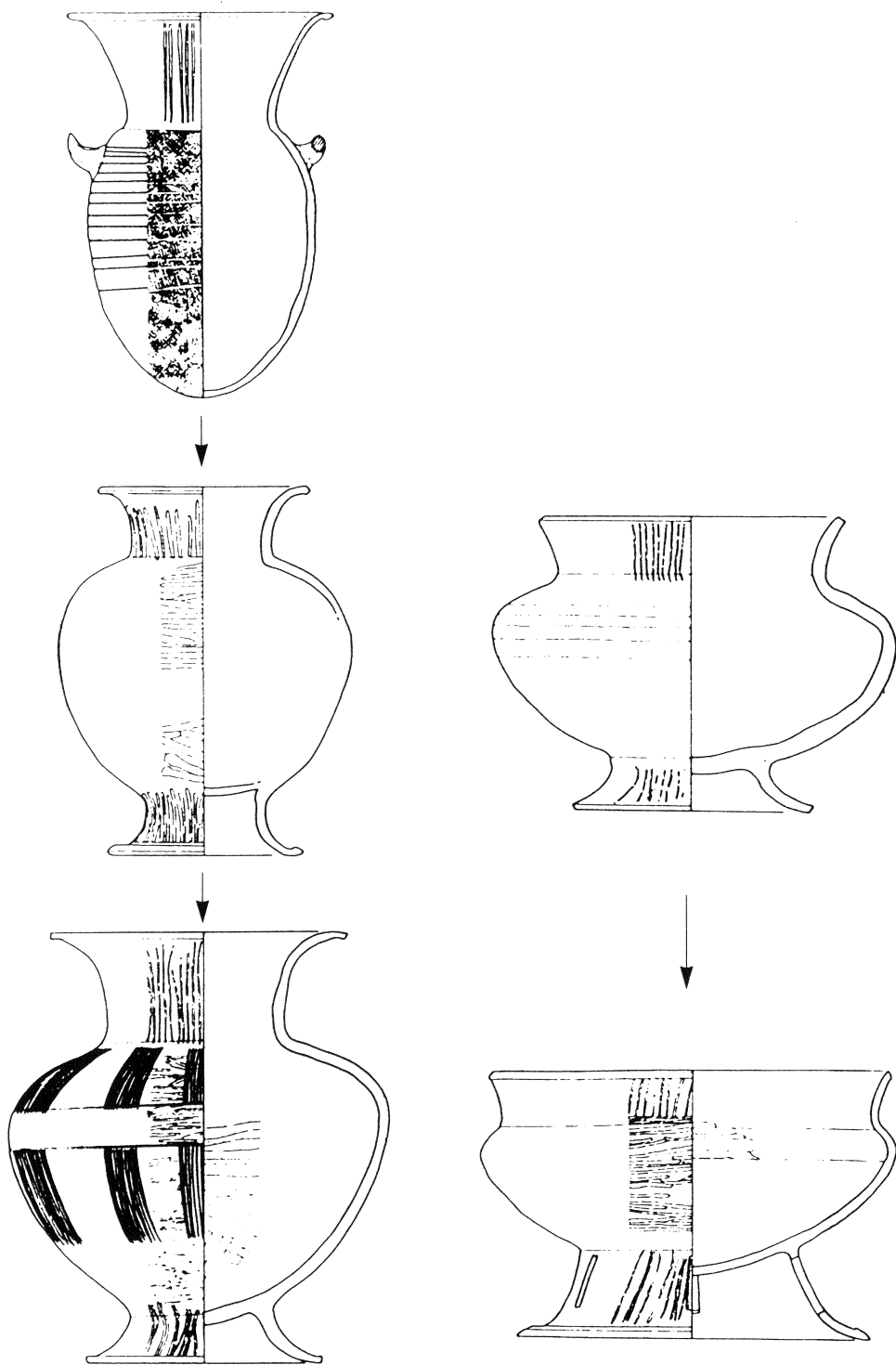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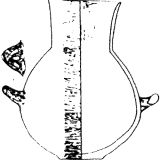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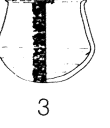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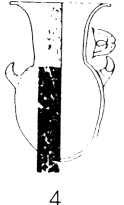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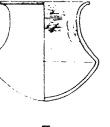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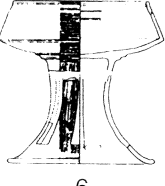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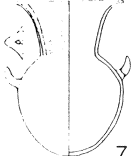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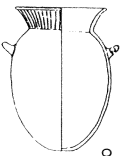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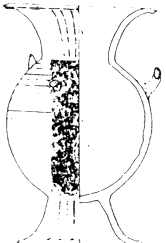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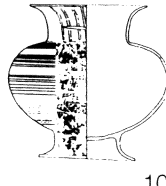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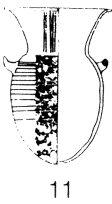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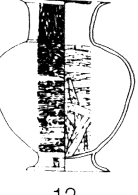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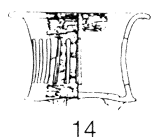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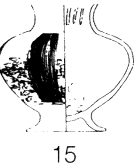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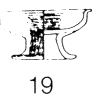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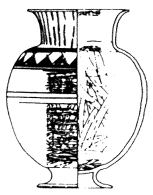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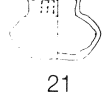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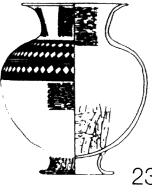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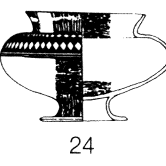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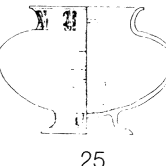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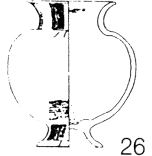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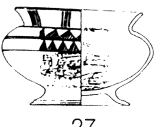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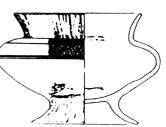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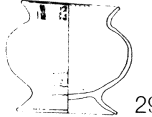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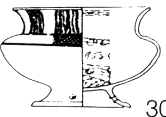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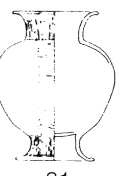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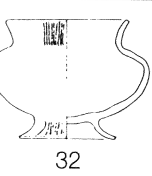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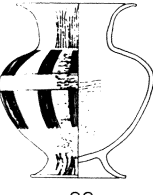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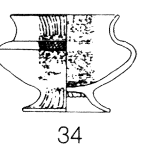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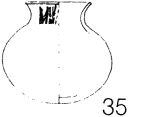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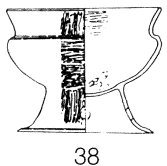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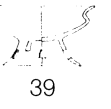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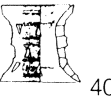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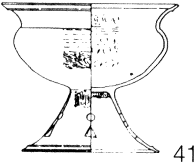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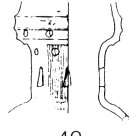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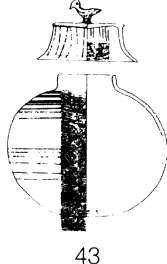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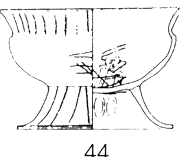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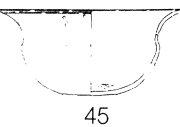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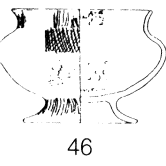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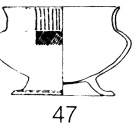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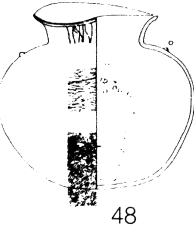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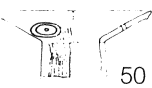


그림 19. 暗文 III류의 변화(대부장경호와 노형토기)

〈표 3〉 마연수법과 암문형태에 따른 와질토기의 편년

분류 시기	순수마연수법	암 문 형 태			유 적 명
		I 식	II 식	III 식	
전기 와질토기 시대	 1  2  3  4  5  6	 7  8  9  10		 11	1. 팔달동 45호 2. 팔달동 44호 3. 도항리 30호(경고연) 4. 도항리 21호(경고연) 5. 도항리 60호(경고연) 6. 팔달동 50호 7. 팔달동 106호 8. 밀성고 소장 9. 대성동 주변 I 지구 13호 10. 양동 171호(東) 11. 대성동 53호
후기 와질토기 시대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12, 23, 24. 하대 44호 13. 하대 45호 14. 옥성리 나43호 15. 옥성리 나 36호 16. 옥성리 나 66호 17. 옥성리 나 18호 18. 하대 40호 19. 하대 38호 20. 하대 43호 21. 옥성리 나 14호 22. 옥성리 나 5호 25. 옥성리 나 112호 26. 옥성리 나 60호 27, 28, 32. 옥성리 나 78호 29. 옥성리 나 50호 30. 옥성리 나 44호 31. 옥성리 나 115호 33. 옥성리 나 58호 34. 옥성리 나 73호 35. 임당 FII 지구 10호 주거지
고식도질토기 시대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36, 37. 예안리 160호 38. 예안리 74호 39. 양동 235호(東) 40. 옥성리 나 17호 41. 죽동리 1호 42. 옥성리 나지구 채집 43. 옥성리 나 55호 44. 옥성리 나 45호 45. 옥성리 나 7호 46. 옥성리 나 62호 47. 대성동 29호 48. 옥성리 나 59호 49. 옥성리 나지구 채집 50. 임당 FI 지구 채집

暗文의 形態는 대부장경호, 노형토기, 대부호 등에서는 구경부와 대각부에 각각 시문되나, 구경부와 대각부의 암문종류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 즉, 반드시 구경부 I 류+대각부 I 류로 시문되지 않으며, 각 기형별로 동일한 종류의 암문이 시문되거나, 서로 다른 종류가 시문되는 경우도 많다.

3. 暗文의 展開(표3. 참조)

① 前期瓦質土器時代-出現期

暗文이 채용된 것은 와질토기가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한 전기와질토기시대로, AD 2세기경 조합식우각형과수부호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이 시기의 와질토기에는 아직 침선계 문양이 시문되지 않는다.

한편 이 시기에 공반되는 주머니호에서는 暗文은 전혀 시문되지 않고, 순수마연수법의 整面만이 행해진다. 와질토기 기종 중 유일하게 暗文이 시문되지 않았던 형태가 주머니호이다(그림2).

暗文이 시문된 기종으로는 조합식우각형과수부호, 양유부호 등이며, 암문의 종류는 I 류와 Ⅲ 류가 출현하며, 시문부위는 구경부이다(그림3,4).

대성동주변 I 지구 13호 목관묘 출토 대부조합식우각형과수부호에는 구경부와 대각부에, 도항리24호(경고연) 목관묘 출토 양유부호⁵⁾에는 구경부 뿐만 아니라 동체부에도 각각 I 류 암문이 시문되어 있다.

② 後期瓦質土器時代-發展期

前期와는 다른 묘제와 새로운 와질토기 기종이 제작되는 AD 2세기 후반에서 고식도질토기가 출현하는 3세기 후반에 걸치는 시기로, 목관묘가 묘제로 채용되고 와질토기의 기종도 다양해진다. 암문형태 중 Ⅱ 류가 출현하며, 모든 기종에 걸쳐 3종류 모두 본격적으로 시문된다. 이 시기에 사각집선문, 삼각집선문, 사격자문 등의 침선계 문양이 등장하여 토기 동체부에 시문된다.

5) 도항리의 목관묘 자료는 직접 실견하지 못하였으나, 경남고고학연구소의 김 현선생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게 되었다. 후의에 감사드린다.
경남고고학연구소, 2000, 『도항리·말산리유적』

암문이 시문된 기종으로는 대부장경호, 노형토기, 대부호, 단경호, 소형토기 등이며, 암문의 종류는 I · II · III류 모두 활발하게 이용된다. 시문부위는 주로 구경부와 대각부이다(그림5, 6, 9, 11, 13).

한편 옥성리 가56호 목곽묘 보강토내에서 출토된 대부조합식우각형과수부호의 구경부에는 'X'자형의 암문이 연속적으로 시문되어 있어 주목된다(그림4-5) .

생활유적이나 임당FII지구 10호주거지 출토 단경호의 구경부(그림16-1)와 15주거지 출토 노형토기의 대각부에도 III류 암문이 시문되어 있다⁶⁾.

③ 古式陶質土器時代 -衰退期

3세기 말부터 도질토기가 생산되면서 와질토기 생산량은 점점 적어진다. 이와 함께 와질토기 제작기법도 점점 쇠퇴하여 문양과 정면수법도 형식화된다. 그러나, 도질토기에도 와질토기의 마연과 암문시문이 채용되기도 하였다. 와질토기가 소멸되는 4세기말까지는 암문을 시문하는 전통이 와질 및 도질토기에 계속적으로 나타난다.

암문이 시문된 기종으로는 대부직구호, 노형토기, 단경호, 소형기대, 노형기대, 통형기대 등이며, 암문의 종류는 I · II · III류 모두 이용되었다. 시문부위는 구경부와 대각부이며, 개(원통형꼭지)는 드림부(도면7-4) , 소형발은 동체 전면에 나타난다.

특히 도질제의 단경호류(도면 16-4~7), 노형기대류(도면10-5,9)와 통형기대(도면 14-4,5) 등에 暗文이 시문되어 있으나, 앞 시기에 비하여 치밀하지 않으며 형식화된다⁷⁾.

V. 맺음말

이상과 같이 삼한시대 토기의 정면수법 중 하나인 마연수법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 보았다.

정면수법의 하나인 마연은, 와질토기제작에 있어 순수 整面뿐만 아니라, '暗文'이라는 마연문양의 시문에도 이용되었다. 마연수법은 종말기의 무문토기시대부터 시작하여

6) 영남문화재연구원, 1999, 『경산임당동유적 I』.

7) 아직 보고서는 未刊이나, 임당G지구 4세기대 목곽묘에서 출토된 도질제 단경호와 노형기대에서 暗文이 시문되어 있다.

와질시대에는 일반적인 정면수법과 문양시문방법으로 이용되다가, 도질토기가 생산되면서부터 퇴화되어간다. 고식도질토기가 생산되었던 4세기말까지는 와질토기와 도질토기에 함께 이용되었으며, 와질토기 소멸과 함께 정면기법으로서의 마연수법과 마연문인 暗文은 사라지게 된다.

暗文은 삼한시대 와질토기에 시문된 최초의 문양으로써, 종마연수법이 이용되었고, 그 종류는 3가지가 있다. 2세기경 전기와질토기시대에 출현하여, 후기와질토기시대에는 이 시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침선계문양과 함께 전 기종에 걸쳐 시문되었으며, 4세기대 고식도질토기 생산과 함께 점점 소멸되어 갔다.

참고문헌

- 경남고고학연구소, 2000, 『도항리·말산리유적』
- 경북대학교박물관, 1993, 『대구팔달동유적』
- 경상대학교박물관, 1994, 『의령예둔리분묘군』
- , 1994, 『함안황사리분묘군』
- 경성대학교박물관, 1998, 『김해구지로분묘군』
- , 2000, 『김해대성동고분군 I』
- , 2000, 『김해대성동고분군 II』
- 국립경주박물관, 2000, 『옥성리고분군』
- , 1998, 『경주죽동리고분군』
- 국립중앙박물관, 1998, 『동래낙민동패총』
- , 1998, 『특별전-한국고대국가의 형성』
-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1997, 『함안도항리고분군 I』
- 김수남, 1999, 「임당유적 원삼국시대 목관묘」, 『제21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요지』
- 김영민, 1996, 「영남지역 삼한후기문화의 특징과 지역성」, 부산대학교석사학위논문
- 김용성, 1996, 「토기에 의한 대구·경산지역 고대분묘의 편년」, 『한국고고학보』35
- 동아대학교박물관, 1998, 『양산평산리유적』
- 동의대학교박물관, 1996, 『창원도계동고분군』
- , 2000, 『김해양동리고분문화』
- 문화재연구소, 1989, 『김해양동리고분』

- 부경대학교박물관, 1998, 『김해대성동소성유적』
- 부산대학교박물관, 1985, 『김해예안리고분군 I』
- , 1988, 『부산노포동유적』
- , 1992, 『김해예안리고분군 II』
- , 1996, 『선사와 고대의 문화』
- , 1997, 『울산하대유적-고분 I』
- , 1998, 『울산하대유적-고분 II』
- , 1998, 『동래복천동고분군 III』
- 부산시립박물관, 1988, 『부산노포동유적 II』
- 부산시립박물관 복천분관, 1996, 『부산의 역사와 복천동고분군』
- , 1997, 『동래복천동93·95호분』
- , 1999, 『동래복천동고분군(141~153호)』
- 신경철, 1982, 「부산·경남 출토 와질계토기」, 『한국고고학보』12
- , 1992, 「김해예안리 160호분에 대하여」, 『가야고고학논총』1
- 안재호, 1986, 「삼한시대후기 와질토기의 편년」, 『영남고고학』14
- 영남대학교박물관, 1994, 『경산임당지역고분군 II』
-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1998, 『포항옥성리고분군 I·II』
- 영남문화재연구원, 1999, 『경산임당동유적 I』
- , 2000, 『대구팔달동유적 I』
- 이건무외, 1989, 「의창다호리유적발굴진전보고」, 『고고학지』1
- , 1991, 「창원다호리유적발굴진전보고 II」, 『고고학지』3
- , 1993, 「창원다호리유적발굴진전보고 III」, 『고고학지』5
- , 1995, 「창원다호리유적발굴진전보고 IV」, 『고고학지』7
- 이성주, 1996, 「신라식목관묘의 전개와 의의」, 제20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발표요지
- , 1999, 「진·변한지역 분묘 출토 1~4세기 토기의 편년」, 『영남고고학』24
- , 「타날문토기의 전개와 도질토기 발생」, 『한국고고학보』42
- 임효택, 1993, 「낙동강하류역 토광목관묘의 등장과 발전」, 제17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 전옥년, 1988, 「영남지역에 있어서 후기와질토기의 연구」, 경북대학교석사학위논문
- 최종규, 1999, 『삼한고고학연구』, 서경문화사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8, 『경산임당유적』

【Abstract】

**A Surface polishing technology of Pottery in
Three-Han Period**

Ahn, Soon-Cheon

Surface polishing technology in a soft-gray pottery was used to the pure surface treatment and the vertical polishing such as pattern burnishing in Three-Han Period.

The pure surface polishing treatment was used from plain pottery, widely used in the soft-gray pottery, and gradually diminished with appearance of stoneware. But this was used in old stoneware and in soft-gray pottery to end of 4th century.

The vertical polishing was used in pattern burnishing, which is the first pattern in Three-Han Period. In addition, the 3 kinds of pattern burnishing appeared in the former term of soft-gray pottery (about 2nd century) and was used in all kinds of potteries with the scratch pattern. With a pure surface polishing treatment, the pattern burnishing was used in old stoneware and in soft-gray pottery to the end of 4th century.

耳飾으로 본 普門里夫婦塚의 性格

朴 普 鉉*

目 次

- | | |
|----------------------------|---------------|
| I. 머리말 | IV. 보문리집단의 성격 |
| II. 유적·유물의 검토 | V. 맺음말 |
| III. 이식에서 본 보문리부부총 피장자의 성격 | |

요 약

이 논문에서는 그 동안 부부묘로 인식되어 왔던 보문리부부총에 대하여 재검토를 시도해 보았다. 귀걸이로 볼 때 보문리부부총의 적석총에는 태환식 이식, 횡혈식석실에 태환식 이식이 부장되어 있어서 현재까지 알려진 자료로는 보문리부부총의 피장자는 모두 여성이었음을 알 수 있었고, 시상 위에 남자가 묻혔는 지는 알 수 없었다. 태환식 이식은 여성이 착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보문리부부총에 묻힌 사람이 부부관계에 있었다는 적극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동시에 보문리부부총이 입지적 특징에 의하여 적석목곽분시기와의 단절을 논하는 논리도 성립할 수 없으며 오히려 보문리고분군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임을 알 수 있었다.

I. 머리말

경주분지에는 적석목곽분이라는 무덤들이 밀집하여 분포하고 있으면서 새로운 묘곽

* 大田保健大學 博物館科

구조인 소수의 횡혈식무덤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산록지대에는 횡혈식석실묘가 보편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명활산의 서록과 남록에도 서악리에 못지 않는 많은 무덤들이 분포¹⁾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명활산성이 있는 명활산의 서록에 입지하고 있는 무덤들에 대한 조사는 해방전에 2-4기 이루어져서 내부구조를 알 수 있게 되었고, 신라고분의 변천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보문리부부총²⁾을 비롯하여 보문리고분³⁾, 금환총⁴⁾, 완총⁵⁾, 석실묘⁶⁾가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서도 보문리부부총은 표형분으로 적석묘와 석실묘가 공존하고 있는 점과 구릉지대 입지라는 측면⁷⁾에서 문헌에 보이는 왕릉의 입지변화를 염두에 둔 고분연대의 결정론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유구로 인식되고 있지만, 평지에도 황남동 151호묘에서 보듯이 서쪽에는 미추왕릉 7지구5호분이라는 적석총과 중복되어 있고, 동쪽으로는 파괴고분으로 불리는 다른 적석총과 중복⁸⁾되어 있다.

그런데 보문리부부총은 발굴후 적석총과 횡혈식석실이 시기를 달리하여 만들어진 표형분으로 무기류와 이식에 의하여 피장자의 성격이 남녀로 인식되면서 부부총으로 인식하게 되었는데 그후 이러한 인식은 표형분=부부묘라는 통설로 굳어지게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지만 보문리부부총에서 발견된 현재까지의 귀걸이는 모두 태환식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점은 지금까지의 피장자 성관별의 절대기준으로 이용하고 있는 방법과는 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이식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할 때인 것 같다. 이 글에서는 보문리고분의 자료를 재정리해 보면서 피장자의 성격에 대해 소묘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가 신라고분 피장자의 성격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면 다행이겠다.

-
- 1) 國立慶州博物館・慶州市, 1992, 『慶州遺蹟地圖 -1:10,000』
 - 2) 朝鮮總督府, 1916, 『朝鮮古蹟圖譜解説』 3, 173 普門里夫婦塚 [1125-1169]
朝鮮總督府, 1916, 『朝鮮古蹟圖譜』 3, 1125-1169
 - 3) 原田淑人, 「一.慶尙北道 慶州郡 -內東面普門里古墳發掘調査」 『1918年度古蹟調査報告 第1冊-原田委員報告』.
 - 4) 朝鮮總督府, 1916, 『朝鮮古蹟圖譜解説』 3, 174 普門里金環塚 [1170-1173]
朝鮮總督府, 1916, 『朝鮮古蹟圖譜』 3, 1170-1173
 - 5) 朝鮮總督府, 1916, 『朝鮮古蹟圖譜解説』 3, 175 普門里塼塚 [1173-1185]
朝鮮總督府, 1916, 『朝鮮古蹟圖譜』 3, 1173-1185
 - 6) 朝鮮總督府, 1916, 『朝鮮古蹟圖譜解説』 3, 181 普門里古墳玄室內發見漆棺枕及瓦 [1214-1217]
朝鮮總督府, 1916, 『朝鮮古蹟圖譜』 3, 1214-1217
 - 7) 谷井濟一, 1910, 「慶州の陵墓」 『朝鮮藝術之研究』, pp.74-97.
 - 8) 釜山大學校博物館, 1980, 「味鄒王陵地區 第7區域古墳群 發掘調査 報告」, 『慶州地區 古墳群發掘調査報告書』, 第2輯, 文化財管理局 慶州史蹟管理事務所, p51, 삽도1 참조

II. 유적·유물의 검토

1. 보문리고분

〈구조와 부장상태〉

보문리고분은 1915년 5월 20일부터 5월 26일 사이에 黑板勝美가 조사⁹⁾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을 原田淑人이 1918년 7월 28일부터 8월 15일까지 19일간 520명의 인부를 동원하여 조사를 완수하였는데¹⁰⁾ 명활산서록의 원본으로 적석부의 둘은 할석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묘곽의 장축은 북서-남동간이며 길이는 666.6cm(22척), 너비 515.1cm(17척)인데 남동쪽에 부장칸을 두었으며 관이 있었던 부분에는 순금제 세환이식, 금·은 지환 각 1쌍, 은천·금장 동천 각 1쌍, 유리옥·관옥, 대금구의 은제교구 1점과 행엽형의 좌금구를 붙인 은환 2종 9개, 철제 삼지창¹¹⁾(?), 두부와 족부에는 약간의 금사를 부장하였다. 이식의 출토위치로 보아서 머리는 곽의 남동쪽에 두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두부에 만들어진 주 부장군에는 동완, 토기류(장경호3, 단경호6, 완1, 개1, 개편1), 철기류(철복), 마구류(철제교구, 좌금구, 행엽, 혁대금구, 짐금구)를 부장하였다.

〈유해부 출토유물〉

장신구¹²⁾로는 이식, 목걸이, 지환, 천이 있다. 순금제 세환이식 1쌍은 주환+유환+

9) 黑板勝美先生誕生百年記念會, 1976, 『黑板勝美先生遺文』 p12에 의하면 명활산서록에 연주식으로 배열하여 있는 3개고분 중 하나였는데 높이는 1090.908cm(6간)이며, 정남면에 트렌치 1개를 설정하여 조사하였는데 999.99cm(5간3척)까지 조사하였는데 저부에서 696.9cm(23척)되는 곳에 토류석을 확인하여 적석층임을 확인하였고, 적석 위는 점토에 가늘게 자른 벚짚을 섞어서 다졌음을 밝혔다.

10) 原田淑人, 「一.慶尙北道 慶州郡 -內東面普門里古墳發掘調査」, 『1918年度古蹟調査報告 第1冊-原田委員報告』

11) 이와 매우 유사한 자료가 황남대총 북분의 관 밖 석단위에서 발견되었는데 三枝鋒로 보고(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80, 『皇南大塚 北墳發掘調査報告書』, pp.102-103) 하였다.

12) 보고자는 은제 대금구로 인식하였으나 출토상태를 보면 三枝 철기의 주위에 교구와 띠끝 금구가 나란히 놓여 있는데 과장자의 왼쪽 팔과 다리쪽으로 흩어져 있어서 대에 붙는 금구임은 틀림없지만 삼엽문이 투조된 대금구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부류로 판단되어서 피장자의 허리부분에 장식되는 삼엽문투조 대금구와는 구별하는 의미에서 무구류로 일단 분류해 둔다. 이와 유사한 부장형태를 보이는 유구는 경산 임당E I 호분 1곽에서도 관찰된다. 곧 보고자는 삼엽형 과판과 요패식의 아래에 현수되는 투조문이 있는 숫돌머리장식을 대금구세트로 인식하고 있으나(嶺南大學校博物館・韓國土地公社, 2000, 『慶山 林堂地域 古墳群Ⅴ -造永E I 號墳- (本文)』, p98),

중간식(반구체 주관알 금환연접 2단 주관알 반구체)+수하식(심엽형 원형달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계금구는 관이며, 반구체의 상하에는 루금기법을 베풀었으며 수하식의 상단에는 연결금구가 들어가는 곳에 얇은 홈을 설치¹³⁾하고 있다. 크기는 장경 2.727cm(9분), 단경 2.5755cm(8분 5리)이다. 지환은 금·은제 각 1쌍인데 손가락 등표면으로 오는 곳이 능형으로 표출되었으며 가장자리에는 각선을 베푼 사를 붙였다. 지름 2.121cm(7분)이다. 은천 1쌍은 단면 방형으로 바깥쪽에 작은 둥근 구슬을 붙였는데 외경 8.0295cm(2촌 6분 5리), 내경 6.969cm(2촌 3분), 두께 0.4545cm(1분 5리)이다. 금장 동천 1쌍은 단면 부정 반원형으로 외측에 蛇腹狀 刻線을 베풀었으며, 외경 7.575cm(2촌 5분), 내경 6.666cm(2촌 2분)이다. 옥류는 유리옥 270점, 벽옥압제의 관옥 1점, 금모를 씌운 경옥(비취)제 곡옥 1점인데 금모의 가장자리에는 刻線을 붙였으며 각선의 상하를 관통하는 구멍을 뚫어 심엽(?)형 영락을 12개 달았다. 이 외에 피장자의 두부와 족부에서 금사가 발견되었는데 상세한 것은 알 수 없다.

무기류로 보고된 창신은 피장자의 두부 좌변에 위치하였는데 목재 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창신에 금박을 베푼 목재가 부착되어 있으며, 관의 오른 쪽에는 편평하고 세장한 철기가 있으며 오른쪽 발치에도 철기가 있으며 도자로 생각되는 것이 있고 무기도 있다. 대금구 주변에 산자형 철기가 있으며 금박이 산점해서 무언 가의 유물이 존재했음을 알려주나 상세한 것은 불명이다. 대금구는 은제교구 1점과 행엽형의 좌금구를 붙인 은환 2종 9개, 띠끝금구로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교구는 길이 16.968cm(5촌 6분)이며 21개의 병이 세 줄로 박혀 있다. 띠끝금구는 전장 24.24cm(8촌)으로 한쪽 끝 6.666cm(2촌 2분)되는 부분은 병 6개를 박아서 부착하도록 하였으며 반대 쪽에는 번첩으로 연결하였다. 심엽형 장식물 1은 5점으로 역심엽형의 아래쪽에 작은 환을 단접하여 은환을 수하시키는데 심엽형에는 3개의 병이 박혀 있다. 심엽형 길이는 2.424cm(8분)으로 교구의 폭과 정확히 일치하여 혁대에 부착시키는 것이 분명하며 다른 심엽형

심엽형대금구는 장식대도와 나란히 부장되어 있으며(嶺南大學校博物館·韓國土地公社, 2000, 『앞의 보고서(圖版)』, p25와 p27), 투조품은 피장자의 오른쪽 다리부분에 부장되어 있어서(嶺南大學校博物館·韓國土地公社, 2000, 『앞의 보고서(圖版)』, p22와 28)) 하나의 세트로 부장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심엽형 대금구와 요패식이 공반하고 있는 예는 고분 발굴에서 확인한 바 없다. 따라서 보문리고분의 심엽형 대금구도 피장자의 허리를 장식하는 장신구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13) 은령총의 피장자도 이와 동일한 구조의 귀걸이(國立博物館, 1948, 『慶州路西里 壺村塚과銀鈴塚』, 圖版 第48 銀鈴塚遺物 (2)裝身具(黃金귀걸이))를 착용하고 있는데, 보문리고분의 것과는 수하식과 달개의 가장자리에 루금을 베풀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장식물 2는 3점으로 심엽형 좌금의 중심에 소환을 꿰어 환각좌 등에 소환을 만들고 이 면에서 장착시키는 구조로 만들었는데 길이 2.5755cm(8분 5리)로 1보다 약간 크지만 대금구에 속한다¹⁴⁾. 이외에 장식물 2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고리 1점이 더 있다.

〈주 부장군 출토유물〉

우선 용기류인데 동완은 높이 8.787cm(2촌9분), 지름18.18cm(6촌)로 복부에 2단으로 꺾대문을 남기고 있다. 장경호는 3점으로 3호는 높이28.785cm(9.5촌) 북경24.24cm(8촌)이며, 6호는 높이 27.573cm(9촌1분), 북경23.028cm(7촌 6분)이며 경부의 상방에 파상문이 돌아간다. 14호는 높이 25.143cm(8촌3분), 북경19.089cm(6촌 3분)이며 경부의 2단에는 파상문을 새겼고, 대각에는 5개 투창을 1단으로 뚫었다. 단경호 6점은 형태상으로 거의 유사한데, 높이 12.12cm(4촌)전후, 북경 15.15cm(5촌)내외이다. 완은 1점으로 투창이 있는 단각을 손잡이로 하였으며 높이 10.605cm(3촌 5분), 구경 18.786cm(6촌 2분)로 보고되었는데 뚜껑으로 사용되었는지도 모르겠다. 개는 1점으로 높이 7.575cm(2촌 5분), 구경16.665cm(5촌 5분)이다. 개편은 1점으로 표형¹⁵⁾의 손잡이를 가지며 동심원과 삼각 집선문을 표현하였다. 철제 술 2점은 전을 가지고 있는 데서 釭로 추정하였으며 높이 30.3cm(1자), 북경 30.3cm(1자)인데 자세한 것은 불명이다.

마구류로는 안교의 복륜편, 등자의 윤부와 병부편, 안장 부속품으로 원형 좌금구가 달린 교구가 대 3점, 소 3점이 출토되었으며, 혁대금구는 심엽형 아래쪽을 뚫어 원환을 현수한 2점이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심엽형 장식물 2와 같은 구조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 말의 띠를 장식하는 반구형 등의 부품이 있으나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2. 보문리부부총¹⁶⁾

보문리부부총은 북동-남서를 향하여 두 개의 원분이 합쳐져서 표형을 이루는 무덤인데 묘곽은 두 봉분으로 추정되는 사이에 1개의 곽을 설치하고 서쪽의 원분 정점을 약간 비껴나서 1기를 설치하였다. 이 가운데서 동쪽에 위치한 것은 적석목곽의 내부구

14) 이 두 종류의 심엽형 대금구는 가장자리에 만들어져 있는 능각의 유무나 연결금구의 부착방법에서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구류의 설명에도 후자와 유사한 자료가 있는 점도 참고로 해 둘 만하다.

15) 표형의 손잡이가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완총의 손잡이와 같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16) 표형분으로 제도되어 있는데 북동쪽의 것을 동곽, 서남쪽의 것을 서곽으로 명명해 두기로 한다.

조를 가진 것으로 판명되었고(동곽), 서쪽에 있는 것은 횡혈식 석실(서곽)로 무덤의 입구를 북동쪽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동곽의 구조와 출토유물〉

동곽은 앞서 말했듯이 적석목곽의 내부구조를 가진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암반을 파 내려가기 약 136.35cm(4척5촌), 세로 545.4cm(18척), 가로 363.6cm(12척)의 수혈을 만들고 바닥은 주먹정도의 천석으로 약 39.39-42.42cm(1척3-4촌)을 다지고 위에 10.605cm(3촌5분)정도의 두께로 자갈을 깔고 목관을 안치하였으며, 여러 종류의 부장품을 묻고 다시 천석을 덮고 점토를 15.15cm(5촌)정도 바르고 위를 흙으로 봉한 것이다.

유해부에서 발견된 순금이식, 은천, 동천, 지륜3, 구옥, 소옥, 은세공 소도와 지륜, 목관 흔적, 斧에 대해서는 부장위치가 기록¹⁷⁾되어 있지만 도판으로 제시한 대도, 도, 도자, 대소의 방울, 비경관, 행엽, 여러 종류의 금동교구의 출토위치는 분명하지 않다. 이식의 출토위치에서 판단하면 두향은 남동쪽이다. 머리 말에는 도기를 부장하는 일정한 구역이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두부에 주 부장군을 마련한 묘곽형식¹⁸⁾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유해부 출토유물

〈장신구〉

순금이식은 태환이식으로 주환+유환+중간식+수하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간식은 각목을 베편 소금환 여러 개를 붙인 구체와 반구체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아래-위로 연결하였는데 구체의 중앙에는 각목을 한 금사를 옆으로 붙이고 세로로 긴 십엽형 금판을 구체로 된 상하 중간식에 매달았으며, 십엽형 수하식의 가장자리와 중앙에는 각목대를 베풀었는데 이러한 장식은 영락에도 동일하게 베풀었다.

은천(1139)은 2점으로 한 점은 완형에 가까운데 한 점은 끝이 오무려져 있다. 표면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각목의 효과를 내었다. 은지환(1138)은 10점으로 은판을 사용하였으나 상세한 제작기법은 알 수 없다. 소옥(1137)은 16점인데 감벽색의 유리제 옥으로 만들었으며, 곡옥(1136)은 비취색으로 삼국시대의 일반적인 곡옥보다는 퇴화된 느낌을 준다.

17) 〈1126 보문리부부총부묘광평면도〉

18) 崔秉鉉, 1980, 「古新羅 積石木槨墳 研究(上) -墓型과 그 性格을 중심으로-」, 『韓國史研究』31.

〈철기류〉

도끼는 길이 16.665cm(5촌5분)의 것(1149)과 16.362cm(5촌4분)의 것(1150) 2점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몸체의 세로로 3-4줄의 돌대를 가지는데 공부는 자세하지 않다. 그림 상으로 보아서 주조품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목관부식으로 표시된 북동쪽에 인접하여 은세공 소도가 작은 동그라미로 표현되어 있으나 크기라든지 형태는 알 수 없고 부장 처가 불분명한 무기류 가운데 도 1143에 은제로 보이는 칼집이 부착되어 있어서 같은 유물이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삼환루라든지 상원하방내 삼엽문의 병두라면 유물수습 때에 명기하지 않았을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 도(1145)는 2개체 분인데 10.605cm(3촌5분), 8.484cm(2촌8분), 5.454cm(1촌8분), 3.03cm(1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27.573cm정도이며 칼집의 일부가 붙어 있는 3.333cm(1촌1분)의 것이 한 점 더 있다.

② 주 부장군

도기는 10여점이 출토된 것으로 보이지만¹⁹⁾, 2점이 온전한 사진으로 소개되었는데 유개고배(1158)는 전체적으로 반구형을 띠는 배신과 얇은 뚜껑받이 턱을 가지고 있으며 뚜껑의 손잡이는 사다리꼴이며 투창을 가지고 있지 않다. 뚜껑손잡이 주변에는 2중으로 구획을 하고 안 쪽에 八꼴 안에 사선문을 넣었으며 바깥쪽에 원점 반원문을 돌렸다. 고배의 대각에는 중앙에 단면이 둥근 돌대를 이중으로 돌려 상하단으로 구별하였으며 각단은 약간 위로 반전하다가 아래쪽으로 경사져서 지면과 만난다. 돌대의 상하단에는 방형의 투창²⁰⁾을 엇갈리게 뚫었다. 높이는 16.665cm(5촌 5분)이다. 다른 한 점은 대부장경호(1159)인데 경부의 일부를 결실하였으며, 남아 있는 경부는 두 줄의 둥근 돌대로 구분되어 있는데 상하단에 八안에 사선문을 배치하고 꼭지점에 원점이 있는 원문을 넣었다. 경부와 동체의 접합부분에는 한 줄의 음각선을 돌렸으며 어깨에도 한 줄의 음각선이 돌아 가는데, 이 사이에 사격자문을 시문하였다. 대각은 중앙에 2줄의 아래로 약간 처진 돌대를 경계로 방형에 가까운 투창을 상하 엇갈리게 배치하였다. 현재 높이는 32.421cm(1척 7분)이다.

도자(1146-1148)는 3개로 6.06cm(2촌), 11.51cm(3촌 8분), 9.09cm(3촌)의 것이 있으

19) 朝鮮總督府, 1916, 『朝鮮古蹟圖譜』 3, 1132 普門里夫婦塚夫墓陶器出土狀態

20) 출토상태를 보면 고배 가운데는 원형의 투창을 뚫은 대각도 존재(朝鮮總督府, 1916, 『朝鮮古蹟圖譜』 3, 1132 普門里夫婦塚夫墓陶器出土狀態에서 호미자루 왼쪽)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것이 원공투창이라면 유사한 예는 호우총에서 발견된 예(國立博物館, 1948, 『慶州路西里 壺冢과銀鈴塚』, 도판 제27 호우총유물 (1)토기의 오른쪽 2점)가 있다.

며 9.09cm(3촌)의 것은 포로 싸인 흔적을 남기고 있는데 주 부장군의 경계지점에서 발견된 소도 포부착이라는 주기가 달린 자료가 이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③ 부장처 불명²¹⁾(주 부장군?)

〈대도류〉

대도(1140)는 병농금구와 자도를 붙인 상원하방내 삼엽문대도인데 손잡이 부분이 부러져서 두 토막으로 보고되어 있다. 병두 부분은 10.605cm(3촌 5분)이고 신부는 59.388cm(1척 9촌 6분)이다. 현재 남아 있는 길이는 69.993으로 거의 70cm에 가까워서 보고자의 견해대로 대도에 속한다.

도(1143)는 삼환루대도로 병두부와 신부가 떨어져 있고 칼집의 일부를 가지고 있으며 병부 길이는 13.938cm(4촌 6분), 신부의 현재길이는 17.574cm(5촌 8분)이다. 현재 길이 31.512cm로 복원된다.

〈마구류〉

방울(1151-1154)은 4점인데 두 점은 크고 두 점은 작다. 대형은 중앙에 돌대를 돌려 상하 구별을 하였으며, 아래쪽 상단에 둥근 구멍을 내어서 아래로 직선으로 찢으며 위 쪽에는 현수공을 달았다. 작은 것은 완형품의 경우 높이 3.03cm(1촌)이며 형태는 대형과 유사하지만 구멍이 열쇠구멍꼴로 되어 있으며 다른 한 점은 하단부를 결실하였다.

비경관(1155)은 1/2정도를 결실하였는데 현수공 아래에 삼각형의 장식이 남아 있고 가장자리에는 테를 두르고 리벨리로 결합하였는데 연주상의 장식을 하고 있다.

행엽(1156)은 현수부와 가장자리의 1/2을 결실하여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테두리에는 연주상으로 못을 박은 것으로 추정된다.

〈금동금구류〉

여러 종류의 금동금구 및 청동금구(1157)는 사진 1매로 소개되어 있는데 금동관들의 용도는 알 수 없지만 원 쪽 상단의 두 번째 자료는 넓은 관과 좁은 관을 결합시킨 양상을 하고 있어서 마치 금동관의 대륜과 입식이 결합된 것과 같은 꼴을 하고 있으며 일부는 입식의 옆가지와 같은 좁은 금동관과 이른바 녹각상을 보이는 금동편도 존재하

21) 적석목곽묘인 보문리동곽에서 출토된 대부분의 자료는 부장처가 명기되지 않은 자료들 이어서 당시 그려진 도면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 이들이 혹시 주 부장군에서 출토된 것은 아닌가 한다.

고 있어서 대체로는 금동관의 편들로 추정²²⁾되며, 일부는 안교의 투조관 가운데 한 부분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우측 상단에는 2개의 세장한 금동관을 +형으로 교차시켰는데 관의 아래쪽 가장자리는 밖으로 한 단 접어서 다른 곳에 고정시키는 못같은 것이 박혀 있어서 금동관의 내부에 장식되는 것²³⁾과 유사하다.

아래쪽에 있는 교구는 C꼴의 교구와 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구의 한 쪽 끝이 벌어져 있다. 그 아래쪽의 금구는 사를 꼬아서 〇꼴로 구부렸는데 위쪽으로 용기한 작은 〇꼴이 얹혀져 있고 양쪽 끝에는 못구멍을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 점은 봉처럼 생겼는데 1/3지점에 꺾여 있고 한 쪽 끝에 못구멍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왼쪽 하단에 있는 것은 작은 환인데 장식물이 달려 있는 것 같다.

〈서곽의 구조와 출토유물〉

다음으로 표형분의 서쪽 봉토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었던 횡혈식석실은 장축을 북서-남동으로 향하고 있으며 남서장벽은 길게 밖으로 축조하여 연도의 벽으로 활용하였으나 북동장벽은 연도와 현실의 경계점에서 안으로 꺾여 짧은 앞벽을 한 개의 돌을 24.24cm(0.8척)로 만들고 연도벽 쪽으로 2개의 작은 돌을 놓아서 폐색석을 놓을 수 있는 벽을 만든 후 커다란 판석 1개를 이용하여 장벽에서 약간 벌어지도록 133.32cm(4.0척)의 묘도를 만들었다. 벽석의 뒤에는 벽석에 사용한 석재보다는 약간 작은 돌과 자갈을 이용하여 틈새를 막으면서 벽석을 묘광쪽에서 보강하였다. 천정에는 3개의 판석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바닥의 크기는 247.248×134.532cm(8.16×4.44척)이며, 석실 내부의 높이는 바닥에서 157.257cm(5.19척)이다.

내부에는 북동장벽에 붙여서 235.128cm×90.9×33.33cm(7.76×3.0×1.1척) 크기의 관대를 설치하였고, 현실 입구쪽 연도의 바닥너비는 110.292cm(3.64척)이며 단벽에서 18.18cm연도쪽으로 떨어져서 괴석 3개를 바닥에 놓고 사이에는 자갈을 채우면서 입구를 막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관대 위에서는 교란된 인골과 관고리 2점이 북장벽쪽에 동-서로 160cm정도 떨어져

22) 금동관 가운데 대륜과 입석이 붙은 꼴을 하고 있는 것은 가장자리에 두 줄의 원점문을 베꼈고 그 사이에 세 줄의 둥근 용기문을 지그재그로 타출한 것으로 보인다. 세장방향으로 보이는 관의 가장자리에도 원점문이 두줄씩 시문된 것이 있으며 일부는 녹색형의 입식으로 보이는 자료도 있어서 이들의 대부분은 금동관의 편으로 판단한다.

23) 이와 유사한 형태를 가진 관으로는 서봉총 금관, 이동신옹장 금동관, 김형익소장품 등이 있어서 금동관의 장식물로 판단해 둔다.

梅原末治, 1967, 「두 개의 金銅冠」, 『考古美術』 8-2(통권79호)

윤철규, 1997, 9. 20, 「국보급 가야金銅冠 3점 日서 발견」, 중앙일보 10134호

서 나란히 놓여 있었으며 동 단벽쪽 관대의 중앙에 1점이 놓여 있다. 옥은 북쪽 장벽 아래와 관대의 남단, 관대의 중앙²⁴⁾, 4군데 흩어져서 출토되었는데, 동쪽에서 출토된 것은 북장벽쪽과 남장벽쪽의 것이 좌우 대칭되는 지점에 부장되었으며, 천은 관대의 북쪽으로 약간 치우친 곳에 부장되어 있었다. 철편은 북장벽쪽 관대의 동쪽과 관대의 남쪽 일정한 위치에 놓여 있었으나 성격은 알 수 없는데 관못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관대가 설치되지 않은 남서장벽 아래에는 관고리 1점, 개, 단경호가 놓여 있었으며, 순금제 굵은 귀걸이 1쌍도 여기서 출토되었다.

① 관대²⁵⁾ 위

관대 위에는 인골들이 흩어져 있었으나 몇 개체 분인지 또 머리방향이 어떠한 지는 전혀 알 수 없다. 관고리(1161)는 철제로 된 3점인데 지름 9.696cm(3촌 2분)이다. 한 점은 원형의 좌금구가 부착된 것이나 2/3를 결실되었고, 나머지 2점은 좌금구를 결실하였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원환에 나무에 고정시킬 수 있는 못부분만이 연결된 형태로 남아 있다.

옥(1162)은 9점인데 5점은 모서리를 가지고 있어서 수정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되며 4점은 주판알 모양 1점, 원통형 2점, 구형 1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은 같은 재질인 것 같다.

천은 2점으로 금동제(1164) 1점과 은제(1165) 1점으로 표면에 선명한 각목대를 돌렸는데 금동제품이 좀 더 너비가 넓고 각목의 표현이 날카롭게 표현되었다.

철제 못(1160)은 길이 12.12~7.575cm(4촌~2촌5분)로 9점이 소개되어 있는데 못대거리가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없는 것도 몇 점 있다.

② 남서장벽 아래

순금제 가는 이식(1163)은 주환+유환+중간식+수하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을 서로 연결하는 연결금구는 한 쪽이 넓은 금판으로 만들었다. 중간식은 눈금을 새긴 금사를 이용하여 만든 환을 연접하여 구체와 반구체로 표출하였는데 구체와 반구체 사이에는 6줄의 각목환을 연접하였으며 구체와 반구체에 모두 세로로 긴 심엽형 영락 37개

24) 주기에 의하면 절자옥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주판알 모양의 것이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사진으로는 9점을 함께 떼어서 소개하고 있다.

25) 보분리부부총의 서략 현실의 설명에서는 관에 부착하는 관고리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시상보다는 관대로 인식해 두기로 한다.

를 달았는데 영락의 중앙에는 세로로 각목대를 부착하였고 가장자리에도 같은 기법이 다. 수하식은 심엽형판의 중앙에 각목대 두 개를 접합하고 가장자리에도 각목대를 접착하였다. 태환과 유환에도 누금세공법을 사용하였는데 태환에는 금사를 이용하여 귀갑문으로 구획하였는데 변은 구갑문의 결절점에는 원을 배치하였고 직선으로 표출한 금사의 가장자리에는 두 줄의 누금세공을 원 가장자리에는 한줄의 누금세공을 하였다. 귀갑문의 안에도 원과 심엽형으로 금사를 구부려 붙여서 원문, 3엽문, 4엽문을 뿔질기법으로 붙였는데 금사의 가장자리에는 누금세공을 하였다. 그리고 주환과 중간식을 연결하는 유환에도 금사를 이용하여 3엽문으로 누금장식을 했다.

뚜껑(개)은 3점으로 1점은 단경호에 덮힌 상태(1166)로 소개되었고, 1점(1169)은 대각과 함께 소개되었으며 한 점(1167)은 따로 소개되고 있다. 우선 1166은 구형 배신을 가지며 뚜껑받이턱은 짧게 돌출하였으며 손잡이는 위가 약간 좁은 사다리꼴인데 개신 표면에는 八안에 사선문을 시문하였으며 그 아래에 원점 반원문을 시문하였다. 1167의 개에도 같은 문양이 시문되어 있다. 1169의 개는 남자부덤에서 출토된 손잡이와 같은 꼴을 하고 있는데 시문상태는 확인할 수 없다.

단경호(1166)는 외반한 구연을 가지며 말각환저인데 최대동경은 윗부분에 있으며 구연끝의 바깥에는 갈퀴를 아래로 처지게 부가하였다.

3. 금환총²⁶⁾

금환총은 야석²⁷⁾을 쌓아서 안쪽으로 약간 경사지게 수광식의 벽을 만들었는데, 천정석은 없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바닥에는 측벽 한 단 정도까지는 자갈을 깔고, 관을 넣고 천석으로 덮고 위에 점토를 바르고 흙으로 봉한 구조인데 내부에서 금환 1쌍을 출토하였다. 장벽의 한 쪽은 뒷면에 벽석보다는 작은 돌을 정교하게 쌓아서 보강하였으며 그 밖으로 점토를 바른 것으로 제도되었는데 벽석위로도 점토가 발라졌을 것으로 보이지만 개석은 표현되어 있지 않다. 금환(1172)은 금관을 입힌 것처럼 접합점의 반대편에 약간 주름이 잡힌 곳이 있으며 정교하게 구부려서 맞물리게 하였다.

26) 朝鮮總督府, 1916, 『朝鮮古蹟圖譜』 3, 1170-1172

朝鮮總督府, 1916, 『朝鮮古蹟圖譜解説』 3

27) 야석으로 표현하였는데 도면으로 볼 때 천석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완총²⁸⁾

〈구조와 출토상태〉

완총은 명활산 서록 받가운데 위치하는데 봉토는 거의 삭평되었으며 내부는 활석으로 험장한 석곽을 길이 290.88×너비 51.5-69.69×높이 62.115cm(길이9.6×너비1.7-2.3×높이2.05척) 크기로 만들었는데, 장축은 거의 남-북을 향하고 있으며 석곽의 중앙(입구에서 4.6척 되는 곳)에서는 폭이 좁아지도록 고안하였다. 단벽의 자른면은 입구쪽에서는 상하 6.06cm(0.2척)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장방형이며 벽석뒤에 작은 돌을 끼워 넣어 벽석의 평형을 유지하도록 한 점은 금환총과 같다. 부장품은 북쪽입구에서 248.46cm(8.2척)되는 곳에 매납하였다. 개석은 가로 3.5×두께 1.1척 크기의 것을 덮었는데 개석의 좌우와 위에는 벽석을 보강한 돌과 거의 같은 크기의 돌을 한겹 덮고 다시 작은 돌로 24.24cm(0.8척)정도 높이로 봉한 후, 점토를 이용하여 9.09cm(0.3척)정도 바르고 90.9cm(3.0척)의 봉토를 형성하였다. 내부에는 자갈을 18.18cm(0.6척)정도로 깔고 그 위에 다시 12.12cm(0.4척)정도의 퇴적물이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출토유물〉

대부완은 2점으로 하나(1179)는 완형으로 뚜껑을 갖추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1180) 대와 완의 저부 일부(1180)만 남아 있다. 뚜껑(1179,1181)은 복발을 한 형태로 두점이 동일한데 반구형이며 개선에 2줄의 음각선으로 세군데 돌렸으며 뚜껑받이턱은 안턱고임식으로 처리한 것 같다. 완의 몸체는 구연부의 형태는 알 수 없으나 동체는 약간 외만하며 뚜껑보다는 간격이 넓은 2줄의 음각선을 세군데 돌렸으며 대각의 끝은 위로 말렸는데 작은 (장)방형 투창이 1단으로 뚫려 있다.

파수부 호는 3점인데 모두 말각환저이며 동최대경은 중앙에 있는데 파수 모두 1개만 보이도록 촬영하여서 파수의 수는 알 수 없다. 1182의 파수는 끝이 뾰족한 돌기상이며 파수 아래에 1줄의 음각선을 돌렸다. 1183의 파수는 끝을 수직으로 자른 짧은 봉상인데 아래쪽에 두줄의 음각선을 돌렸다. 1184의 파수는 시계바늘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점토틈를 감아서 고사리새싹의 끝이 둥글게 말린 모양을 하였는데 파수의 상하에 세줄의 3줄의 음각선을 돌렸다.

단경호(1185)는 구연에 각을 가진 형태의 말각환저로 어깨에 2줄의 음각선을 돌렸

28) 朝鮮總督府, 1916, 『朝鮮古蹟圖譜』 3, 1173-1185

朝鮮總督府, 1916, 『朝鮮古蹟圖譜解説』 3

으며 동체에는 희미한 타날문이 관찰된다.

5. 호수불명 석실묘와 출토유물들

이 외에 보문리고분의 현실에서 발견된 회를 바른 枕·기와²⁹⁾와 보문리발견으로만 알려진 은제 대금구³⁰⁾가 있는데 모두 매장주체부의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현실이라는 표현에서 형형식식실로 인식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발견된 기와는 암키와 1점, 수키와 1점, 침 2점인데 암키와(1216)는 윗지름 30.3cm(1자), 아래지름 323.421cm(1자7분), 길이 31.815cm(1자 5분)이며 凸面에는 8치구의 시문구를 세로로 3-4단으로 둘러서 그어낸 선조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凹面의 무늬는 확인할 수 없다. 수키와(1217)는 윗지름 9.393cm(3촌 1분), 아래지름 16.665cm(5촌 5분), 길이 30.603cm(1척 1분)으로 요면에는 방격문을 시문하였다. 침은(1214-1215) 2점으로 재질을 알 수 없는데 표면에는 회를 바른 것으로 1점은 두침, 한 점은 죽침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보문리출토 교구는 정확한 유구를 알 수 없는데, 교구를 단 방형판 1점과 장방형판 1점(1235), 둥근 고리가 달린 장방형 과판 1점과 띠끝금구 1점(1236)이 알려져 있다. 교구의 침에는 타원형의 금구가 끼워져 있다.

II. 이식에서 본 보문리부부총 피장자의 성격

경주분지의 동북쪽 3927.27m에 위치한 해발 252m의 명활산에는 남쪽 구릉을 따라 해발 130-260m의 능선을 따라 토성이 축조되어 있고, 동·서·북쪽의 해발 252m 구릉에는 석성을 마련하였는데 석성이 토성을 허물기도 하는 점³¹⁾을 고려하면 토성과 석성은 일정한 시기차를 반영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명활산 석성의 축조 상한연대는 475년, 부분적 수축의 연대는 음력 551년 11월 15일-552년 12월20일(양력 551년 12월 28일-552년 1월 31일)로 추정³²⁾되고 있다.

29) 朝鮮總督府, 1914, 『朝鮮古蹟圖譜解説』 3, 181 普門里古墳玄室內發見漆篋枕及瓦 [1214-1217]

朝鮮總督府, 1916, 『朝鮮古蹟圖譜』 3, 1214-1217

30) 朝鮮總督府, 1914, 『朝鮮古蹟圖譜解説』 3, 196 普門里發見鈐具 [1235-1236]

朝鮮總督府, 1916, 『朝鮮古蹟圖譜』 3, 1235-1236

31) 朴方龍, 1998.6, 『新羅 都城 研究』, 東亞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p13.

32) 金昌鎬, 1999.12, 「慶州의 新羅 山城에 관한 몇가지 의문」, 『科技考古研究』 5, p34.

이 산성의 남쪽으로는 보문동고분군2-4가 서주하는 각 구릉에 분포하고 있으며, 산성 서쪽의 서주하는 남서쪽으로 뻗은 몇 개의 구릉에는 보문동고분군1이 위치³³⁾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 고분군 2-4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이 알려져 있지는 않고 있으며 고분군1에 대해서는 1915년부터 부분적인 조사가 진행되어 약간의 지견을 더할 수 있는 정도였다.

우선 보문리부부총은 표형분으로 보고하면서 부부묘라는 명칭부여에서 피장자를 부부관계로 인식시켜 준 이래 평지의 표형분에서도 출토유물의 성격에 의하여 남자와 여자라는 친연성을 부부로 추론³⁴⁾하면서 표형분은 부부묘라는 등식으로 치환되고 있으며 출토유물 상으로는 적석목곽묘가 남자묘로 선축이고 횡혈식 석실묘가 여자묘로 추가장일 것으로 인식³⁵⁾하였다.

그런데 표형분의 경우 경주의 평지에서는 대체로 1차장을 기본으로 하는 적석목곽분끼리의 추가장인 반면, 보문리에 있는 이른바 부부총은 외형상 표형을 떨지라도 내부구조는 추가장이 가능한 횡혈식석실과 추가장이 불가능한 적석목곽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표형분이 부부묘라는 논리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를 좀 더 구체화 시켜보기 위하여 출토유물을 정리하면 <表1>과 같다.

<表 1> 보문리 동·서곽의 출토유물

부둣구조	유해부 유물(관대 위)	주 부장군 유물	출토위치 불명(관대 아래)
적석목곽묘	태환이식, 은천, 동천, 지륜3, 구옥, 소옥, 은세공소도와 지륜, 목관흔적, 부	유개고배, 대부장경호, 도자	상원하방내삼엽문태도, 삼환루도, 대소의 방울, 비경관, 행엽, 여러 종류의 금동관과 교구
횡혈식석실	인골, 관고리 3점, 옥, 금동·은제 천, 철정		관고리 1점, 개, 단경호, 순금제 태환 귀걸이

그런데 적석목곽묘에서 출토된 은세공 소도는 피장자의 왼쪽 목부분 목관부식 흔적이 표시된 묘곽 안에서 출토되었고, 포가 붙어 있는 소도는 토기 발견 구역에서 출토되었다. <表1>에서 보면 삼엽문태도와 삼환루도, 도로 소개되어 있는 도류는 30-70cm 전후의 길이로 환산될 수 있는데, 은세공 소도가 어느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도로 보고된 자료 가운데 1점일 가능성이 높다면 상원하방내 삼엽문태도나 삼환루 도는 유해

33) 國立慶州博物館・慶州市, 1992, 「慶州遺蹟地圖 -1:10,000」, p.39 慶州地域21과 32 참조

34) 齋藤忠 1937.5, 「新羅の瓢形墳」, 『考古學雜誌』 27-5.

35) 崔秉鉉, 1992, 「新羅古墳研究」, 一志社, pp.164-165.

부에서 출토한 자료가 아님은 분명하다. 그리고 머리부분에서는 금제 태환이식이 1쌍 출토되었다.

이러한 부장상태를 고려하면서 보문리의 이른바 부부총을 보면 적석목곽분의 피장자에 대한 인식에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곧 고분의 피장자의 성을 구분하는 방법은 이식의 형태를 제 1차적 기준으로 적용시키고, 다음으로 유해부에 존재하는 대도의 유무를 주목하였고, 세번째로는 대형 요패식의 작장위치를 기준³⁶⁾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보문리부부총의 동곽에 적용시킬 수 있는 기준은 이식과 상원하방내 삼엽문 대도인데 삼엽문대도는 부장위치가 분명하지 않고 태환이식만 정상적인 위치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보문리부부총 동곽의 피장자는 여성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런데 남은 문제는 피장자를 남자로 본 근거는 상원하방내 삼엽문대도의 부장이다. 이러한 대도는 다양한 형태로 부장되지만³⁷⁾ 앞서 언급하였듯이 장식대도의 부장위치를 주 부장군으로 볼 때, 경주고분에서는 대체로 유해부에서 피장자의 허리 왼쪽에서 발견되는 고분들이 많지만 여러 종류의 대도를 부장하는 경우에는 대도의 종류에 따라서 부장의 위치가 달라서 지방고분과 비교하면 신라사회의 계층적 문제를 안고 있음³⁸⁾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대도부장 양상을 보이는 무덤은 시기적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황남대총 북분인데 이 무덤은 장축을 거의 동-서로 둔 단독곽식의 묘곽으로 곽내의 동쪽에 주부장군을 두고 서쪽으로 동침한 시신을 넣은 관을 안치한 구조인데, 이 무덤의 주부장군에는 목곽으로 만든 수장상자가 있었는데, 이 상자의 남단에는 상원하방내 삼엽문대도 3점이 환두부를 동으로 하고 놓여 있었으며, 동변에는 환두부를 남으로 한 상원하방내 삼엽문대도 3점이 철정 위에 얹혀 있었고 유해부에서는 장신구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유물도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에 남분에서는 수장상자의 동변에 삼환루대도 6점, 상원하방내 삼엽문대도 3점 모두 9점이었는데 환두부는 남서쪽으로 약간 틀어진 상태로 출토되었다. 관내에서는 세환식이식과 피장자의 왼쪽 허리쪽에 삼루환루대도 1점을 부장하였다. 이상에서 보면 장식대도의 부장은 유해부에서 발견된 이식의 종류와 관계없이 주 부장군에 부장되는

36) 고분 피장자의 성별판명 기준에 대한 정리는 金善珠, 1994, 「新羅 積石木槨墳 被葬者の 性別 問題 檢討」,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學大學院 碩士學位論文, pp.4-10에 잘 정리되어있다.

37) 李柱憲, 1997, 「三國時代 嶺南地方 大刀의 副葬樣相에 대한 研究」, 慶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38) 朴普鉉, 1987, 「樹枝形立華飾冠의 系統」, 『嶺南考古學』 4, pp.24-27.

예가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보문리부부총의 동곽인 적석목곽분에 묻힌 피장자는 황남대총 북분과 매우 유사한 부장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현재까지의 논의대로라면 여성으로 판단해도 문제가 없게 된다.

다음으로 보문리부부총 서곽은 내부구조가 횡혈식석실인데 관대의 폭이 90cm여서 최소한 두 명정도는 시간을 두고 추가장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으며, 천과 옥류를 중심으로 한 장신구를 주로 부장하고 있으며, 1쌍의 태환식이식은 무덤 바닥에서 정연하게 출토되었는데, 이 이식이 관대에서 굴러 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남아 있었던 인골과의 관련성을 고려해야 되지만 관대에는 최소한 여성 1명이 묻혔을 것으로 판단되며 한 명에 대해서는 언급할 자료가 없다.

이상에서 태환이식을 착용한 피장자를 지금까지의 성관별 기준으로 적용하여 보면 보문리부부총은 명칭부여 당시에 인식되고 있던 피장자의 성격과는 매우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곧 적석목곽분인 여성의 무덤이 먼저 만들어지고 이와 관련되는 어떤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을 매장하기 위하여 추가장을 고려한 횡혈식석실로 무덤을 축조하였다는 점이다. 여성의 무덤에 묘역을 달리하여 여성을 추가장하는 예로는 미추왕릉 C지구 3호분의 2·3곽³⁹⁾이 있다.

따라서 보문리부부총은 부부묘로 인식하기에는 자료의 결락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순히 친연관계를 알 수 없는 여성의 무덤에 어떤 여성을 추가장한 추가장묘로 인식해야 될 것 같다. 다만 횡혈식석실묘에 남성을 추가장하였는 지는 반출유물의 종류라든지 부장상태에 대한 기록들이 없어서 알 수 없다.

이와는 반대로 세환이식을 부장한 무덤을 살펴보기로 하자. 부부묘로 인식하고 있는 140호분(호우총과 은령총)을 들 수 있는데, 이 무덤은 노서리 215번지 적석총의 적석부 동단 위로 140호분의 호석이 돌아가는 것을 확인한 바⁴⁰⁾ 있기 때문에, 해방후 노서리 213번지의 140호분을 조사대상으로 선정⁴¹⁾하여 발굴후에는 호석일부를 원형으로 복원하면서 표형분으로 판단하여 피장자의 성격을 호우총은 남자, 은령총은 여자로 인식하면서 두 무덤 피장자의 관계는 부부로 추정⁴²⁾하였는데, 패도가 없고 방추차가 있는 점을 고려한 여성 피장자로 추정⁴³⁾되면서 통설로 받아 들이고 있는 것⁴⁴⁾ 같다.

39) 朴普鉉, 1990, 「積石木槨墓에 보이는 多葬墓」, 『大丘史學』 39, p26.

40) 有光敎一, 2000, 「私の朝鮮考古學調査記録」, 『高麗美術館 館報』 46.

41) 國立博物館, 1948, 『慶州路西里 壺軒塚과 銀鈴塚』, pp.2-3.

42) 國立博物館, 1948, 『앞의 보고서』, p65.

43) 崔秉鉉, 1980, 「앞의 논문」, 『韓國史研究』 31, p52.

44) 金善珠, 1995, 『新羅 積石木槨墳 被葬者の 性別 問題 檢討』,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學大學院

유광교일의 기억과 140호의 발굴기록을 토대로 하면 서쪽부분에 호석이 일부 확인된 것은 140호분의 호우총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중복현상을 고려하면 이들은 다장묘의 집단묘 1식으로 분류⁴⁵⁾될 수 있는데, 이른바 215번지고분이 축조된 후 호우총과 은령총이 만들어졌지만 호우총과 은령총의 두 묘곽의 선후관계는 알 수 없으며 호석의 중복관계에 대해서도 불분명⁴⁶⁾한 점이 많긴 하지만 반드시 호석이 정원이 아니더라도 일부 확인된 호석이 정확하다면 중복되었을 가능성은 높은 것 같다.

그런데 215번지 무덤의 주인공은 태환식 이식을 착용하고 있지만 140호분의 내부구조에서 밝혀진 단독곽식인 호우·은령총 피장자는 모두 세환이식을 착용하고 있어서 현재까지의 성관별 기준으로 보면 모두 남자⁴⁷⁾이며, 이들 무덤들의 축조는 우선 먼저 만들어진 여자의 무덤에 2명의 남자무덤이 순차적으로 붙여져서 매장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노서리 215번지고분과 호우총이 남과 여라는 표형분의 형태를 취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은령총은 또 다른 단독곽식의 원분이 인접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보면 세환이식을 부장한 표형분⁴⁸⁾에서도 보문리부부총처럼 같은 성끼리의 묘역공유 현상이 보는 무덤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보문리집단의 성격

보문리고분의 적석목곽분 가운데 原田淑人이 조사한 1기는 세환이식으로 보면 은령총이 만들어지고 있던 시기부터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부부총의 동곽은 고배 가운데

碩士學位論文.

45) 崔秉鉉, 1980, 「古新羅 積石木槨墳 研究(上)-墓型和 그 性格을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31.

46) 崔秉鉉, 1980, 「앞의 논문」, 韓國史研究, 31, pp.51-52

47) 은령총의 피장자를 여자로 보는 이유는 방추차와 허리부분에 부장되는 대도를 기준으로 한 것 같다. 호우총의 피장자는 어깨 왼쪽에 장식대도를 부장하고 있지만 은령총 피장자는 대도를 부장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마구류는 공통적으로 부장하고 있다. 대금구를 기본으로 부장하는 세환이식의 착용자에 보이는 이러한 대도의 유무가 신라의 계층구조에서 시사하는 것은 문부의 차이로 보아도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곧 대금구를 부장하면서 장식대도를 부장하지 않는 군과 대금구와 장식대도를 부장하는 군, 장식대도만 부장하는 군으로의 분화를 보여 주고 있는 무덤이 은령총으로 판단된다.

48) 호우총의 경우 현재까지의 편년관으로 한다면 6세기중엽대에 비정할 수 있겠는데 보문리 부부총보다는 약간 빠른 시기일 것이다. 그리고 호우총과 은령총은 표형묘가 아니고 노서리 215번지고분과 호우총이나 은령총이 표형분일 가능성이 훨씬 높으며 피장자는 남녀의 관계로 상징할 수 있겠다.

데 호우총의 원형투창을 가진 것과 동일한 것이 존재하고 있어서 비슷한 시기로 추정할 수 있으며, 태환이식으로 보면 황남동151호분에서 발견된 시상북단의 태환이식⁴⁹⁾과 중간식, 미식이 같으며⁵⁰⁾, 횡혈식석실인 서악에서 출토된 태환이식은 제작기법에서 창녕 계성 Ⅱ 지구 1호묘의 이식⁵¹⁾, 양산 북정리 21호분(금조총)에서 출토된 이식⁵²⁾ 등과 유사한 것으로 인식⁵³⁾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과 공반하는 고배자료를 보면 대각의 돌대가 단면 반원형이면서 각단이 반전하는 후기형식의 속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단각고배와 공반하는 유구가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보문리의 적석목곽분은 적석목곽분 가운데서는 늦은 시기에 비정되는 무덤들로 단각고배가 발생하기 직전의 것들로 판단되는데 절대연대는 늦어도 6세기 중엽을 하한⁵⁴⁾으로 하는 구릉지대에 형성된 무덤군으로 판단된다. 상한 연대는 황남동151호분, 은령총, 호우총 등에서 찾아야 되지만 절대연대를 알 수 있는 표준자료는 없지만 신라고분의 편년관에서 6세기 2/4반기의 늦은 단계로 보는 쪽이 유력한 것 같다.

이러한 결과를 참고하면 보문리고분의 조영주체는 평지에서 적석목곽분을 만들던 인물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명활산록이라는 한정적 범위에서 5세기대의 무덤이 존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곧 평지의 세력들이 일정한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면서 고분의 입지를 구릉으로 옮겼다는 것이 되는데 그 이전의 보문리는 어떤 상황이었을까가 새로운 문제점으로 대두하게 된다.

경주분지에는 남천과 북천이 동에서 서로 흘러 형산강에 합류하는데 주변에는 낮은 구릉들이 있으며 고분군들이 분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서악리고분군은 지형상으로 보아 서천을 사이에 두고 있어서 보문리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 준다. 그리고 황성동의 석실이 있는데 평지에서 확인되는 무덤은 시기를 전혀 달리하고 있어서 커다란 문제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무열왕의 무덤은 서악리 1군, 김유신의 무덤은 서악리 2군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왕릉은 하천을 건너서 구릉지대로 옮겨 가고 있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49) 朴日薰, 「皇南里一五一號墳」, 『慶州皇吾里第一・三三号皇南里第一五一号古墳發掘調査報告』, 文化公報部.

50) 崔秉鉉, 1981, 「古新羅積石木槨墳의 變遷과 編年」, 『韓國考古學報』 10・11, pp.149-150.

51) 湖巖美術館, 2000, 『昌寧 桂城 古墳』(上), p71.

52) 東亞大學校博物館, 1991, 『梁山金鳥塚・夫婦塚』.

53) 李漢祥, 1998, 「5~6世紀 新羅 太銀耳飾의 分類와 編年」, 『古代研究』 6.

54) 朴普鉉, 1998, 「短脚高杯로 본 積石木槨墳 消滅年代」, 『新羅文化』 15.

북천을 건넌 용강동·황성동석실이 있으며 지천(남천)을 건너서는 오름을 중심으로 하는 남산록의 고분이 분포하고 있는데 노서동의 쌍상총이나 마총 등에서 보듯이 적석목곽분의 지대에 7세기후반대의 횡혈식석실이 축조되고 있는 현상을 주목해야 한다. 이들 무덤이 왕릉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희박하지만 왕릉이 아니라고 단정할 근거는 많은 것 같다. 다만 평지에 석실묘가 유존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신라고분에서는 해결되어야 할 선결과제이다.

곧 경주분지에서 적석목곽묘를 만들게 하였던 세력들이 자신들의 무덤들을 서천과 북천 밖의 구릉지대로 옮겨갔을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서악리나 보문리에서 발견되는 무덤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의 무덤들이 평지에 입지하고 있는 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 지가 문제인 것이다. 이들과 유사한 입지를 선택한 것으로는 오름이 있다.

이상에서 보면 적석목곽분은 남천과 북천사이의 충적대지 또는 선상지를 이용하여 축조된 것으로 고신라왕경의 한 단면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보문리에 어떤 집단이 어느 시기부터 생활하고 있었는 지가 문제이다. 현재로 보아서는 적석목곽분이 만들어지는 시점부터 어떤 집단이 형성되고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 다만 석기시대의 유물산포지⁵⁵⁾ 정도로 소개되었으나, 최근의 경주지역 문화유적 지도 작성을 위한 조사에서도 알려진 바 없는데⁵⁶⁾ 명활산성에서 약간 동으로 떨어진 피막마을에서는 삼국시대의 무덤이 조사된 바⁵⁷⁾ 있어서 4세기의 어느 시점부터⁵⁸⁾ 경주분지에 적석목곽분이 만들어지는 시점까지 일정한 세력을 가진 작은 집단이 목관묘와 석곽묘를 만들면서 피막인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지만 보문리집단과의 관련성을 찾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보문리의 집단세력은 반대편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막인은 어떤 원인에 의하여 경주분지의 월성에 지배집단이 중심세력을 형성시켜 갈 즈음에 형성된 소지역 단위의 지배세력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면 보문리고분의 조영주체는 누구인가가 문제인데 평지에서 무덤을 만들던 세력들이 무덤의 입지를 보문리로 옮겼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문리에 적석목곽분을 만들고 있을 무렵에는 평지에도 동일한 무덤을 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경주분지에서 낮은 단계에 속하는 미추왕릉 7지구 쪽에는 여전히 적석목곽분이

55) 金秉模, 1987, 「1.도시계획」, 『歷史都市 慶州』, 열화당, p127.

56) 國立慶州博物館·慶州市, 1998.5, 『앞의 책』, pp.342-344.

57) 國立慶州博物館·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慶州市, 1999, 『慶州 千軍洞 避幕遺蹟』.

58) 朴普鉉, 1999, 「古式陶質土器로 본 4世紀代의 慶州」, 『古代研究』 7.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보문리나 서악리 등과 같이 구릉지대로 무덤의 입지를 옮긴 예는 낭산의 전선덕여왕릉과 전신문왕릉으로 전하는 왕릉, 태종무열왕릉, 전 법흥왕릉 등과 같이 이른바 왕릉에 한정되는 유구에서만 보이는 현상이며 시기가 내려오면 경주분지를 떠난 지역에 왕릉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왕릉과 혈연집단별 입지, 귀족세력의 무덤입지 등을 고려한다면 보문리에 언제부터 고총을 만들기 시작했는 지는 신라사해명에 중요한 실마리를 줄 것이다.

V. 맺음말

이상에서 경주분지의 동쪽에 있는 명활산록의 대표적 고분군으로 알려지고 있는 보문리고분의 부장유물을 중심으로 자료집성이라는 관점에서 약간의 검토를 해 보았다. 그런데 의외로 부부총으로 인식되어 통설처럼 믿어 왔지만 현재로서 알 수 있는 피장자들은 모두 여자로 단정해야 한다는 어려움을 남기게 되었으며 이식을 절대기준으로 하면 보문리부부총의 피장자를 부부관계로 설정하는 데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따라서 신라무덤에 보이는 이식에 대한 인식은 이제 성관별의 유물로 보는 단계를 넘어서야 할 것 같다. 곧 태환, 세환이 남녀의 구별기준이 되지 못한다면 이것은 집단의 기본적인 성격차이와 일정한 관련성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태환이식을 부장하는 집단과 세환이식을 착용하는 집단의 차이를 구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문리부부총의 부장현상에 보이는 태환이식과 상원하방내 삼엽문대도의 세트가 황남대총북분의 부장세트와 일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황남대총의 피장자는 다시 한번 고고학에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평지의 신라고분에서도 보이는 현상이어서 이식을 통한 성구별의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보문리에 무덤을 만드는 세력들이 평지의 세력과 어떤 함수관계를 가지는 지에 대해서는 관련자료의 부족으로 검토하지 못하였다. 다만 금척리고분과 방내리고분을 관련시켜 볼 때 적석목곽분이 소멸된 후에 구릉지대로 옮겨 가면서 명활산록에 새로운 구조를 가진 무덤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다.

【Abstract】

**On the character of Pomun-ri
Pubuchong(普門里夫婦塚) through earring**

Park, Bo-hyun

Pomun-ri Pubuchong is recognized as tomb of husband and his wife. We acknowledge woman used lare-ball earring and man used small-ball earring usually. But earrings excavated in Pomun-ri Pubuchong are all lare-ball earring. So that, we can not decide Pomun-ri Pubuchong is tomb of husband and his wife. At the same time, we must consider that locaion of tombs in Kyong-ju is not epoch but is group in Silla-dynasty.

中國 西漢代の 銅鏡・銅錢 研究

辛 勇 旻*

目 次

I. 머리말

II. 銅鏡

III. 銅錢

IV. 맺음말

요 약

우리 나라의 삼한시대 유적에서는 당시의 경제와 교역 등 주변지역간의 물질문화 교류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고고학적 자료가 출토되고 있다. 이 가운데 동경과 동전은 대륙과의 문화교류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무덤에서 출토된 동경과 동전은 피장자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한 사회적 의미나 교역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최근 진행되고 있지만 漢鏡과 銅錢에 대한 편년기준이나 특징에 대해서 소개하거나 편년을 시도한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80년대 이후 급증된 이러한 자료에 대해 기준점을 제시하여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삼한시대에 주로 출토되고 있는 중국 서한대 동경과 동전에 대해서 특징을 세부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우리 나라 남부지방에서 출토된 동전에 대해서도 주조연대를 추정해보았다. 필자의 이러한 시도는 앞으로 이 시기 연구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대관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더욱 증가하면 보충하여 수정제시할 것이다.

* 慶尙南道 文化財研究員

I. 머리말

우리 나라의 삼한시대 유적에서는 당시의 경제와 교역 등 주변 지역간의 물질문화 교류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고고학적 자료가 출토되고 있다. 이 가운데 동경과 동전은 대륙과의 문화교류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특히, 무덤에서 출토된 동경과 동전은 피장자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한 사회적 의미나¹⁾ 교역체계에 대한²⁾ 구체적인 연구가 최근 진행되고 있지만 漢鏡과 銅錢에 대한 편년기준이나 특징에 대해서 소개하거나 편년을 시도한 경우는 드물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 출토되는 漢鏡과 銅錢의 수량이 그다지 많지 않았고 고고학적인 중요도에 비해 해당 유물이 국내에서 제작된 것이 아닌 관계로 연구에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80년대 이후 급증된 이러한 자료에 대해 기준점을 제시하여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그 첫 작업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삼한시대에 주로 출토되고 있는 중국 서한대 동경과 동전에 대해서 그 특징을 세부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II. 銅鏡

거울은 중국의 경우 戰國시대(B.C.475-B.C.221) 말기에서부터 秦代(B.C. 221-B.C. 207)의 일부 무덤에서 부장되기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부장품의 하나로 사용된 것은 서한시대에서부터 비롯된다³⁾. 물론 가장 빠른 것으로는 1975, 1976년 甘肅省 廣河 齊家坪 고분 출토 素面鏡과⁴⁾ 青海省 貴南 尕馬台(소마태) 25호에서 출토된 七角星文鏡이

1) 安京淑, 1998, 「多鈕鏡에서 漢鏡으로 轉換에 대한 研究」,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 李在賢, 2000, 「加耶地域出土 銅鏡과 交易體系」, 『韓國古代史論叢』 9.

3) 거울의 기원에 대한 연구는 何堂坤에 의해 잘 정리되어 있다.(何堂坤, 1982 「銅鏡起源初探」, 『考古』1982-2) 이 논문에 의하면 그 첫번째로 “鏡은 鑑에서 기원하였는데 鑑은 원래 그릇에서 변한 것으로 물을 담은 盆이나 항아리로 그릇에 담긴 물에 비친 상이 나타난 것을 鏡이라고 하였다” 한다.(梁上椿, 1952, 「古鏡研究總論」, 『大陸雜誌』5-5.) 두번째는 陽燧에서 발전된 것이라는 견해인데(岳慎禮, 1958, 「青銅鏡探源」, 『大陸雜誌』17-5.) 원래 양수는 태양열을 이용해 점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여기서 그 기원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銅泡에서 유래하였다는 것이다.(高去尋, 1958, 「殷代的一面銅鏡及其相關之問題」, 『歷史語言研究所集刊』第29.)

4) ① 安志敏, 1981, 「中國早期銅器的幾個問題」, 『考古學報』.

② 嚴文明, 1984, 「論中國的銅石併用時代」, 『史前研究』.

있다⁵⁾. 이는 齊家문화에 속하는 것으로 B.C.2,000년을 전후한 시기로 편년하고 있다⁶⁾.

거울에는 銅鏡과 鐵鏡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동경을 주로 많이 부장한다⁷⁾. 이러한 부장 풍습을 가진 한대 동경은 시기를 달리하면서 모양과 특징에 차이가 있어 고고학적인 편년자료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어 많은 학자들에 의해 활발히 연구된 바 있다⁸⁾.

5) ① 青海省文物管理處, 1979, 『青海省文物考古工作三十年』, 文物出版社.

② 李虎侯, 1980, 「齊家文化銅鏡的非破壞鑑定」, 『考古』.

6) 孔祥星·劉一曼, 1984, 『中國古代銅鏡』, 文物出版社.

7) 『洛陽燒溝漢墓』의 예를 들면, 전체 225기의 무덤 중에서 95기(42.2%)의 무덤에서 모두 127점이 출토되었는데 이 가운데 동경이 119점(93.7%), 철경이 9점(6.3%)을 차지하고 있다. 인골이 확인되는 30여기의 무덤에서 거울이 출토된 위치를 확인해 본 결과 피장자의 머리 좌측 상부 또는 좌측이 16점, 머리 우측 상단 또는 우측이 12점, 흉부 또는 어깨 부분의 신체 상부에 둔 경우가 3점, 다리부분에서 출토된 것은 3점 등으로 위치가 확인되었다. 이로 미루어 거울은 피장자의 머리쪽에 두는 경우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밖에 관외부에 있는 경우도 다수 확인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漆函에 넣어 부장하고 실크와 같은 가느다란 絹絲에 쌓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를 미루어 당시 거울은 부장품 중에서 다소 소중히 다루었음을 알 수 있다.

8) <중국측>

①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 1959, 『洛陽燒溝漢墓』第二章 銅器 一. 銅鏡, 科學出版社. pp.160-176.

② 文物出版社, 1979, 『中國出土古鏡圖錄』陝西省出土銅鏡·洛陽出土銅鏡·湖南出土銅鏡圖錄·四川省出土銅鏡.

③ 孔祥星·劉一曼, 1984, 『中國古代銅鏡』, 文物出版社.

④ ———, 1992, 『中國銅鏡圖典』, 文物出版社.

⑤ 王士倫, 1987, 『浙江出土銅鏡』, 文物出版社.

⑥ 洛陽博物館, 1987, 『洛陽出土銅鏡』, 文物出版社.

⑦ 陳佩芬, 1987, 『上海博物館藏青銅鏡』, 上海書籍出版社.

⑧ 張英, 1990, 『吉林出土銅鏡』, 文物出版社.

⑨ 吳水存, 1993, 『九江出土銅鏡』, 文物出版社 등 다수의 논문이 있음.

<일본측>

① 富岡謙藏, 1920, 『古鏡の研究』: 臨川書店, 1974년 재발행.

② 後藤守一, 1926, 『漢式鏡』, 雄山閣.

③ 梅原末治, 1935, 『漢以前の古鏡の研究』, 東方文化學院京都研究所.

④ ———, 1943, 『漢三國六朝紀年鏡圖說』, 京都帝國大學文學部考古學資料叢鑑 第1冊.

⑤ 樋口隆康, 1979, 『古鏡』, 新潮社.

⑥ 岡村秀典, 1984, 「前漢鏡の編年と様式」, 『史林』67-5.

⑦ ———, 1986, 「中國の鏡」, 『彌生文化の研究』6, 雄山閣.

⑧ ———, 1990, 「後期の銅鏡」, 『日本考古學協會1990年度大會發表要旨』.

⑨ ———, 1993, 「後漢鏡の編年」,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55.

⑩ 高倉洋彰, 1990, 『日本金屬器時代の研究』, 學生社.

⑪ 宮本一夫, 1990, 「戰國鏡の編年」(上)·(下), 『古代文化』, 4.월, 6월 vol.42.

⑫ 埋藏文化財研究所, 1994, 『倭人と鏡』第1, 2分冊, 別冊 등 다수.

<한국측>

① 李蘭暎, 1983, 『韓國의 銅鏡』,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여기서는 주로 서한시대의 동경에 대한 세부적인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서한시대와 동한 전기에 해당하는 한대 무덤의 편년설정에 참조하기로 한다.

서한시대 동경은 앞선 戰國시대 문양의 花文系의 전통이 일부 계승되면서 차이가 거의 없는데 중기 이후로 접어들면서 전국시대 문양은 사라지고 짐승문양이 등장하는 변화를 가진다. 鏡의 형태는 원형으로 정착되고 중앙에는 半球形의 鈕를 중심으로 문양이 배치되고 吉祥, 祝頌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새겨서 鏡의 제작 목적을 밝히기도 하는 배치상태로 정형화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대 목곽묘에서 주로 출토되는 서한시대의 동경에 대하여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 그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西漢 前期

서한 전기는 高祖인 劉邦에서부터 景帝代(B.C.206-B.C.141)로 66년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 시기는 전국 말기에서부터 유행한 雲雷地文의 蟠螭文鏡(반리문 : 전설속에 나오는 뱀이 없는 용이 몸을 서로 꼬고 있는 상태의 문양)이 유행하였으며, 蟠螭文鏡(반해문 : 독사의 일종인 뱀이 몸을 서로 꼬고 있는 상태의 문양)이 일부 존재한다.

가. 蟠螭文鏡은 景帝代가 되면 사라지며 鈕의 외곽에는 3葉 또는 4葉의 문양이 출현하기도 하고 주위에 “常(長)相思, 毋相忘, 常(長)貴富, 樂未央.”, “常與君, 相灌幸, 毋相忘, 莫遠望.”, “見日之光, 所見必當.”등의 명문을 새겨 吉祥을 기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명문구절은 초기에는 3字가 1句를 이루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4字 1句로 바뀌어 간다.

나. 蟠螭文鏡은 內區에 표현된 반리문과 조합하는 문양에 따라 그 세부명칭이 달라진다. 纏繞式蟠螭文鏡(纏繞式 : 나뭇가지가 둘둘 감겨 있는 모양), 規矩蟠螭文鏡(鈕座 외면에 방격의 선을 두르고 외면에는 T, L과 같은 문양의 부호와 함께 반리문이 새겨져 있음.)⁹⁾, 四葉四螭文鏡(4葉으로 반리문의 문양을 네 부분으로 구획하고 있음. 間隔式蟠螭文鏡으로도 칭함) 등이 있다. 四葉四螭文鏡에는 다양한 명문이 있는데 이를 조

② 沈奉謹, 1990, 「三韓原三國時代의 銅鏡」, 『石堂論叢』16.

③ 安京淑, 1998, 「多鈕鏡에서 漢鏡으로 轉換에 대한 研究」,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④ 李在賢, 2000, 「加耶地域出土 銅鏡과 交易體系」, 『韓國古代史論叢』9.

9) 規矩는 『禮記』經解에 孔穎達의 疏에 의하면 “規所以正圓, 矩所以正方.”이라 하여 規는 원형을, 矩는 방형체를 만드는 공구임을 말하고 있다. 전설에 의하면 規矩는 天子가 우주를 창조할 당시 사용하였던 도구였다고 하며 이것이 T, L, V와 같은 형태로 표시된 것이고 이 도안을 본떠 만든 놀이가 六博局이다.

합하면 아래와 같다.

1. 大樂貴富, 千秋萬歲, 宜酒食.
2. 大樂貴富, 得所好, 千秋萬歲, 宜酒食.
3. 大樂貴富, 得所好(得長孫), 千秋萬歲, 延年益壽.
4. 大樂未央, 長相思, 愿母相忘.
5. 脩相思, 煩母相忘, 大樂未央.
6. 內請(清)質以昭明, 光輝象夫日月, 心忽.
7. 揚而愿忠, 然雍塞而不泄, 懷靡美地窮嘏, 外承驩之可說,
慕窈窕之靈泉, 愿永思而毋絕.
8. 日月之明, 見之長光.

이 가운데 첫번째 구절의 내용이 가장 출토 예가 많다. 명문 가운데 ‘脩相思’는 ‘長相思’의 ‘長’이 ‘脩’로 글자가 바뀐 것인데 그 이유는 淮南王 長의 諱와 같은 글자를 피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러한 명문이 새겨진 鏡의 제작연대는 서한 武帝 初인 淮南王安의 死後임을 알 수 있다¹⁰⁾.

2. 西漢 中期

서한 중기는 武帝, 昭帝, 宣帝의 재위시기(B.C.140-B.C.49)인 91년간을 말한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것은 草葉文鏡과 星雲文鏡, 그리고 日光鏡, 昭明鏡으로 불리우는 連弧文鏡系 銅鏡과 重圈銘文鏡을 들 수 있다.

가. 草葉文鏡은 앞선 시기의 반리문경에서 보이는 초엽의 문양 변화와 연속선상에서 잎사귀의 변화가 보이고 있어 그 년대 설정이 용이하다¹¹⁾. 이제까지 출토된 초엽문경은 지역적으로도 河南省, 陝西省, 廣東省, 四川省, 河北省 등 漢의 영토내에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 당시 지역에 관계없이 선호한 거울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¹²⁾.

10)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 1959, 『洛陽燒溝漢墓』, 科學出版社, pp.173-174.

11)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 1959, 『洛陽燒溝漢墓』, 科學出版社, p.174의 도면 참조.

12) ①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 1959, 『洛陽燒溝漢墓』, 科學出版社.

② 『陝西省出土銅鏡』, 『中國出土古鏡圖錄』1, 1979.

③ 『四川省出土銅鏡』, 『中國出土古鏡圖錄』4, 1979.

④ 文物出版社, 1980, 『滿城漢墓發掘報告』.

⑤ 文物出版社, 1981, 『廣州漢墓』.

초엽문경에는 다양한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그 명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見日之光, 天下大明.
2. 見日之光, 長毋相忘.
3. 見日之光, 長樂未央.
4. 見日之光, 天下大明, 服者君卿.
5. 見日之光, 天下大陽.
6. 見日之光, 天下大陽, 所言必當.
7. 見日之光, 天下大陽, 服者君卿, 所言必當.
8. 常貴富, 樂未央, 長相思, 不(毋)相忘.
9. 日有熹, 宜酒食, 長貴富, 樂毋事.
10. 軍行卒, 予志悲, 久不見, 侍前稀.
11. 心思美人, 毋忘大王.
12. 長毋相忘, 長樂未央.
13. 愿長相思, 久毋見忘.
14. 愿毋相忘, 長樂未央.
15. 與天相壽, 與地相長.
16. 天上見長, 心思君王.
17. 天下大明, …….
18. 長貴富, (樂)無事, 日有熹, 常得所熹, 宜酒食.

위의 구절 가운데 가장 많이 출토된 명문은 1번이고 그 다음이 2, 8, 9번이다. 이러한 명문은 鈕座 주위의 方格칸에 시계방향으로 한 번에 2자 내지 3자씩 새겨져 있다.

나. 성운문경은 鈕座의 형태에 따라 두 종류로 구분된다. 그 하나는 뉴좌의 형태가 博山爐 모양이 있고 다른 하나는 半圓形이다. 일반적으로 뉴좌의 외부에 內行하는 16개의 連弧文이 있고 그 바깥쪽인 內區에 4乳가 등간격으로 배치되는데 그 사이에 소형의 乳釘이 별모양으로 장식되어 星雲文帶를 구성하고 있다. 外區인 邊緣에도 16개의 內行連弧文이 있다. 성운문경은 廣州漢墓 등 남쪽지역에서는 발견 예가 없고¹³⁾ 洛陽燒溝 漢墓지역에서는 武帝와 昭帝代에 제작된 오수전과 함께 출토되고 있어 그 시기와

13) 『廣州漢墓』, 文物出版社, 1981.

출토지역의 특성 파악에 참조된다.

다. 連弧文鏡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진다. 그 하나는鈕좌 외부의 내구에 8개 또는 12개의 內行連弧文이 있고 외구에 문양 대신 명문이 새겨진 동경을 총칭하는데 그 글자의 내용에 따라 종류가 세분되어 日光鏡, 昭明鏡, 清白鏡, 銅華鏡, 日有熹鏡 등으로 불리운다. 두번째는 內區에 8개의 내행연호문을 주문양으로 하고 원형鈕좌 주변에 4葉이 배치되고 그 사이에 ‘長宜子孫’ 등의 명문이 새겨지고 외구에는 雲雷文이 장식된다. 문양과 명문의 배치에 따라 雲雷連弧文鏡, 長宜子孫連弧文鏡, 素連連弧文鏡 등으로 불리우는데 세부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日光鏡은鈕좌 외부에 8개의 내행연호문이 장식되고 외구에 명문이 있는데 명문의 사이사이에는 ‘の’ 또는 ‘母’와 비슷한 형태의 기호가 있다. 일광경은 다른 거울에 비해 크기가 작아 6cm-8cm에 불과하여 倣製하기 용이한 것으로 추정되며 일광경에는 다음과 같은 명문이 주로 새겨져 있다.

1. 見日之光 天下大明.
2. 見日之光 長不相忘.
3. 見日之光 長母相忘.
4. 見日之光 長夫母忘.

이 가운데 가장 출토 예가 많은 것은 1번의 명문이고 중국 각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으며 특히 洛陽地區에서 그 출토 예가 많다¹⁴⁾.

둘째, 昭明鏡은 크기가 일정하지 않으며 작은 것은 8cm 정도이나 큰 것은 15cm에 이른다.鈕좌 주변이 원형인 것과 12개의 連珠文이 있는 것 등 두 종류로 세분될 수 있으나 명문의 내용은 동일하다. 명문의 완전한 것은 “內清質而昭明, 光輝象夫兮日月, 心忽揚而願忠, 然雍塞而不泄.”이다. 이러한 명문 내용이 완전한 것은 별로 없으며 특히 내용중 3번째 구절이 누락되는 경우와 글자 내용 중에 ‘而’자가 사이사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출토된 소명경의 명문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4) 「洛陽西郊漢墓發掘報告」, 『考古學報』 1963-2. 에 의하면 157점의 출토 동경 중에서 36점의 동경이 일광경이며(20.6%), 『洛陽燒溝漢墓』에서는 전체 118점의 동경 중에서 20점이 일광경이다(16.9%). 일광경은 昭·宣帝 이후에 제작된 오수전과 함께 무덤에서 부장되고 있어 漢武帝 이후 王莽시대에 주로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

1. 內淸而昭明 光象日月.
2. 內淸而昭明 光象夫明兮.
3. 內淸而昭明 光象夫日月.
4. 內淸而昭明 光象夫日月 心忽不泄.
5. 內淸而昭明 光象夫明 心忽揚而願忠 然雍塞不泄.
6. 心忽而忠 然雍塞而不泄.
7. 內淸而昭明 光象夫明 而不泄.
8. 內淸而昭明 光象日月兮.
9. 內淸而昭明 光日月明.
10. 內淸日而昭明 光日月.
11. 內淸質而昭明 光日月 心忽揚而願忠 雍而不泄.
12. 內淸質而昭明 光輝象夫日月 心忽揚而願忠 然不泄.
13. 內淸質而昭明 光而象夫日月 心忽而忠而不泄.
14. 內淸質而昭明 光而象夫日月 心忽揚而忠, 然□塞而不泄.
15. 內而淸而□而明而夫而日而.
16. 內而淸而以而□而明而光而夫而象而日而月而光而□.

소명경의 경우도 일광경과 마찬가지로 주로 河南省과 陝西省의 중심지역인 洛陽과 西安에서 발견 예가 많으며 양 지역간의 출토 시기도 비슷하다¹⁵⁾.

셋째, 외구에 ‘淸白’으로 시작하는 48자의 명문이 새겨져 있는 ‘淸白連弧文鏡’으로 완전한 명문은 “絜淸白而事君, 怨陰驩之汙明, 煥玄錫之流澤, 志疏遠而日忘, 愼靡美之窮皞, 外承驩之可說, 慕變窈于靈泉, 愿永思而毋節.”이다. 그러나, 이러한 명문이 완전한 것은 극히 드물고 지금까지 출토된 명문의 종류를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1. 絜淸白而事君, 志天行之汙明, 光玄天錫之澤, 志疏而日忘美之□□
□□思□玄紀.
2. 絜淸白之事君, 志天行之汙明, 光玄天錫之□天日忘思不.

15) 낙양시의 西郊지역인 金谷園·七里河 유적에서는 175점 출토 동경 중에서 소명경이 41점으로(23.4%) 가장 많고 燒溝 漢墓지역에서는 118점의 동경 중에서 20점이 소명경이다(16.9%). 그 외에도 廣州 漢墓에서도 29점의 출토 동경 중에서 14점이 소명경으로 48.2%를 차지하고 있다. 이상의 동경 출토 부둣 역시 소명경과 마찬가지로 武帝 이후인 서한 중기에서 서한 후기에 편년되는 부둣이다.

3. 絜清白而事君, 志天介明, 玄錫之流澤, 恐□而日忘美,
天外承□□母紀.
4. 絜清而事君, 志驩之合明, 作玄錫之澤, 心疏遠日忘, 慎美之交泄,
承驩之可說, 莫寔之□□, 愿母絕.

넷째, 명문의 내용 중에 ‘銅華’라는 字句가 대표되어 ‘銅華連弧文鏡’이라고도 부르고 명문의 또 다른 내용인 ‘以延年而益壽’라는 장수를 기원하는 내용의 글귀를 따서 ‘延年益壽鏡’이라고도 부르는 銅鏡이다. 전체적인 명문의 내용은 “涑治銅華清而明, 以之爲鏡面宜文章, 以延年而益壽去不羊”이다. 그러나, 이 역시 字句 내용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 日光涑治竟華清而明, 以之爲竟而宜文章, 以延年而益壽去不羊.
2. 涑治同華清而明, 以之爲竟宜文章, 長年益壽去不羊, 與天無畝(母極).
3. 涑治鉛□華清而明, 以之爲鏡而宜文章, 以延年而益壽去不羊,
見夫□□而日光.
4. 涑治銅清而明, 以之爲宜文章, 延年益壽去不羊, 與天無極, 如日之光,
千秋萬歲, 長樂.
5. 涑治銅華清而明, 以之爲鏡因宜文章, 延年益壽而去不羊,
與天無極而日月之光, 樂央未.

다섯째, 명문의 ‘日有熹’라는 字句가 대표되는 ‘日有熹連弧文鏡’으로 그 전체적인 명문은 “日有熹, 月有富, 樂毋事, 常得意, 美人會, 箏瑟侍, 賈市程(利)萬物”이다. 다른 字句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日有熹, 月有富, 樂毋, 常得意, 美人會, 于瑟侍.
2. 日有熹, 月有富, 樂毋, 常得意, 美人會, 箏瑟侍, 賈市程萬物.

라. 重圈銘文鏡은 뉴와 외부에 한 개 또는 두 개의 돌기된 圈文을 높고 넓게 두르고서 內外區를 구분 짓고 있다. 각 區의 문양 특징에 따라 명칭을 세분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內區에 단순한 雲雷文, 渦文과 幾何文 등의 문양을 장식하고 外區에 명문을 가지고 있는 것과 내외구 모두에 명문을 새긴 것으로 나누어지는데, 내외구에 2중으로 銘文帶가 있는 것을 重圈銘文鏡이라고 한다. 이러한 중권명문경도 명문의 내용에 따라

명칭이 세분되어 日光重圈鏡, 昭明重圈鏡, 宜佳人重圈鏡 등으로 부른다.

첫째, 日光重圈鏡은 명문의 내용은 일광경과 동일하다. 그러나 일광경일 경우 “見日之光 天下大明”의 명문이 많은 반면 일광중권경은 “見日之光 長毋相忘”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둘째, 昭明重圈鏡의 경우 내구에 명문이 없는 것과 있는 것으로 구분된다. 내구에 명문이 없는 것으로는紐瓦 외부에 12개의 連珠文이 장식되어 있으면서 내구에 명문이 없이 돌기상의 넓고 높은 圓圈이 있고 그 외부에 昭明鏡과 동일한 명문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內圈에 “見日之光 長毋相忘”이라는 일광경의 명문이 새겨져 있으며 명문과 명문사이에는 圓形螺線문양의 雷文이 장식되어 있고 外圈에는 “內清質以昭明, 光輝象夫日月, 心忽揚而願忠, 然雍塞而不泄.”의 昭明鏡 명문이 새겨져 있는 것과 내권에 昭明鏡의 명문이, 외권에 清白鏡의 명문이 새겨진 것이 있다. 이러한 중권 명문경 중에서는 일광-소명경계 명문이 새겨진 것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셋째, 宜佳人重圈鏡은 원형紐瓦 외부에 12개의 連珠文이 장식되어 있으며 내권에 명문이 있는 경우는 외권에 雲雷文이 있고 반대로 내권에 운늬문이 있는 경우는 외권에 명문이 있다. 명문의 내용은 “清冶銅華以爲鏡, 照察衣服觀容貌, 絲組雜還以爲信, 清光宜佳人.”이다.

3. 西漢 後期

서한후기는 元帝부터 王莽시대까지(B.C.48-A.D.25)인 73년간을 말하는데 중기에서 시작된 일광경, 소명경이 지속적으로 유행하면서 새롭게 四乳禽獸文鏡과 각종 規矩系 동경이 제작된다. 특히, 규구계 동경은 서한 후기에서 시작하여 동한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유행하며 기타 동경들 역시 동한시대에 지속적으로 제작되어 유행한다.

가. 四乳禽獸文鏡은 원형紐瓦 주변으로 4葉의 감잎모양 또는 12개의 連珠文 등이 장식되고 외부에는 圓圈이 둘러지고 다시 短斜線文이 배치되어 있기도 한다. 문양대에는 원형의 小乳 4개가 등간격으로 배치되어 있고 그 사이에 螭(虺), 禽, 獸, 四神(靑龍, 白虎, 朱雀, 玄武) 등의 각종 동물 문양이 장식된다. 외구는 일반적으로 平緣으로 이루고 있으나 鋸齒文이 장식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문양의 종류에 따라 四乳四螭(虺)文鏡, 四乳禽獸文鏡, 四乳四神鏡 등으로 세분될 수 있다.

첫째, 四乳四螭文鏡은 원형紐瓦가 가장 많고 사업문의紐瓦 또는 연주문紐瓦도 있

다.鈕扣 외부의 문양대에는 4개의 小形乳가 등간격으로 배치되고 그 사이에 螭가 주문양으로 장식되어 나머지 공간에는 소형의 禽鳥가 사이사이에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동경은 낙양소구한묘에서와 광주한묘 등지에서 서한 후기부터 동한전기에 해당하는 무덤에서 출토되고 있어 그 유행시기를 짐작할 수 있다.

둘째, 四乳禽獸文鏡은 문양대의 四乳 사이에 禽鳥, 獸 등이 주문양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어떤 것은 四乳에 八禽이 장식되어 있는 것도 있다. 四獸인 경우에는 용과 호랑이가 자주 등장하며 외구에 鋸齒文이 장식되는 경우가 많다.

셋째, 四乳四神鏡은 문양이 四神인 靑龍, 白虎, 朱雀, 玄武가 四乳 사이에 배치되어 있고 외구는 거치문이 장식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나. 規矩系鏡은 다른 거울과 가장 큰 특징을 들 수 있는 것은 문양 가운데 영문자의 ‘T’, ‘L’, ‘V’와 닮은 기호가 장식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호를 ‘規矩’라고 부른다. 따라서 규구가 문양으로 장식된 동경의 총칭을 규구계라 부르고 그 세부적인 문양의 종류에 따라 四神規矩鏡, 禽獸文規矩鏡, 幾何文規矩鏡, 簡化規矩鏡 등 다양하게 불리운다.

먼저, 규구계 동경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四神規矩鏡이다. 四葉文 또는 원형鈕扣 외부에 方格으로 구분 짓고서 여기에 12支의 명문을 새겨 장식되기도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方格의 외부에 T자 또는 L자, V자형의 부호가 내구를 8등분하여 장식된다. 그 사이에는 8개의 小形乳가 있고 나머지 공간에 四神이 각 방향에 주문양으로 배치되며 다시 禽, 獸, 羽人 또는 仙人이 사이사이에 소문양으로 배치되어 있다. 외구에는 일반적으로 명문대가 한 줄 구성되어 있고 邊緣에는 短斜線文, 三角鋸齒文, 波狀文, 流雲文 등 각종 문양이 장식된다. 외구의 명문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새겨진 것으로 ‘尙方’ 또는 ‘尙方作’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尙方作四神鏡’ 또는 ‘尙方作神獸鏡’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 명문의 전체는 “尙方御竟(鏡)大母傷, 巧工刻之成文章, 左龍右虎辟不羊, 朱鳥玄武順陰陽, 子孫備具居中央, 長保二親樂富昌, 壽敝金石如侯王兮.”이다. 그리고, “尙(上)方作鏡眞大好, 上有仙人不知老, 渴飲玉泉飢食棗, 浮游天下敖四海, 壽如金石爲國保.”이라는 명문이다. 이 가운데 후자의 글귀가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실제 출토된 동경의 명문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1. 尙方作鏡眞大兮, 上有仙人不知老, 渴飲玉泉飢食棗,
壽如(而)金石天之保兮.
2. 尙方作竟眞大兮, 上有仙人不知老, 渴飲玉泉飢食棗, 有天下.

3. 尙方作竟眞大好, 上有仙人不知老, 渴飲玉泉飢食棗,
浮由天下敖四海, 宜子孫.
4. 尙方作竟眞大好, 上有仙人不知老, 渴飲玉泉飢食棗,
浮游天下敖四海, 青如金石之天□□.
5. 尙方作竟大母傷, 左龍右虎辟不羊, 朱鳥玄武順陰陽,
子孫備具居中央, 長保二親具富昌, 如侯王.
6. 尙方作竟眞大巧, 上有仙人不知老, 渴飲玉泉飢食棗,
壽如金石天之保, 長樂未央如侯王, 子孫□居中央, 富貴昌□益□兮.
7. 尙方佳竟眞大好, 上有仙人不知老, 渴飲玉泉飢食棗, 浮天下敖四海,
壽如金石爲國保, 日月明兮.

상기에서 열거한 규구경의 명문이 ‘尙方’으로 시작되는 소위 ‘尙方作規矩鏡’과 동일한 문양과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명문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특히, 어떤 동경에는 姓氏가 적혀 있는 것도 있다. 이는 동경의 명문 내용을 미루어 명기한 姓氏의 가문 번창을 기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명문 내용 중에 年號가 새겨져 있어 제작연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있다. 그 명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新有善銅出丹陽, 和以銀錫清且明, 左龍右虎主四彭, 朱爵玄武順陰陽.
漢有善銅出丹陽, 取之爲鏡清如明, 左龍右虎補四旁, 朱爵玄武順陰.
漢有善銅出丹陽, 清且明, 左龍右虎主四澎, 八子居中央, 朱爵玄武順.
2. 涑冶銅華青而明, 以之爲而宜文章, 延年□吉□羊.
3. 上大山, 見神人, 食玉英, 飲灋金, 宜官秩, 葆子孫, 長樂未央, 富貴昌,
子天母極, 駕非龍, 由浮雲.
上華山, 見神人, 宜官秩, 保子孫, 食玉英, 飲禮泉, 駕非龍, 乘浮雲.
4. 作佳鏡成眞大好, 上有仙人不知老, 渴飲玉泉飢食棗, 壽如金石.
此有佳鏡成獨好, 上有仙人不知老, 渴飲灋泉飢時棗, 游天下, 敖四海,
壽如金石爲國.
此有佳鏡成獨好, 上有仙人不知老, 渴飲禮泉飢食棗, 游天下敖四海,
壽如金石爲國葆.
5. 來(來)言之紀從鏡始, 長保二親和孫子, 辟除不羊宜古市,

從今以往樂乃始.

來(來)言之始自有紀, 涑冶銅錫去其宰, 辟去不詳宜古市.

來(來)言之始自有紀, 涑冶銅錫去其宰, 長保二親和孫子.

來(來)言之紀鏡舒如, 倉龍在左, 白虎在右, 辟去不陽宜古市,

長宜君親利孫子.

6. 福祿進兮日以前, 天道得物自然, 參駕蜚龍乘浮雲, 白虎失, 上大山, 鳳鳥下, 見神人.

福熹進兮日以萌, 食玉英兮飲灋泉, 駕文龍乘浮雲, 白虎□兮泰山,

鳳凰舞兮見神仙, 保長命兮數萬年, 周復始兮八子十二孫.

7. 金之青, 視五形, 見至□, 長思君, 時來游, 宜子孫, 樂無憂.

8. 新興辟雍建明堂, 然于舉土列侯王, 子孫復治中央.

9. 王氏作鏡真大好, 上有仙人不知老, 渴飲玉泉飢食棗,

浮游天下敖四海, 壽如金石之國保.

王氏作竟四夷服, 多駕新家民息, 胡虜殄滅天下復, 風雨時節五谷熟,

長保二親子孫力, 官位尊顯蒙祿食, 傳告後世樂毋極, 大利兮.

10. 朱氏明鏡快人意, 上有龍虎四時宜, 常保二親宜酒食,

君宜官秩家大富, 樂未央, 宜牛羊.

11. 杜氏作竟四夷服, 多駕新家人民息, 胡虜殄滅天下復,

風雨時節五谷熟, 長保二親受大福, 傳吉後世子孫力, 官位高.

12. 始建國二年新家尊, 詔書□下大多恩, 賈人事市□財嚮田,

更作辟雍治校官, 五谷成熟天下安, 有知之士得蒙恩, 宜官秩, 葆子孫.

始建國天鳳二年作好鏡, 常樂貴富庄君上, 長保二親及妻子,

爲吏高遷位公卿, 世世封傳于毋窮. (A.D.15년 제작)

두번째는 禽獸文規矩鏡인데 사방에 四神을 배열하지 않고 禽, 獸, 怪神 등을 배치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靑龍, 白虎, 朱雀, 小鳥, 鳳凰, 鹿, 奔馬, 羊, 怪獸, 羽人 등을 말한다. 거울에 새겨진 명문은 기본적으로 앞에 열거한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尙方', '善銅', '來言'으로 시작하는 명문대가 주로 있다.

세번째는 幾何文規矩鏡으로 내구의 문양대에 규구문과 함께 장식되어 있는 문양이 四神이나 그 외 짐승문양이 아니라 어떤 문양인지 뚜렷하지 않은 幾何文이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네번째는 簡化規矩鏡으로 내구의 문양대에 규구문양이 한개 내지 두개의 문양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四乳가 생략되어 있기도 한다. 크기도 다른 규구경에 비하여 소형으로 직경이 10cm 미만이다. 邊緣의 문양대는 대다수가 短斜線文과 三角鋸齒文이 장식되어 있다. 문양의 특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규구경에 새겨진 문양에 비해 短斜線文의 경우 간격이 넓다.

三角鋸齒文은 일반 규구경의 경우 二等邊三角을 이루고 있는데 반하여 간화규구경의 경우 三角이 일정하여 正三角形에 가깝게 변하여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하문규구경에서도 일부 보이는 특징이며 동한시대 이후 제작된 동경의 거치문의 특징과도 일치하고 있어 기하문규구경과 간화규구경은 서한시대의 가장 늦은 시기에 제작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낙양소구한묘의 예를 보아서 簡化規矩鏡은 모두 王莽시대나 東漢 전기의 무덤에서 출토된 것으로 보고 있어 참조된다¹⁶⁾.

동한시대에는 상기한 서한시대의 거울 이외에도 多乳禽獸文鏡, 雲雷連弧文鏡, 長宜子孫連弧文鏡, 變形四葉文鏡, 神獸鏡, 畫像鏡, 夔鳳文鏡, 龍虎文鏡 등 다양한 거울이 새로이 제작되어 유행하였다.

III. 貨幣

漢代에 제작된 화폐는 동경과 함께 한대 무덤에서 많이 출토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장 풍습을 가진 화폐는 제작시기에 따라 종류와 세부 형태에서 차이가 있어 고고학적인 편년자료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어 많은 학자들에 의해 활발히 연구된 바 있다¹⁷⁾. 여

16)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 1959, 『洛陽燒溝漢墓』第二章 銅器 一.銅鏡, 科學出版社, p.175.

17) 漢代の 화폐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글들이 참조된다.

- ① 『中國大百科全書·文物·博物館』,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3.
- ② 『中國歷代貨幣大系』第2卷 秦漢三國兩晉南北朝貨幣, 上海書籍出版社, 1998.
- ③ 汪慶正, 1959, 「關於我國古代貨幣發生和發展的研究中存在的問題」, 『考古』.
- ④ 朱活, 1959, 「漢四銖半兩陰文銅范」, 『文物』.
- ⑤ 「青島樓山后出土的西漢半兩錢范」, 『文物』1959-9.
- ⑥ 濰坊市博物館, 1985, 「山東高密發現一批漢代銅鏡、銅錢」, 『文物』.
- ⑦ 朱活, 1985, 「三銖錢考—兼談山東萊蕪出土的三銖錢范」, 『文物』.
- ⑧ 李少南, 1987, 「山東博興出土西漢“榆莢”錢石范」, 『文物』.
- ⑨ 諸城縣博物館, 1987, 「山東諸城出土一批五銖錢銅范」, 『文物』.

기서는 서한과 왕망, 동한 전기에 제작된 화폐의 세부적인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앞서 살펴본 동경과 함께 서한시대와 동한 전기 무덤의 편년설정에 참조하기로 한다.

1. 西漢

漢代에는 상업이 발전되고 경제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어 화폐의 유용도가 상승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화폐는 경제적 富의 상징으로 변화되었고 서한대에는 무덤내에 부장되어 피장자의 부를 상징하는 유물로 취급되기 시작하는데¹⁸⁾ 피장자의 신체 주위로 주로 가슴부위, 양어깨, 양손에 해당되는 곳에 서 출토된다. 화폐를 다량으로 출토되는 경우 실에 꿰어 있었으며 솥과 같은 곡식을 담아두는 특수 토기의 내부에서 출토되는 예가 많다¹⁹⁾.

1) 半兩

서한대에 제작되었던 대표적인 화폐로는 五銖錢이 있는데 이는 당시의 度量衡에 준하여 만들어진 화폐로서 秦代에 제작되었던 半兩錢에 계승되어 제작되었던 것이다²⁰⁾. 그런데, 서한 초에는 秦의 화폐가 계속적으로 통용되었으며 秦의 半兩에 비하여 가볍고 크기가 작아 “榆莢錢(유협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제작되었다. 특히, 이 半兩은 일반 민간이 자유로이 주조하였기 때문에 대다수가 조잡하게 제작되었으며 두께나 크기가 균등하지 않다. 직경은 1cm-1.3cm 정도이며 작은 것은 1cm 미만의 것도 있다. 무게는 일반적으로 1.8g-2g 정도로서 半兩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특징은 우선 내부의 사각 투공이 화폐의 전체에 비해 크면서 외곽이 없고 ‘半兩’이라는 글자 크기가늘고 길게 돌출되어 있다.

이어서 高后 呂雉 2年(B.C.186)에는 무게가 8銖인 半兩을 제작하였다. 유협전은 너

18) 吳榮曾, 1956, 『中國古代的貨幣』, 『考古』.

19)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 1959, 『洛陽燒溝漢墓』, 科學出版社, p.215.

20) 『淮南子』 天文訓에 의하면, “十二粟而當一分, 十二分而當一銖, 十二銖而當半兩, 衡有左右, 因倍之, 故二十四銖爲一兩.”이라 하여 兩(兩)과 銖(銖)의 무게 단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漢書』 律歷志上에는 “二十四銖爲兩, 十六兩爲斤”이라 하여 각각의 무게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 1근(斤)의 무게는 지금과는 차이가 있는데 지금까지 한대 무덤에서 확인된 도량형의 무게를 감안하여 볼 때 1근은 지금의 228.8g-256g 정도에 해당하며 평균으로 계산해 보면 약 250g 정도의 무게로 생각해 볼 수 있다.(李發林, 1991, 『戰國秦漢考古』, 山東大學出版社, pp.219-224) 따라서, 1兩은 약 15.6g에 해당하며 1銖는 0.65g으로 五銖일 경우에는 3.25g이고, 八銖일때는 5.20g 정도이어야 당시 도량형을 기준으로 했을때 무게가 적당한 것이다.

표 1. 서한대 동경 일람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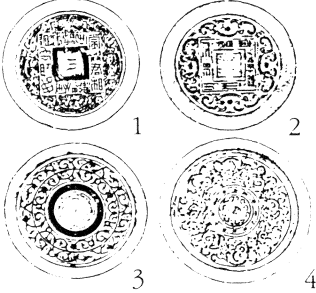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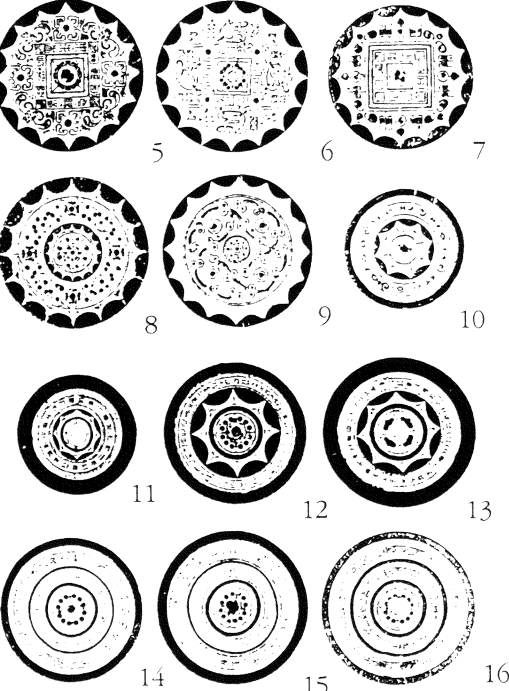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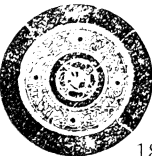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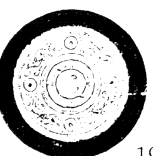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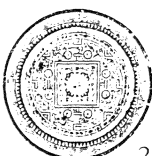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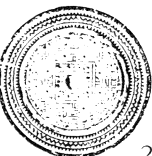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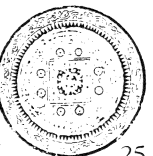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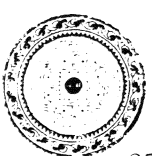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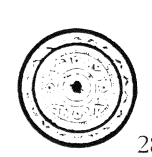
	주요 동경	명문
서한전기		1 蟠龍文鏡 “常與君 相驩幸 母相忘 莫遠望”(廣州漢墓) 2 蟠龍文鏡 “常貴 樂未央 母相忘”(遼寧省西豐漢墓) 3 纏繞式蟠龍文鏡(長沙馬王堆1號) 4 四葉四蟠龍文鏡 “大樂貴富 千秋萬歲 宜酒食”(長沙子彈庫漢墓)
서한중기		5 草葉文鏡 “長相思 母相忘 樂未央”(四川省成都) 6 草葉文鏡 “心思美人 母忘大王”(四川省成都) 7 草葉文鏡 “見日之光 天下大明”(小校經覺金文拓本) 8 星雲文鏡(上海博物館藏) 9 星雲文鏡(陝西省淳化漢墓) 10 日光鏡 “見日之光 天下大明”(河南省禹縣漢墓) 11 昭明鏡 “內而清而以而昭而明而夫而日而月而不而泄”(廣州漢墓) 12 清白連弧文鏡 “潔清而事君 志驩之合明 作玄錫之澤 心疏遠 日忘 慎美姿容 承驩之可說 莫之□□ 愿母絕”(古鏡圖錄) 13 銅華連弧文鏡 “煉治銅華清而明 以之爲鏡因宜文章 延年益壽而去不羊 與天無極而日月之光 樂未央”(江蘇省揚州漢墓) 14 日光重圈鏡 內區:“見日之光 長母相忘”, 外區:“內清質而昭明 光輝象夫兮日月 心忽而愿忠 然雍塞而不泄”(長安漢墓) 15 昭明重圈鏡 內區:“內清質以昭明 光象夫日月 心忽揚而愿忠 然雍塞而不泄” 外區:“潔清白事君 怨之合明 彼玄錫之澤 恐疏遠日忘 懷美之窮商 承驩之可說 慕之靈泉 絕而”(江蘇省盱眙山漢墓) 16 宜佳人重圈鏡 “清治銅華以爲鏡 昭察衣服觀容貌 絲組染逵以爲信 清光宜佳人”(洛陽西漢墓)

표 1. 서한대 동경 일람표(계속)

	주요 동경	명문
서 한 후 기	 17	17 四乳四文鏡(洛陽燒溝漢墓)
	 18	18 四乳禽獸文鏡(廣州漢墓)
	 19	19 四乳四神鏡(廣州漢墓)
		20 尚方作規矩鏡 “尚方作鏡真大兮 上有仙人不知老 渴飲玉泉 飢食棗 壽而金石天之保兮”(洛陽漢墓)
	 20	21 上大山規矩鏡 “上大山 見神人 食玉英 飲金宜官秩 葆子孫 長樂未央 富貴昌 予天母極 駕非龍 由浮雲”(湖南省長沙)
	 21	22 來言規矩鏡 “來(秦)言之紀鏡舒如 倉龍在左 白虎在右 酸去 不陽宜古市 長宜君親利孫子”(廣州漢墓)
	 22	23 善銅規矩鏡 “新有善銅出丹陽 漢 尚方佳竟真大好 上有仙 人不知老 渴飲玉泉飢食棗 浮天下敷四海” (湖南省出土)
	 23	24 福祿規矩鏡 “福祿進兮日以前 天道得物自然 參駕蜚龍乘 浮雲 白虎失 上大山 鳳鳥下 見神人”(洛陽漢 墓)
	 24	25 王氏規矩鏡 “王氏作竟四夷服 多駕新家家民息 胡虜殄滅天 下復 風雨時節五穀熟 長保二親子孫力 官位尊顯蒙祿食 傳告後世樂母極 大利兮”(中 國銅鏡圖典)
	 25	26 始建國天鳳二年規矩鏡 “始建國天鳳二年作好鏡 常樂貴富庄君上 長 保二親及妻子 爲吏高遷位公卿 世世封傳子母窮”(中國銅鏡圖典)
	 25	27 禽獸文規矩鏡(江蘇省揚州)
	 26	28 幾何文規矩鏡 “來(秦)言之始自有紀 治銅錫去其宰 長保二親 和孫子”(中國銅鏡圖典)
	 27	29 簡化規矩鏡(中國銅鏡圖典)
	 28	

무 가벼워 화폐의 손실이 많고 秦代의 半兩은 너무 무거워 유통에 문제가 있어 秦의 반량(12銖)에서 4銖를 감한 8銖의 무게를 가진 半兩錢을 제작하였는데 이를 “八銖半兩錢”이라고 부른다. 처음 제작시의 八銖半兩은 직경은 2.8cm-3.2cm 정도이고 무게는 4.8g-5.5g 정도로 실제 8銖(약 5.2g)의 무게와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다. 이 반량전은 漢代에 제작된 반량전 중에서 가장 크고 무게가 있는 것으로 형태는 비교적 정교하면서 外廓이 없는 형태이다. 글자도 비교적 평면적이고 일부에는 3線의 수직침선이 있는

것도 있다.

文帝 前元 5年(B.C.175)에도 官에서 직접 주조한 일종의 法錢인 반량전을 주조하였는데 이때 무게를 4銖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四銖半兩’이라고 부르고 있다. 직경은 2.4cm-2.6cm, 무게는 2.2g-2.8g 정도로 실제 4銖의 무게에 해당된다. 특징은 ‘半兩’이라는 글자가 篆書體이면서 필획의 각이 뚜렷한 형태이다. 透孔의 상하로 수직침선과 상부에 별모양이, 하부에 반달모양이 있는(上星下月)경우도 있으며 ‘半半’ 또는 ‘兩兩’이라고 명문이 새겨 있기도 한다. 吳王 劉濞나 大夫 劉通 등 일부 지방의 劉氏 왕족이 대량으로 주조하기도 하였으며 약 40여년 동안 제작되어 유통되었다.

2) 三銖

武帝 建元 元年에서 5年(B.C.140-136) 사이에는 ‘三銖錢’이라는 새로운 동전이 제작되었는데 이것은 앞선 사수반량전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 무게가 3銖로 바뀌게 되자 그 실제 무게에 맞는 三銖錢을 제작하게 된 것이다. 동전에 새겨진 명문 역시 ‘三銖’로 되어 있고 무게 역시 이에 준한다. 즉, 직경은 2.3cm 좌우이면서 무게는 2.1g 정도로 규격화되는 경향이 보인다. 명문은 篆書體로 새겨지고 內外廓의 구분이 뚜렷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두 종류가 있으며 無廓의 경우와는 ‘銖’자의 글자체가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 이 동전은 주조 4년만에 제작이 중단되어 무덤에서 출토된 예는 극히 희박하다.

武帝 建元 5年(B.C.136)에 삼수전을 ‘半兩’으로 다시 개칭하여 만들었는데 이를 속칭 ‘三分錢’이라고 한다. 즉, 文·景帝代(B.C.179-141)의 ‘사수반량전’이 부활한 셈이다. 그러나 文帝와 景帝代와 다른 점은 민간이 사수반량전의 외변을 갈아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전의 외곽을 둘렀다. 따라서, 이를 ‘外廓半兩’이라 부르기도 한다. 武帝代의 반량은 文·景帝代의 것에 비해 가운데 사각 투공이 작고 직경은 2.5cm, 무게 2.5g 정도로 일정한 편이다. ‘半兩’이라는 글자도 그 끝이 직각으로 꺾여 있고 ‘兩’의 ‘人’자가 ‘一’자로 처리된 것이 많다.

秦나라의 반량전은 8g 정도의 무게로서 실제 12銖의 무게에 해당되는 데에 반하여 漢代에 주조된 반량전은 실제 무게가 동전에 새겨진 무게와는 차이가 있었다. 비록 八銖의 반량전도 제작되었지만 이 역시 직경 2.4cm정도이고 무게도 4g-4.6g에 불과한 것이 더 많아 실제 8銖(약 5.20g)의 무게에 미치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동전에 명문된 무게와 실제 제작된 동전의 무게와 동일한 새로운 동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3) 五銖

그래서, 오수전이 武帝 元狩5年(B.C.118)에 와서야 비로소 제작되었는데 이때에는 중앙에서 뿐 아니라 지방의 郡國에서도 제작되어 ‘元狩五銖’ 또는 ‘郡國五銖’라고 불리우고 있다. 동전 면에는 ‘五銖’라는 두 글자가 있는데 글자의 특징으로 ‘五’자가 거의 직선상으로 교차되어 있다. ‘銖’자의 ‘朱’는 머리 끝부분이 각이 있고 ‘金’의 머리 끝부분도 화살촉 모양으로 삼각상을 이루고 있다. 명문이 있는 부분인 前面의 투공에는 廓이 없는 반면 背面에는 廓이 선명하다. 직경은 2.5cm, 무게는 3.5g-4g이다. 이렇게 제작되기 시작한 오수전은 魏晉南北朝를 거쳐 唐 高祖 武德 4年(621) 까지 무려 739년간 제작 사용된 중국에서의 최장수 동전이고 시기에 따라 각기 특징을 지니고 있다.

武帝代에는 상기의 오수전 외에도 두 종류의 오수전이 더 제작되었다. 그 중 하나가 元鼎 2年(B.C.115)에 제작된 ‘赤仄五銖’로 군국오수전 외곽부분에 紅銅을 도금하여 만든 것으로 적측오수는 군국오수에 비해 5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일반인과 상인들에 통용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元鼎 4年(B.C.113) 上林苑에서 오수전을 주조하게 하고 郡國에서 오수전의 제작을 금지하게 하였다. 이때 상림원의 三官(鑄官, 辨銅, 技巧)에서 새로이 오수전을 제작한 것이 소위 ‘三官五銖’이다. 직경은 2.5cm, 무게 3.5g으로 제작이 더욱 정교하고 규격화되었으며 동전의 명문도 훨씬 선명해지고 外廓도 뚜렷하다. 이로써 이후의 오수전은 이를 기본 틀로 삼고 널리 주조하게 되었으며 이는 서한말인 平帝 元始 년간(A.D.1-5) 까지 사용되었다.

武帝 이후 昭帝에 이르기까지 오수전의 유통이 경제생활을 원활하게 기여함에 따라 銅質이나 形態, 書體 등 동전 제작에 대한 정교성과 규격화가 요구되었다. 그래서, 宣帝代(B.C.73-49)에 새로이 오수전의 틀을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소위 ‘宣帝五銖’로 직경은 2.5cm, 무게 3.5g-4g으로 다른 것과 별 차이가 없다. 이 시기 제작된 오수전의 특징은 우선 ‘五銖’의 글자가 다른 것에 비해 가늘고 길어 선명하다. ‘五’자에서 만곡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상하의 가로획이 다소 길고 교차획과 수평면의 이어지는 부분이 거의 직각상을 이루고 있다. ‘銖’자의 ‘朱’ 머리부분이 직각상으로 처리되고 ‘金’은 머리부분이 삼각상이며 ‘朱’에 비해 약간 작은 편이다. 외곽은 선명하고 밖에서 안쪽으로 약간 경사를 두고 있다. 前面의 투공에는 상하 가로횡곽선이 대체로 선명한 편이다. 어떤 것은 아래쪽 또는 상하에 반달모양의 半星이 있는 것도 있다.

武帝에서 宣帝代에는 소형의 오수전이 일부 제작되었는데 이를 ‘小五銖’라고 부른다. 직경은 1cm-1.2cm, 무게 0.6g 정도로 ‘五銖’의 글자 모양이 이 시기에 제작된 오수

의 글자모양과 동일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한 시대의 동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서한 전기에는 앞선 시기의 秦代 반량전을 변형하여 제작 사용되다가 서한 중기인 武帝에 들어와서야 오수전을 제작 사용하게 되었다. 제작 초기에는 郡國을 비롯한 지방에서도 제작되었으나 기원전 113년 오수전이 제작된지 5년만에 비로소 그 모델이 규격화, 정량화되어 본격적으로 유포된 것을 알 수 있다.

2. 新

王莽의 新은 비록 존속시기(A.D.8-25)는 짧지만 ‘一刀平五千’, ‘契刀五百’, ‘小泉直一’, ‘大泉五十’, ‘六泉’, ‘十布’, ‘貨泉’, ‘貨布’, ‘布泉’, ‘五銖’ 등 10여 종류의 동전을 제작하였다. 무덤에서 출토되는 것 중에서는 大泉五十와 貨泉, 貨布 등이 많으나 나머지 것은 그 예가 적은 편이지만 관련된 유적에서 이들 동전이 출토될 경우 앞으로 자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간략하게 그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²¹⁾.

1) 居攝 2年 製作

가. 一刀平五千

居攝 2年(A.D.7)에 이전의 刀錢을 부활하여 만든 것으로 일명 ‘金錯刀’라고 부르는 것이다. 刀環과 刀身の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전은 도환의 구멍 상하에 ‘一刀’라고 陰刻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순금으로 象嵌되어 있는 것도 있다. 도신에 ‘平五千’이라고 있는데 五千은 五銖錢과 같은 가치로 통용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길이 7.3cm, 두께가 일정하지 않아 무게 20g-40g으로 차이가 많다.

나. 契刀五百

居攝 2년에 제작된 것으로 일명 ‘契刀’라고 부른다. 길이는 7.3cm, 무게는 16.5g 정도로 刀環에 ‘契刀’라는 銘이 구멍 좌우에 있고 刀身에는 ‘五百’이라는 銘이 있다. 어떤 것은 도신이 없이 도환부만 제작된 것도 있다.

21) 왕망시대 제작된 동전에 관해서 아래의 글들이 참조된다.

- ① 聞言, 1957, 「關於王莽“貨泉”及“貨布”的鑄作年代」, 『考古』.
- ② 吳榮曾, 1957, 「讀“關於王莽貨泉及貨布的鑄作年代”的意見」, 『考古』.
- ③ 「西漢北郊新莽錢范窯址清理簡報」, 『文物』 1959-11.
- ④ 劉東亞, 1985, 「河南征集的“五銖”及“大泉五十”錢銅范」, 『文物』.
- ⑤ 王洪明, 1990, 「山東海陽出土“大泉五十”錢范」, 『文物』.

다. 大泉五十 : 역시 居攝 2년에 제작된 것으로 초기에 제작될 때는 직경 2.8cm, 무게 7g 정도였으며 내외 윤곽이 선명하고 글자체도 篆書體로 미려한 편이다. 그러나 이후가 되면서 크기는 2.6cm, 무게는 3g 정도로 작고 얇아지면서 글자도 선명하지 않으며 심지어 1g-2g 정도의 소형도 주조된다. 대천오십의 명문은 원래 상하우좌의 순으로 읽어 지는데 이후에는 그 순서가 뒤바뀌거나 글자가 거꾸로 있거나 누워 있는 경우, 背面에도 있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바뀐다.

2) 始建國 元年 製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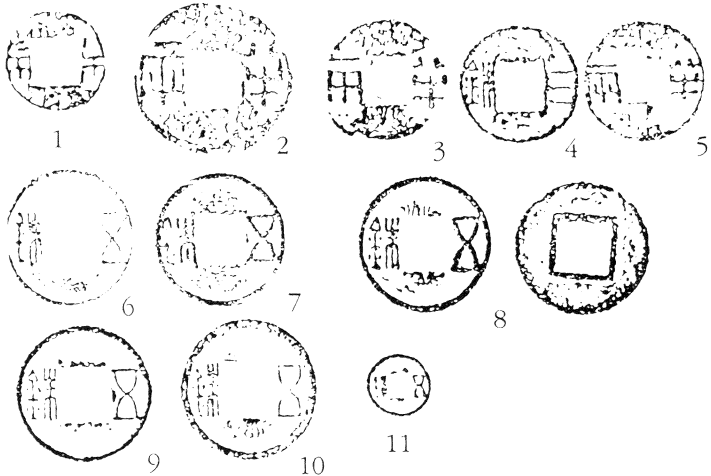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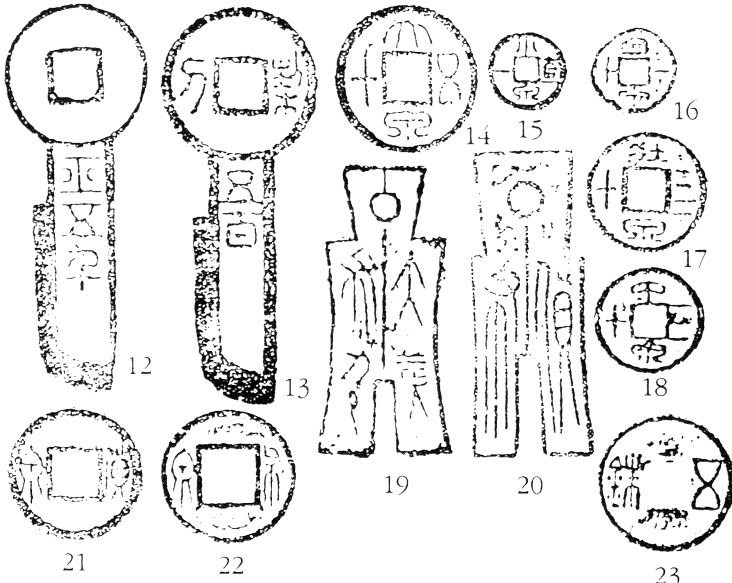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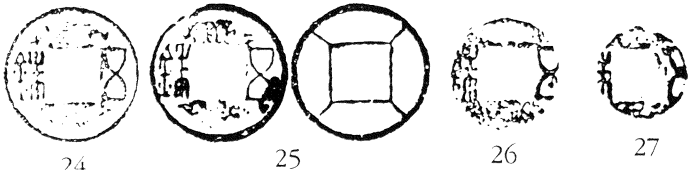
라. 小泉直一 : 王莽의 始建國 元年(A.D.9)에 제2차 화폐개혁시 제작된 것이다. 이는 漢의 '劉氏'姓에서의 '卯, 金, 刀(刂)'의 글자는 新 王朝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함에 따라 앞선 화폐는 폐기되고 대천오십과 함께 사용할 새로운 동전을 제작하게 된 것이다. 즉, 小泉 50매는 大泉 1매의 가치를 가지도록 하였는데 그 직경은 1.3cm, 0.7g 정도이다. 제작은 정교한 편이어서 글자는 선명하다.

3) 始建國 2年 製作

마. 六泉 : 始建國 2年(A.D.10)에 제3차 화폐개혁시 제작된 것이다. 大泉五十과 小泉直一 이외에 별도로 제작한 동전으로 '么泉一十'(직경 1.6cm, 무게 1.8g 소천 10매의 가치), '幼泉二十'(직경 1.8cm, 무게 3g 소천 20매의 가치), '中泉三十'(직경 2cm, 무게 4.2g 소천 30매의 가치), '壯泉四十'(직경 2.2cm, 무게 5.4g 소천 40매의 가치) 등 다양하다. 그런데, 이미 대천과 소천은 강제적으로나마 사회에 통용되고 있었지만, 민간에서는 오수전이 교역의 주 화폐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동전은 자동적으로 폐지되어 무덤에서 출토되는 예가 극히 드물다.

바. 十布 : 始建國 2년에 역시 제작된 것이다. 종류는 前面의 명문이 다양하여 '小布一百', '么布二百', '幼布三百', '序布四百', '差布五百', '中布六百', '壯布七百', '第布八百', '次布九百', '大布黃千' 등이 있다. 형태는 머리부분에 둥근 소형공이 있고 그 아래로 수직선이 내려가 좌우로 구분 짓고 글자의 순서는 上右, 上左, 下右, 下左의 순으로 읽는다. 이 가운데 '大布黃千'이 무덤 속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고 있고 나머지는 그 출토예를 찾기 어렵다.

표 2. 한대 동전 편년 일람표

	주요 동경	명칭
서 한 시 대		1 榆莢半兩錢 2 八銖半兩錢 3 四銖半兩錢 4 三銖錢 5 外廓半兩錢 6 郡國五銖錢 7 赤仄五銖錢 8 三官五銖錢 9·10 宣帝五銖錢 11 小五銖錢
왕 망		12 一刀平五千 13 契刀五百 14 大泉五十 15 小泉直一 16 公泉一十 17 壯泉四十 18 中泉三十 19 大布黃千 20 貨布 21 貨泉 22 布泉 23 更始五銖錢
동 한 시 대		24 東漢五銖錢 25 四出五銖錢 26 磨廓五銖錢 27 剪邊五銖錢

4) 天鳳 元年 製作

사. 貨泉 : 天鳳 元年(A.D.14)의 제4차 화폐개혁때 주조된 것으로 앞선 동전들을 통폐합하여 貨泉, 貨布 두 종류의 동전으로 만들었다. 화전은 직경이 2.2cm-2.4cm, 무게 2.8g-3.6g으로 대부분 내외곽이 뚜렷하며 글자체는 가는 篆書體로 ‘泉’자의 가운데 부분이 ‘T’자상으로 처리되고 아래 부분이 단절되어 있으면서 수직상으로 한 개의 선으로 처리하였다. 초기의 화전은 무게도 5g 정도로 무겁고 글자도 정교한 것도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소형화가 되면서 조잡해져 심지어 1g 정도의 것도 있다. 화전은 王莽시대의 화폐 중에 무덤과 각종 유적에서 출토된 예가 가장 많아 제작 사용된 범위가 상당하였음이 짐작된다.

아. 貨布 : 화전과 동일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화포 1매는 화전 25매와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중앙에 둥근 투공이 있고 그 아래로 수직선이 좌우로 나누고 명문은 가늘고 정교한 篆書體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읽혀진다. 길이는 5.6cm 정도이고 무게는 일반적으로 16.5g 정도이다. 화포는 新이 멸망하는 기원 25년까지 10여 년간 제작 통용되었는데 대천오십, 화전과 함께 왕망시대의 장수 화폐로 알려져 있다.

자. 布泉 : 문헌상에 제작연대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화포와 화전과 동일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직경은 2.6cm, 무게 3.5g 정도이다. ‘布泉’이라는 전서체 글자가 우에서 좌로 읽혀진다.

차. 五銖 : 建元 更始(A.D.23)에 제작되어 ‘更始五銖’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직경은 2.5cm, 무게는 3.5g 정도이다. 宣帝대에 제작된 것에 비해 ‘五銖’의 글자는 풍만한 느낌을 주고 ‘五’자의 만곡은 더욱 심하다. ‘銖’의 ‘朱’는 상부의 각이 무디어 지면서 반원상에 가깝게 변형되어 있고 ‘金’자의 정상부는 삼각상이 정삼각상으로 되면서 그 아래 4점이 배열된 형태이다.

3. 우리 나라 南部地方 出土 銅錢

이제 까지 남부지방에서 출토된 것으로는 김해 회현패총으로 알려진 봉황동에서 출토된 것이 가장 먼저이고²²⁾ 濟州道 山地港에서 新代의 동전이 출토되었다²³⁾. 그 이후 마산의 성산패총과²⁴⁾ 거문도에서 980점의 오수전이 무더기로 바다에서 인양되어 지금

22) 梅原末治・濱田耕作, 1923, 「金海貝塚發掘調査報告」, 『大正9年度古蹟調査報告』.

23) 梅原末治・藤田亮策, 1947, 『朝鮮古文化綜鑑』 I.

은 300여점만 남아 있으며²⁵⁾ 해남 군곡리와²⁶⁾ 창원 다호리²⁷⁾에서 최근에는 늑도패총에서도 반량전이 출토되었다. 여기서는 우리 나라 남부지방에서 출토된 바 있는 동전의 예를 소개하고 앞에서 살핀 내용을 통해서 그 제작연대를 추정해보았다.

〈표 3. 우리 나라 남부지방 출토 동전〉

유 적	종 류	주 요 특 징	연 대
김해 회현리패총	貨泉	직경 2.25cm, 두께 0.12cm	新(A.D.14)-
제주도 산지향	五銖貨泉 大泉五十 貨布	五銖 : 직경 2.51-2.62cm, 두께 0.12cm, 무게 2.71-3.0g 貨泉 : 직경 2.14-2.29cm, 두께 0.12-0.2cm, 무게 2.11-2.72g 大泉五十 : 직경 2.73-2.83cm, 두께 0.22-0.23cm, 무게 5.76g 貨布 : 전장 5.77cm, 두께 0.22cm, 무게 12.83g	新(A.D.7)以後
마산 성산패총	五銖	직경 2.4cm, 穿上半星, 內廓鮮明	宣帝五銖(B.C.73)以後
여천 거분도	五銖	1. 穿上橫文 : 직경 2.48-2.66cm, 무게 2.48-4.36g 2. 穿下半星 : 직경 1.96-2.69cm, 무게 2.89-4.28g 3. 기타 : 직경 2.52-2.71cm, 무게 2.18-3.34g	三官五銖(B.C.113)以後
해남 군곡리패총	貨泉	직경 2.5cm, 두께 0.2cm, 무게 2.77g	新(A.D.14)以後
창원 다호리	五銖	1. 穿上橫文 : 직경 2.5cm, 무게 2.9g 2. 四角決文 : 직경 2.55cm, 무게 3.25g 3. 직경 2.5cm, 무게 3.8g	三官五銖(B.C.113)以後 " 郡國五銖(B.C.118)以後
사천 늑도패총	半兩	직경 2.3cm, 무게 2.19g	四銖半兩(文帝 B.C.175)

물론 상기표에서의 연대는 그 제작의 특징을 분석해 본 결과 주조연대를 말하는 것이지 유물의 사용연대 또는 폐기연대를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출토 유적의 상한연대를 짐작하는 자료로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점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늑도패총에서 반량전이 출토되기전 까지만 하여도 우리 나라 남부지방에서 출토된 동전의 대부분이 서한 중기 이후와 新代에 제작된 것들이어서 이들 지역과의 본격적인 교역시기를 漢의 四郡 설치이후로 짐작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늑도유적에서 이보다 이른 시기에 제작된 ‘四銖半兩’이 출토됨으로 해서 漢四郡보다 훨씬 일찍부터

24) 文化財管理局, 1976, 『馬山城山外洞貝塚發掘調査報告』.

25) 池健吉, 1990, 『南海岸地方 漢代貨幣』, 『昌山金正基博士回甲紀念論叢』.

26) 崔盛洛, 1987, 『海南郡谷里貝塚』Ⅰ, 木浦大學校博物館.

27) 李健茂 外, 1989, 『義昌茶戶里遺蹟發掘進展報告Ⅰ』, 『考古學誌』 1.

남부지방과 대륙과의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고고학적으로 큰 수확이 아닐 수 없다. 반량전과 함께 구연과 동체 상단부가 회전불손질 정면된 환원소성의 회백색 漢式 甕形土器는 더욱 그러한 가능성을 증가해주고 있다. 사실 半兩錢은 이제까지 우리 나라 서북지방에서 일제시대에 두 점 확인되었을 뿐 남부지방에서는 처음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자료는 앞으로의 발굴성과를 기대해보면서 이제까지 중국과의 문화교류의 시점을 漢四郡을 중심으로 하여 비정해오던 것을 시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해 본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서한대에 주조되어 통용되었던 동경과 동전의 특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우리 나라 남부지방에서 출토된 동전에 대해서도 그 주조연대를 추정해보았다. 필자의 이러한 시도는 앞으로 이 시기 연구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대관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더욱 증가하면 보충하여 수정제시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연구로 인하여 단순한 비교연구에 그쳤던 연구의 한계에서 당시의 사회적 환경연구로의 체계적인 연구성과의 진보가 있기를 희망하면서 이러한 연구방향에 대한 기초적인 과정에서 필요한 단계에서의 연구성과라고 생각하고 싶다.

【Abstract】

**A Study on Bronze Mirrors & Coins of West-Han
Dynasty in China**

Shin, Yong-Min

The Bronze Mirrors and Coins which were excavated from the site of Three Han Period, were suggested the symbols of the position of the dead. But it were rare chronological study and explanations of character of Bronze Mirrors and Coins of Han Dynasty in China.

In this paper, it were explained that the chronologies and characters of Bronze Mirrors and Coins of West-Han Dynasty in China. In addition, it was inferred the minting chronology of the Bronze Coins excavated from Southern area of Korea.